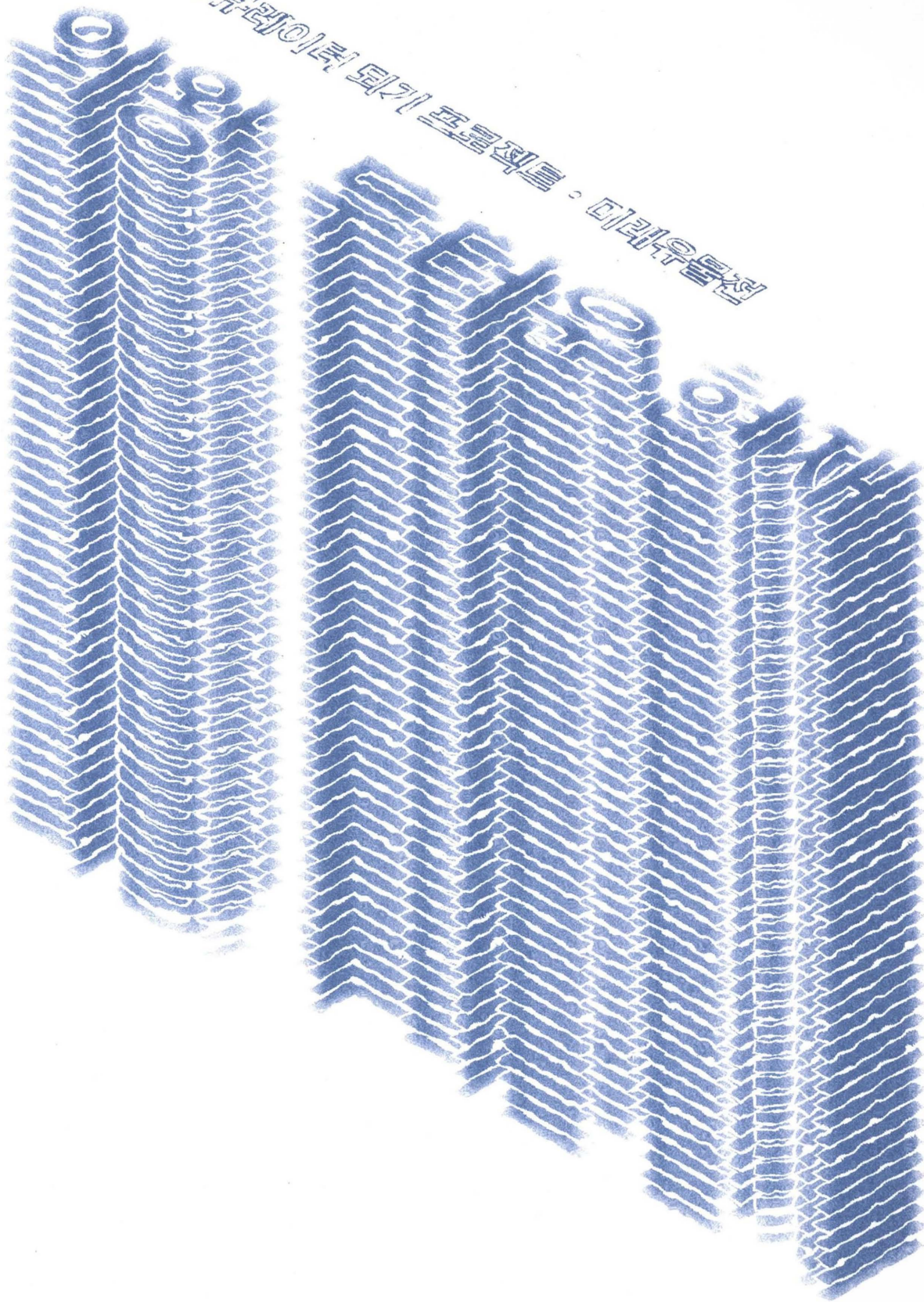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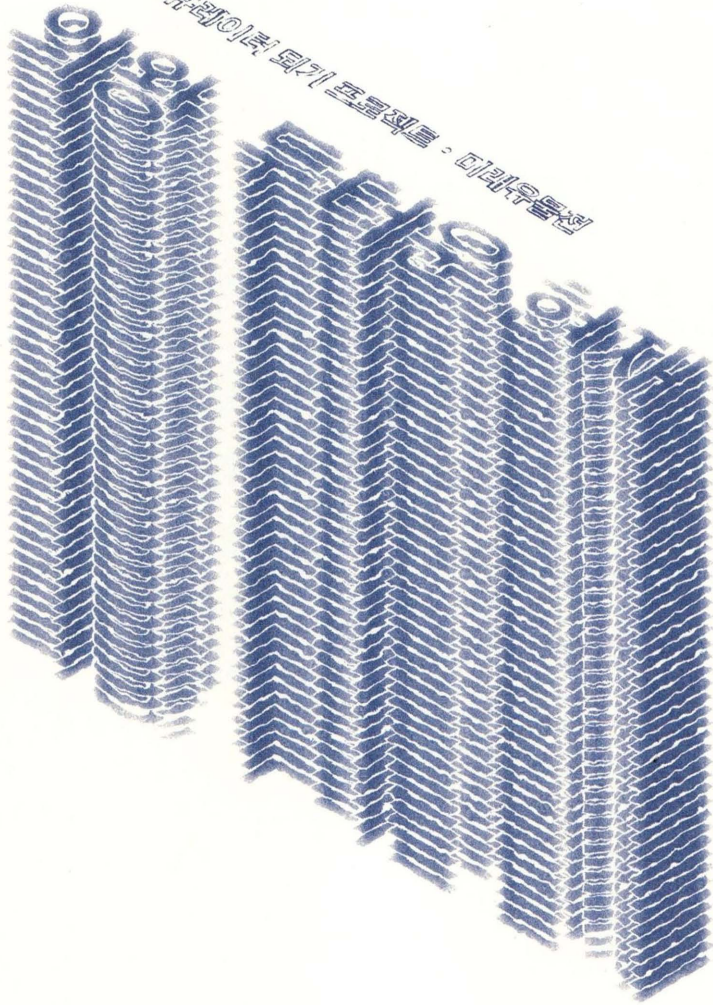


마을투라이터 되기 프로젝트 : 미래유물전



마을투라이라 되기 프로젝트 : 다라유물전



<미래유물전>을 의왕에서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화원은 지역의 역사와 전통에 바탕을 두고 그 지역 정신의 중심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역사와 전통이라고 하면 고리타분하고 진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화원이 항상 '과거'만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만 더 생각해보면 '과거'는 언제부터 과거일까? 하는 문제의식이 본 사업을 관통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과거는 '현재가 켜켜이 쌓인 것'이라는 생각과 그 현재가 모이고 모여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발상으로부터 <미래유물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문에 올해 <미래유물전>의 제목을 <두터운 현재>로 설정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로소 본래의 의미를 살린 <미래유물전>이 이 곳 의왕에서 처음 살아난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전례 없는 전염병과의 싸움으로 당황해하면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언제나처럼 우리는 결국은 이겨내겠지만, 코로나는 자연에 대해 사람에 대해 그리고 지역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더 크게, 더 빨리, 더 높이 오르고자 욕망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의 어느 한 지점인 한국에서, 경기도에서, 지역에서,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계기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동네에서 우리 주변의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 지역문화원이 그리고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미래유물전>이 발신하는 메시지입니다. 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의왕문화원 이동수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김대진

들어가며

1 의왕, 두터운 현재 [미래유물전]

9

2 마을과 삶에 대한 감각, 스위치 켜기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 8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와 <미래유물전>으로
펼치는 마을 읽기
 - 10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in 의왕>
& <의왕, 두터운 현재> 전시에 이르기까지
 - 13 프로젝트 진행과정
-

17 의왕, 두터운 현재를 전시하며

전시 작품

- 22 2017년, 2018년 2년에 걸친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의 기록
- 27 수집된 순간의 기억 노트
- 29 흐르는 텍스트
- 32 일기장 아카이빙: 마을 큐레이터 워크숍
- 34 밋트로프: <자전하는 순간들>, <겹겹의 현재>
- 37 나의 소유물
- 41 로드맵: 일상
- 42 마인드맵: 비일상
- 43 각성의 흔적(2021)
- 46 도시 숲
- 50 의왕을 문장하다

53 전시 이모저모

59 전시 정보

- 62 첫 번째 워크숍: 활동방향과 작가소개 그리고 협업
- 81 세 번째 워크숍: 현장 워크숍 I 이후 경험
- 109 다섯 번째 워크숍: 현장 워크숍 II 이후 경험
- 139 전시를 위한 워크숍: 워크숍과 미래유물에 대한 단상 나누기
- 159 원페이지: 워크숍 후 떠올린 '나'의 감정과 생각 글쓰기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와 <미래유물전> 으로 펼치는 마을 읽기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는 <마을큐레이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 마을큐레이터란?

- 마을큐레이터는 문화해설사가 갖지 못하는 생활문화, 일상문화를 더욱 촘촘히 읽어내고
- 마을의 경제적, 공간적, 사회적인 변화가 일상생활 양식에 미치고 있는 현재진행형 요인을 발견하고
- 지역문화의 특성을 현재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지역주민을 말합니다.

경기도 지역문화원이 ‘마을’을 ‘다시 읽어’ 지역 ‘재발견’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이 아닌 ‘마을’로 접근한다는 점. 두 번째, 기존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지역을 ‘현재적 시점’으로 다시 읽어낸다는 점. 세 번째, 역사학자나 민속학자가 아닌 ‘주민 주도의 지역 읽기’를 통한 지역 재발견’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문화원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했습니다. 첫째, 지역문화원이 참여한 주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의 의미를 찾고 ‘지역다움’을 발견하고, 둘째, 지역 커뮤니티 연결망 구성을 통해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주민활동가(마을큐레이터)들의 새로운 지역읽기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의왕문화원, 하남문화원, 오산문화원, 성남문화원이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협력 했고, 이천문화원과 의정부문화원은 새로운 형태의 마을 읽기 사업을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했습니다. 6개 지역문화원의 활동과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마다 다른 사정과 특성들이 있겠지만, 이제 경기도 지역문화원이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 현재적 접근’이라는 차원에서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나 자평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이 많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막 첫 걸음을 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지역문화원과 협력하여 최종적으로는 지역 생활문화활성화를 지원하는 플랫폼 구조를 완성하고, 그것의 완성을 위한 구조적, 조직적 시스템을 마련하기까지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을 조사하고 재발견하는데서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적 시점에서 새롭게 발견된 마을의 이야기가 앞으로 지금까지와 다른 특별한 마을로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솔루션이 도출되어야 하고, 그것에 기초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 추진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이 살 만한 곳’, ‘주민들이 애정 하는 곳’, ‘주민들이 자랑할 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각 지역문화원은 ‘오픈 플랫폼으로의 전환’과 ‘자발적, 창의적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연결망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하는 또 다른 프로젝트 <미래유물전>에 대해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유물전>은 시민들의 주도적 마을 읽기를 바탕으로 생산된 콘텐츠와 예술 작가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아카이브전>이라는 성격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애당초 기획 단계부터 마을큐레이터 사업의 연결선 상에 존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미래유물전>을 시작할 당시 경기도 지역문화원에게 ‘주민 주도적 마을의 현재 읽기’라는 제안은 대단히 낯선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향토문화유물전의 성격을 띠기도 하고, 지역의 과거를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학습시키는 전시가 되기도 하고, 지역 예술가들이 지역을 표현한 작품을 전시하기도 하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는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와 <미래유물전>을 통해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지역문화원의 일련의 사업들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에 대해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익숙하게, 무심하게 지나쳤던 지역을 낯설게 만들고, 매핑을 통해 마을을 새롭게 감각해 보는 작업으로 연결된 의왕지역 마을큐레이터 활동은 3년차에 접어들면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추진했던 기획전 <미래유물전>으로의 연결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의왕 지역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는 3년의 과정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을과 삶에 대한 감각, 스위치 켜기’라는 주제로 지역주민이 다양한 감각 축수를 활성화하여, 기존에 무심코 지나쳤던 거리들을, 사람들을, 건물들을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가만이 아닌, 전시 기획자만이 아닌 마을 주민들이 직접 조사, 재발견한 마을의 일상을 비로소 보여줄 수 있는 전시가 의왕문화원과 의왕 주민들에 의해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첫 걸음은 <두터운 현재>라는 주제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당시의 현재인 과거가 켜켜이 쌓여 지금의 현재를 구성하고, 그 현재들이 쌓여 미래가 된다는 선언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문화원이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의 맥락적 전복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본 궤도에 오른 두 개 프로젝트의 진정한 실험이 의왕지역에서 성남지역으로 옮겨 <성남, 도시에 말 걸기>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남이라는 공간과 장소성에 대한 낯선 접근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에 의한 새로운 접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의 현재적 재발견 프로젝트’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와 지역아카이브기획전 <미래유물전>이 이제서야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의 걸음과 실험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 성남지역 주민에 의해 발견된 지역이, 마을이 예술가와의 결합을 통해 어떻게 지역아카이브기획전 <미래유물전>으로 펼쳐질지 기대하며....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최영주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in 의왕> & <의왕, 두터운 현재> 전시에 이르기까지

<미래유물전>을 말할 때면 여전히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를 말할 때 <미래유물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두 개의 사업이 연관 맺게 된 출발은 <미래유물전>으로부터다. 전시는 누가 만들며 어떻게 구현 과정을 거칠 것이며 무엇을 말하고자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가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미래유물전시를 위해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의 필요성이 요구된 것이다. 이런 앞 뒤 맥락으로 보자면 의왕에서 진행된 두 개의 사업 즉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과정은 <미래유물전>으로 달게 되는 구조였다. 좀 더 설명하자면 <미래유물전>을 진행하면서 제기된 문제로부터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가 생겨난 후 올해 2021년까지,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과정을 <미래유물전>으로 연결시키는 실험을 해본 첫 해이다. 마을큐레이터 되기-미래유물전 이렇게 '한 세트'의 시범사업은 7년 만에 비로소 이루어진 셈이다. 길다면 긴 시간동안 끊이지 않고 비슷한 질문이 던져졌다.

우리 마을을 대표하는 유물, 미래에 유물이 될 만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묻는 유물에 대한 자격에 대한 것이다. 이 자격은 대략 희귀성, 독보적 가치, 전례 혹은 전승할만한지의 적합성 등 이미 유물로 승인된 것, 전문가의 권위를 빌어 인정된 것들에 대한 것을 찾으라는 요청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마을큐레이터 활동에서 지향한 것은 당사자로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태도였다. 이 태도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며, 함께하는 이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듣는 것에 관한 것인데, 어떤 말을 해도 괜찮다는 자리의 마련이며 듣고 응답하겠다는 귀 기울임의 활동으로 구성하겠다는 의미다.

정작 마을은 그 자체로 있다. 마을을 알아간다는 것은 개인의 삶의 행위가 일어나는 일상에서다. 마을 혹은 지역은 저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발밑에 있으며 당사자로서 마주하고 경험하는 감각으로 구체화된다. 마을이라는 관념 속에서 활동의 구체성을 찾으려다보면 허무적일 수밖에 없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감각 즉 개별적인 당사자 행위로 활동의 내용이 좁아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래야 한다. 자기의 일상을 목소리로 드러내는 것은 개인적인 소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의존하는 관계망을 따라가는 것이며 이 과정은 고스란히 마을이라는 생존의 거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하다. 때문에 의왕은 참여하는 주민들의 서사 생산처이며 개별적 세계가 만들어지는 상상의 공동 거처다. 이런 활동이 지역과 관련 없는 활동은 아닐 것이다.

다른 지향을 갖는 두 개의 지향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다. 무엇이 유물이 될 만한가의 물음에서 누가 유물이라고 말할 것인가로 전환이며, 주어진 전통적 가치의 되새김에서 현재 삶으로 시점을 옮기게 된다는 것. 따라서 마을큐레이터로 호명된 주민들 스스로가 활동의 주체로 인식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어떤 답에 대한

증명의 과정이거나, 주어진 내용을 외워 동일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했다. 막연하지만 규명되지 않은 감각으로부터 단초를 잡아채 어렵지만 그 낯것의 느낌을 명명해보는 실험에 도전하는 과정까지. 그러기 위해 기존의 믿음과 가치를 다르게 보고 접근하는 태도가 요청되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일상을 비밀상으로 만나고자하는 의지, 수행의 방식이다. 이와 같은 맥락은 <미래유물전>으로 이어지기 위해 3년차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는 예술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범적 설명이나 기존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일인칭으로 돌아가 다르게 보고 다시 읽고 듣고 말하는 방식을 함께 제안해줄 새로운 주체로 예술가들을 초청했다.

따라서 올해의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에 이어 <미래유물전>은 예년에 비해 더 많아진 주체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담당하는 주체(경기도문화원연합회, 의왕문화원),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기획자, 퍼실리테이터), 활동가(참여주민, 예술가), 장치와 제작을 위한 외부인력 등. 이들은 각기 맡아야 할 역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활동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활력은 생기를 얻는 상호의존적 관계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알고 보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러하다. 그럼에도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자하는 두 개의 연결된 프로젝트가 전체적인 그림을 구상하지 않고 걸어가면서 그림을 그려야하는, 비정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긴가(期然)와 민가(未然) 사이에서 필요한 것은 서로 의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뒷받침하는 믿음이다. 참여주민들과 보폭의 속도를 맞추며 작가들은 자기 걸을 살린 작품 활동과 연계되기를, 그러면서 의왕을 지역성을 놓치지 않기를, 중간 중간 멈칫거리며 길을 만들며 가야한다는 우려 때문에 믿음은 더 절실했다. 그리고 지난 2년(2017, 2018년)의 의왕에서의 <마을큐레이터 되기 과정>에 참여한 이들과 먼저 공유된 경험이라는 객관적 근거는 믿음의 가능성이 되었다.

이번 '한 세트'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입장을 갖고 있는 주체들이 서로 같은 이름을 다른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불화의 지점이 생겨나고, 각자 주장하는 것과 상호 의미부여 지점이 다른 입장차를 명민하고 밀도 있게 알아차리고 더는 멀어지지 않게 조절해야하는 것까지 감안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7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미래유물전>은 여러 경로로 다르게 등장했다.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는 3년 동안 마을주민들과 워크숍을 거치는 시간을 보냈다. 그 동안 <미래유물전>은 짝꿍이 될 마을큐레이터 없이 지역의 특징을 보여주는 전시형식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안다. 그러는 동안 지역의 문화원들은 정치적 환경 변화와 정책, 직원들의 이동 등 여러 변화를 겪었다. 애초의 <미래유물전>과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가 생겨난 기획의 결을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7년은 시간이 아니라 세월이었다.

분명한 것은 자신들의 활동행위에서 오는 감각의 기록이 가치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문제이기보다 누구의 가치이며 누가 말하고 있는지를 물었다는 점이다. 동시대를 바라보는 이번 활동은 이후 재의미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현재로 쌓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과거도 미래도 바꾸어내는 것은 지금에 있다는 것이다. 2021 미래유물전 '의왕, 두터운 현재'는 이렇게 재현되었다.

프로젝트 기획 • 전시 감독 민병은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8. 31 – 11. 2

2017

- 사례 공유와 방법 알기
- 매핑을 활용한 지역읽기
 - 고천동의 어제와 오늘 이야기
 - 청계동, 슬렁슬렁 마실거리
 - 골우물, 마을의 맛과 멋
 - 내손동, 추억, 그리고 그리움을 공유하는 곳
- 매핑 결과 발표하고 공유하기

2018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마을과 삶에 대한 감각, 스위치 켜기>

9. 1 <첫 번째 워크숍>

9. 8 <두 번째 워크숍>

2021

- | | |
|----------------------|---|
| ▪ 활동 방향과 작가소개 그리고 협업 | ▪ 현장 워크숍 I |
| ▪ 그룹 나누기 | - 오매기마을, 래핑, 여행, 생명력, 색깔
컨셉에 따라 감각하고, 기록하기 |
| | - 패이글, 낯선 행동으로 감각하고,
기록하기 |

미래유물전 <의왕, 두터운 현재>

11. 3 <전시를 위한 워크숍>

11. 29 – 12. 5 <전시 설치>

- | | |
|---------------------------|-------------|
| ▪ 워크숍과 미래유물에 대한
단상 나누기 | ▪ 전시장 설치 |
| ▪ 전시 모습 상상하기 | ▪ 전시될 사물 수집 |
| | ▪ 도슨트 모집 |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6. 1 – 8. 24

- 지리적 상상하기 / 계획세우기
- 현장 워크숍(관찰, 수집, 기록, 버리기와 배열)
- 매핑을 활용한 지역읽기
 - 학생들의 삶이 보이는 오전명동길
 - 집성촌의 변화를 읽어보는 도롱마을 성씨, 길의 변화
 - 길과 건물 매핑으로 읽어낸 원터마을의 다이나믹한 변화
 - 재건축 지역과 아닌 지역의 차이가 느껴지는 내손2동 골목
 - 걷기 좋은 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보이는 삼남길 제2, 3구간
- 매핑 결과 발표하고 공유하기

13

9. 15 <세 번째 워크숍>

9. 29 <네 번째 워크숍>

10. 6 <다섯 번째 워크숍>

- 현장 워크숍 I 이후 경험 공유하기

- 현장 워크숍 II

- 도깨비시장, 색으로 감각하고, 기록하기
- 오전로가족공원, 낮선 행동으로 감각하고, 기록하기

- 현장 워크숍 II 이후 경험 공유하기

12. 6 – 12. 12 <미래유물전>

- 전시 오픈식
- 전시 관람

1

미래유물전
의왕, 두터운 현재

여 백

의왕, 두터운 현재를 전시하며

이 전시는 2017년, 2018년 그리고 2021년에 이은
[의왕_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3년의 과정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전시된 작품들은 올해 '마을과 삶에 대한 감각, 스위치
켜기' 워크숍 전 과정을 계획한 세 명의 작가들과, 참여했던
주민들에 의한 것입니다.

지역에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지역은 저기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발 밑에 있다는 것을 알아간 과정의
생산물입니다.

‘의왕’이라 불리는 것들을 다른 감각으로 불러내는 시도는 의왕
주민 각자의 ‘나’가 불러낸 이름으로 새롭게 기억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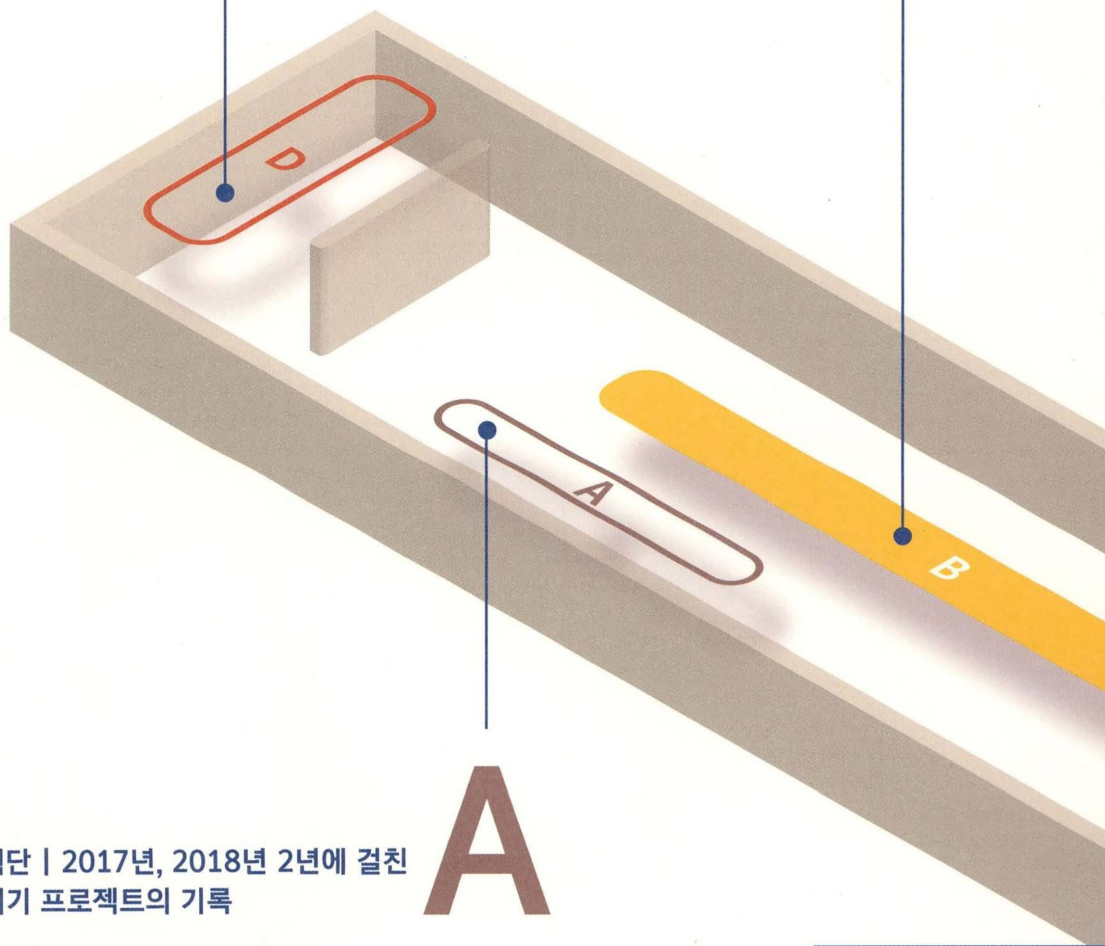
과거는 지나왔으므로 현재 알게 된 것이고, 미래는 현재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인 지금들이 쌓인다고
본다면 단지 두터운 현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전시를 경험하는 순간 또한, 하나의 의미, 다른 한 컷의 현재로
쌓이기를 바랍니다.

프로젝트 기획 · 전시 감독 민병은

D

송주형 | 도시 숲



미래유물전 기획단 | 2017년, 2018년 2년에 걸친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의 기록

A

C2

민건호 | 마인드맵: 비일상

C3

각성의 흔적(2021)

촬영: 민건호 / 편집: 백소민

C

B

B1

수집된 순간의 기억 노트

‘2021 마을과 삶에 대한 감각, 스위치 켜기’

워크숍 참여자(강혜숙, 김정희, 박단경, 이웅기, 전태훈) / 설치: 방영경

B2

방영경 | 흐르는 텍스트

B3

일기장 아카이빙: 마을 큐레이터 워크숍

‘2021 마을과 삶에 대한 감각, 스위치 켜기’

워크숍 참여자(문희숙, 박찬덕, 원은경, 조은희) / 설치: 김굴이

B4

김굴이 | 밈트로프: <자전하는 순간들>, <겹겹의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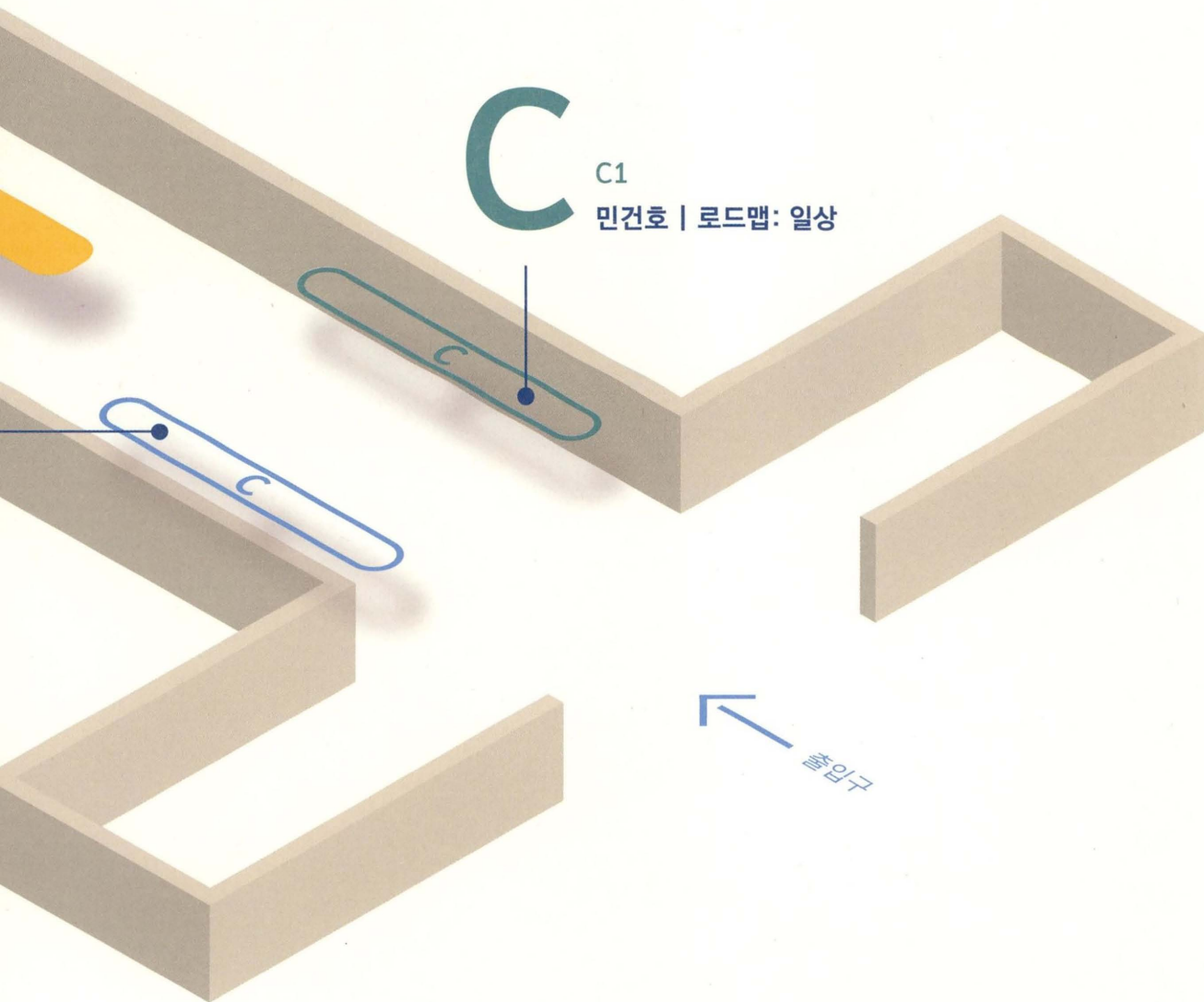
B5

김굴이, 방영경 | 나의 소유물

C

C1

민건호 | 로드맵: 일상



2021 미래유물전 의왕, 두터운 현재를 전시하며

이 전시는 2017년, 2018년 그리고 2021년에 이은 [의왕, 마을큐레이터되기 프로젝트] 3년의 과정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전시된 작품들은 올해 '마을과 삶에 대한 감각 스윙치 케기' 워크숍 전 과정을 계획한 세 명의 작가들과, 참여했던 주민들에 의한 것입니다.

지역에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지역은 자기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발 밑에 있다는 것을 알아간 과정의 생산물입니다. '의왕'을 다른 감각으로 만나는 시도였으며, 의왕 주민 각자의 '나'가 불러낸 이름으로 새롭게 기억될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왔으므로 현재 알게 된 것이고, 미래는 현재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인 지금이 발이라고 본다면 단지 두터운 현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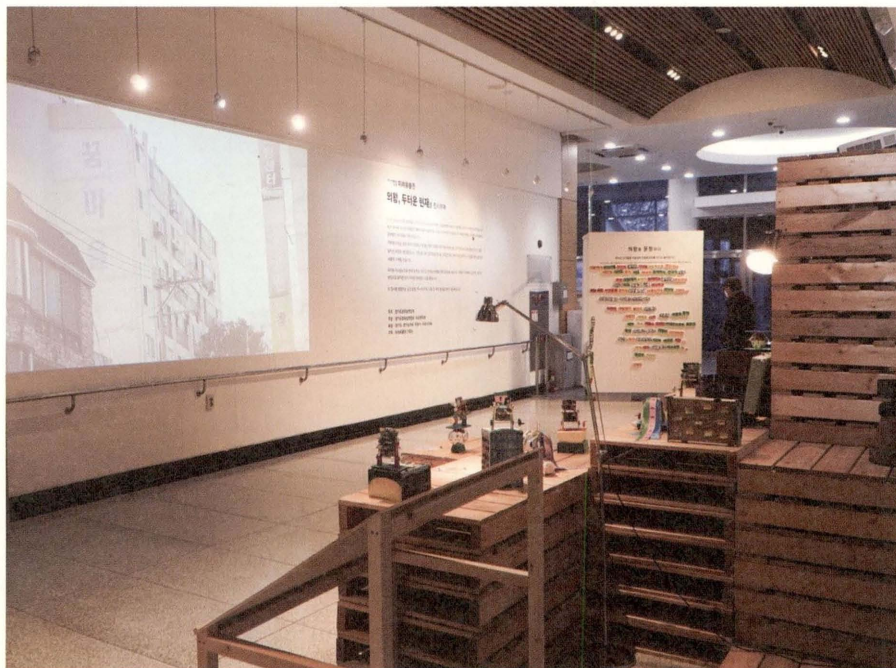
이 전시를 경험하는 순간 또한, 하나의 의미, 다른 한 컷의 현재로 벌어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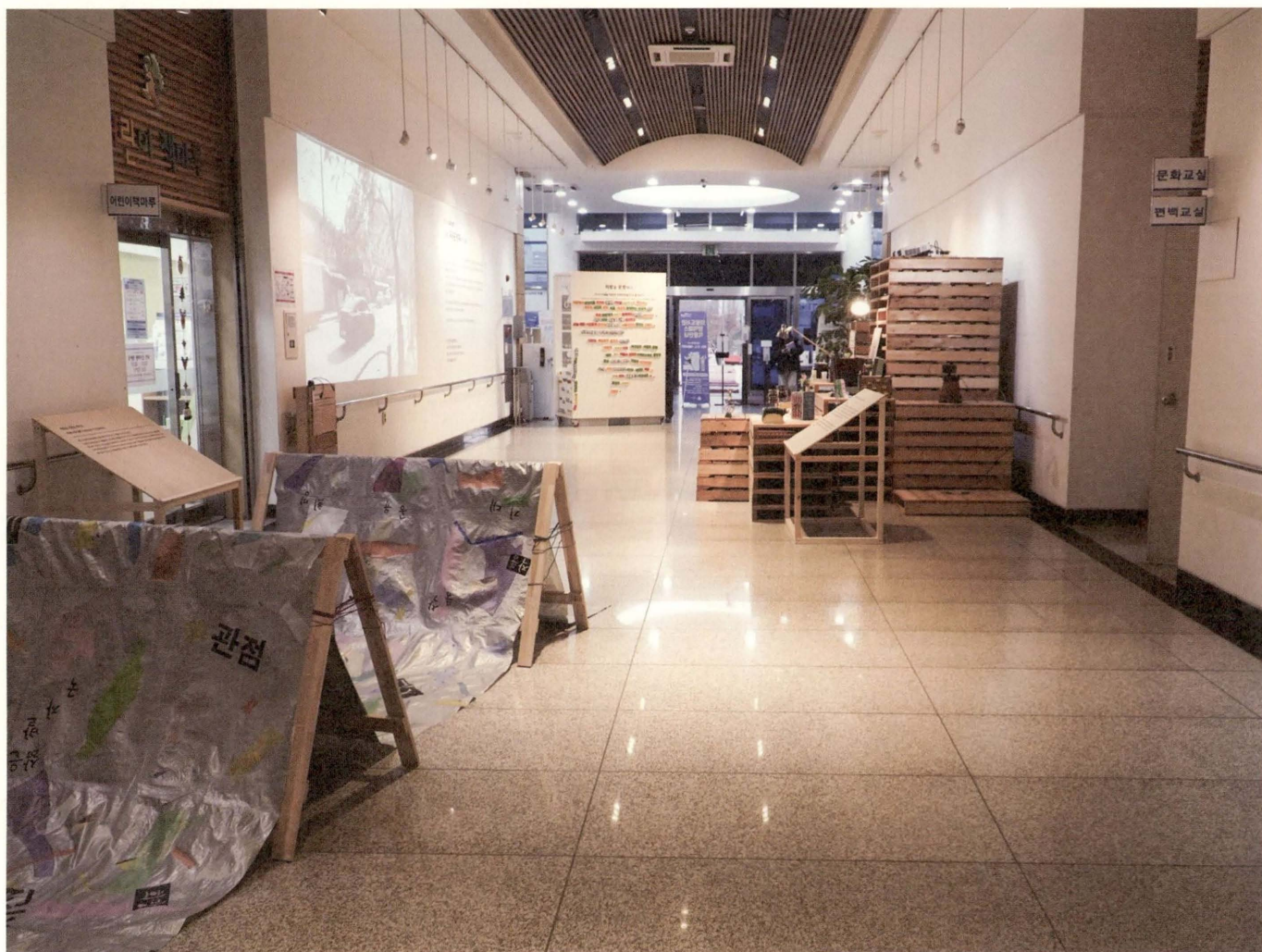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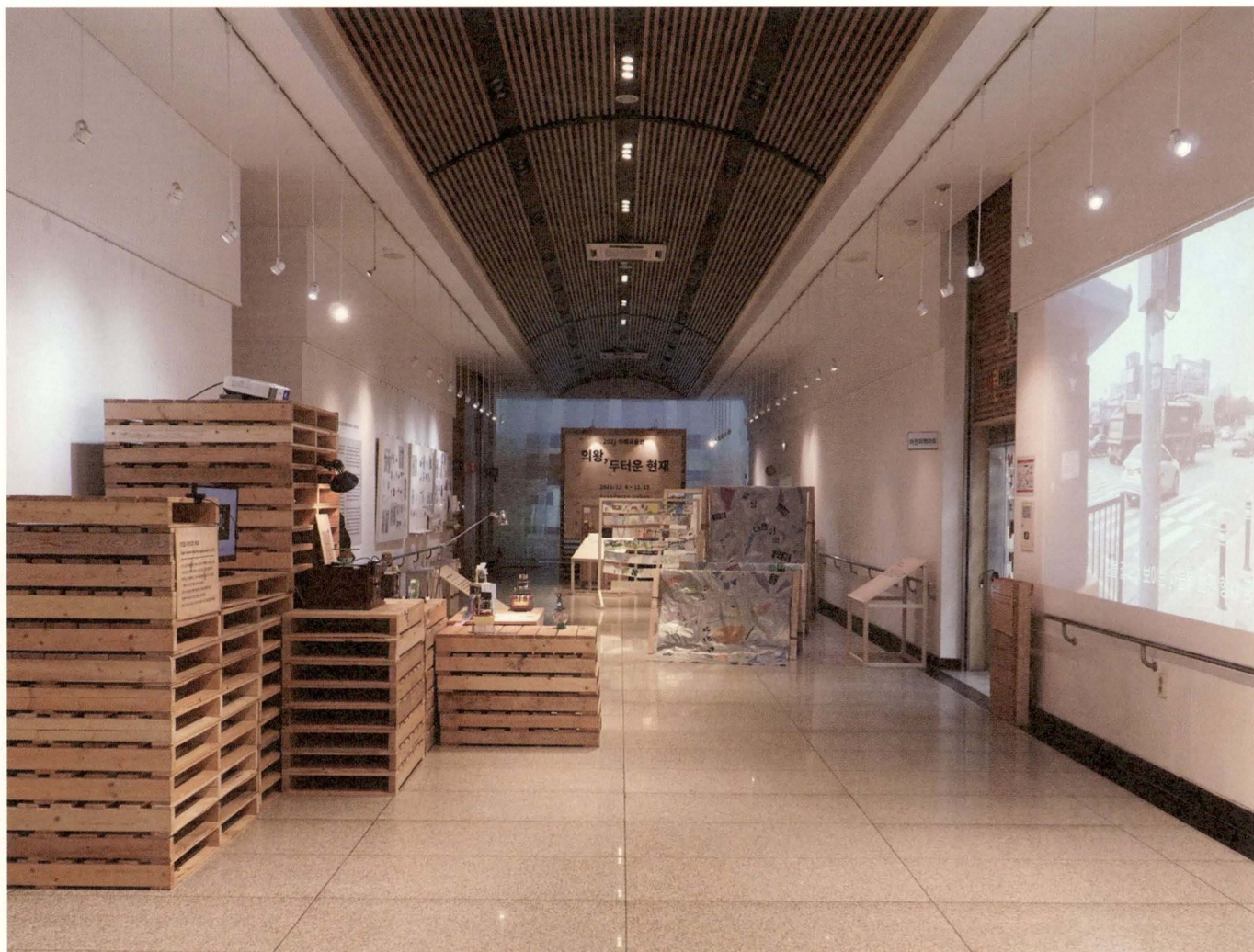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왕문화원

후원 | 경기도·경기도의회·의왕시·의왕시의회

기획 | 미래유물전 기획단





2년에 걸친

2017년, 2018년



빅데이터를 다루는 회사의 부사장이자, 마인드 마이너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송길영님은 최근 자신의 저서(「그냥 하지말라」, 북스톤, 2021)를 통해 미래에 대한, 미래를 대하는 태도로서 동시대 사람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볼 수 있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의, 개인들의 욕망의 합이 곧 미래에 벌어질 일들의 인풋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바라건대, 욕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개인의 존재감,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도성을 회복하여 함을 촉구하는 ‘개인의 욕망’이라는 말은, 동시대 즉 지금을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의 삶의 생생한 현장이자 사건으로서의 지역, 지역문화를 고민하는 이들에게도 중요한 실천적 영감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화와 예술은 ‘데이터’로서의 징후,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생각한다는 흐름으로서의 객관적 징후들이 가진 위험에 대해 통찰을 요구합니다. 숫자로 상징되는 주류의 생각이라는 수치 지표가 ‘올바른’, ‘가치있는’, ‘의미있는’ 것의 의미 지표와 잘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위드코로나의 실험적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팬데믹과

그로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 마주한 깨달음은, 기존의 생각과 가치관, 생활의 양식과 방식 등을 생태적 관점으로 ‘전환(꿀바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환은 신자유주의 이후 자본화 된, 실용적이고 편리함만을, 편리함을 우선으로 추구해왔던, 또는 이에 무지하고 무감각했던 우리 다수의 모습의 반성이라야 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마을만들기와 같은 관 주도의 사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양적인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또는 6개월 안에, 12개월 안에 그게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채,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 풍경을 만들어내고는, 공동체적 성과라 치장하였던 것이 지역과 지역문화, 공동체성을 대하는 우리 사회 대부분의 자화상입니다. 여기저기, 전국의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주민 대상 프로그램은 많지만 여전히 사업의 대상으로 소모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문화예술 본래의 가치나 의미보다는 도구적으로 쓰이기 일쑤이지요.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질문과 경험이 무엇인가, 어떤 가치가, 누구에 의해 추구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이 부재하다보니,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은 낭비되고, 지역에 의미있는 경험적, 문화적 자산이 쌓이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지역과 지역문화를 보는 많은 전문가들의 문제의식입니다.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의 기록



여기서 자산이라 함은, 지역의 새로운 주체로서의 시민들, 세대나 개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다양한 욕구, 결핍의 발현이 가능한 시민 주체의 등장을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실천으로서의 감각과 경험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방식의 학습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실천과 성찰, 자기 환원이라고 하는 역량을 갖춘 사람, 시민을 남기는 것입니다. 덧붙여, 박제화 된 유물 중심의 계몽적 태도가 어떤 부분에서는 귀한 오래된 지혜나 가치관과 오히려 동시대의 사람들을 결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도 살피게 됩니다. 4년전 (2017) 의왕에서 마을큐레이터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을 호명해보자라는 제안과 기획은 복잡할 수밖에 없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들을 배경으로 두고 시작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함께 준비하고 운영하고, 또는 참여하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과 동기, 입장으로 가지고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각자 다른, 그래서 다양할 수밖에 없는 현재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대상으로서의 지역주민을 거두고, 자기 삶을 주목하고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기꺼이 애쓴 시간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이번 전시는 그러한 맥락에서 진행된 2017년, 2018년 2년에 걸친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의 과정이 담겨있습니다. 말하는 지도,

낮설게 보기, 익숙함을 덜어내기 위한 문화적 장치로서의 매핑, 지역과 문화를 대하는 각자의 관성, 근대성과 마주하기, 그러한 과정의 섬세하고 다양한 알아차림 등이 주요 키워드라 할 수 있습니다.

퍼실리테이터 임재춘

미래유물전 기획단 | 2017년, 2018년 2년에 걸친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의 기록

빅데이터를 다루는 회사의 부사장이자, 마인드 마이너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송길영님은 최근 자신의 저서『그냥 하지말라』, 북스톤, 2021)를 통해 미래에 대한, 미래를 대하는 태도로서 동시대 사람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볼 수 있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의, 개인들의 욕망의 합이 곧 미래에 벌어질 일들의 인풋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바라건대, 욕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개인의 존재감,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도성을 회복하여야 함을 촉구하는 '개인의 욕망'이라는 말은, 동시대 즉 지금을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의 삶의 생생한 현장이자 사건으로서의 지역, 지역문화를 고민하는 이들에게도 중요한 실천적 영감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화와 예술은 '데이터'로서의 징후,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생각한다는 흐름으로서의 객관적 징후들이 가진 위험에 대해 통찰을 요구합니다. 숫자로 상징되는 주류의 생각이라는 수치 지표가 '올바른', '가치있는', '의미있는' 것의 의미 지표와 잘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위드코로나의 실험적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팬데믹과 그로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 마주한 깨달음은, 기존의 생각과 가치관, 생활의 양식과 방식 등을 생태적 관점으로 '전환(굴바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환은 신자유주의 이후 자본화 된, 실용적이고 편리함만을, 편리함을 우선으로 추구해왔던, 또는 이에 무지하고 무감각했던 우리 다수의 모습의 반성이라야 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마을만들기와 같은 관 주도의 사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양적인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또는 6개월 안에, 12개월 안에 그게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채,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 풍경을 만들어내고는, 공동체적 성과라 치장하였던 것이 지역과 지역문화, 공동체성을 대하는 우리 사회 대부분의 자화상입니다.

여기저기, 전국의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주민 대상 프로그램은 많지만 여전히 사업의 대상으로 소모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문화예술 본래의 가치나 의미보다는 도구적으로 쓰이기 일쑤이지요.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질문과 경험이 무엇인가, 어떤 가치가, 누구에 의해 추구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이 부재하다보니,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은 낭비되고, 지역에 의미있는 경험적, 문화적 자산이 쌓이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지역과 지역문화를 보는 많은 전문가들의 문제의식입니다.

여기서 자산이라 함은, 지역의 새로운 주체로서의 시민들, 세대나 개인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 다양한 욕구, 결핍의 발현이 가능한 시민 주체의 등장을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실천으로서의 감각과 경험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방식의 학습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실천과 성장, 자기 환원이라고 하는 역량을 갖춘 사람, 시민을 남기는 것입니다. 덧붙여, 박제화 된 유물 중심의 계몽적 태도가 어떤 부분에서는 귀한 오래된 지혜나 가치관과 오히려 동시대의 사람들을 결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도 살피게 됩니다. 4년전(2017)의왕에서 마을큐레이터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을 호명해보자라는 제안과 기획은 복잡할 수 밖에 없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들을 배경으로 두고 시작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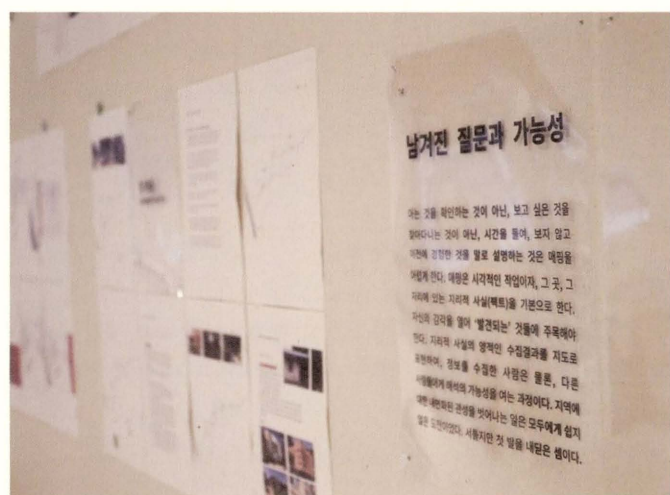
물론 함께 준비하고 운영하고, 또는 참여하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과 동기, 입장으로 가지고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각자 다른, 그래서 다양할 수 밖에 없는 현재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대상으로서의 지역주민을 거두고, 자기 삶을 주축하고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가까이 예민 시간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이번 전시는 그러한 맥락에서 진행된 2017년, 2018년 2년에 걸친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의 과정이 담겨있습니다. 말하는 지도, 낯설게 보기, 익숙함을 덜어내기 위한 문화적 장치로서의 매핑, 지역과 문화를 대하는 각자의 관성, 근대성과 마주하기, 그러한 과정의 섬세하고 다양한 알아차림 등이 주요 키워드라 할 수 있습니다.



미래유물전 기획단 |

2017년, 2018년 2년에 걸친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의 기록

나무에 광목, 2,000mm X 1,300mm, 4개



수집된 순간의 기억노트, 하얀 텍스트

‘어떻게 하면 익숙한 것에서도 새로운 관점과 시선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부터 마을과 삶에 대한 감각 스위치를 켜는 워크숍은 시작되었다.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바뀌지 않고 고정된 상황 속에서 의도적으로 새롭게 주변을 바라보기 위한 시도로써의 몇 가지 역할을 선생님들께 제안 드렸다.

- 달리는 것에서 바라보는 풍경: �보드를 타고 높아진 시선과 다른 속도감으로 동네 바라보기
- 우리가 받았던 선물: 그동안 잘 느끼지 못했던 작은 공간, 장소 등에 감사 인사 전하기
- 여행자의 시선: 마치 여행 온 것처럼 캐리어를 끌고 여행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 생명력이 있는 장소를 찾아서: 풀, 나무, 매미 등 생명이 느껴지는 장소를 찾고 관찰, 기록하기 + 작은 네모 프레임을 통해 풍경 새롭게 관찰하기
- 컬러 탐색자: 동네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도시의 색 찾아보기

자연의 생명력과 푸르름이 가득한 오매기 마을에서는 사라져버릴 것에 대한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 장소에 대한 두터운 감정의 기억을 뚫고 어떻게 새롭게 볼 수 있을지, 역할을 드리긴 했지만 확신이 들지 않아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했다. 생명력을 찾아 프레임을 통해 바라보고, 준비해 온 캐리어를 끌며 여행자의 시선으로 감사한 장소에 리본을 매달아 감사함을 전하는 등의 활동을 하며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하는 의구심을 표현하시면서도 선택하신 역할을 열심히 수행해 주셨다. 아무 관련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의도적으로 행하는 경험의 과정을 통해 축적된 의미들이 새로운 관점을 만드는 바탕이 되어주지 않을까 기대해 보았다.

두 번째 현장에서의 만남은 의왕역 앞에 위치한 도깨비시장이었다. 시장의 다양한 색을 통해 선생님들의 경험을 떠올리고 자신을 발견해 보는 시간을 계획했다. 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색, 나와 닮은 색, 추억의 색 등을 찾아 기록 노트에 파스텔로 표현하고, 그 색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 등 몇 가지 미션을 통해 시장과 관련된 선생님들의 다양한 기억과 추억을 찾아보고자 했다. 먼저 시장을 둘러보고 시장 안에서 조금 더 머물며 각자 찾은 색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는데, 조금 어수선한 주변 여건으로 선생님들께서는 시장 내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셨고 장소를 근처 실내로 옮겨 진행하게 되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조금 내렸고 시장 통로에 차가 지나다녀 조금 복잡하고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시장 안에 머무르며 관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나는 선생님들의 요청이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시장에 대한 다양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했음을 알게 되었다. 도깨비시장에서 장사를 했던 기억, 단골 가게에 대한 추억, 고등어와 무가 떠올린 자취생활의 기억, 고향의 시장과 비교되는 도깨비시장의 규모, 시장의 끈끈한 냄새가 가져온 불편한 기억 등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주신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꺼내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그날의 불편한 상황 때문이었다. 비가 내려서 느낄 수 있었던 시장의 냄새와 그날의 상황이 좋은 기억과 함께 한동안 잊고 있었던 썩 좋지 않은 기억도 함께 불러왔다.

시장의 물건들은 단순히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선생님들만의 경험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새롭게 지각될 수 있는 것들이고 그것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시장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을 좋은 쪽으로만 생각했던 것이 내가 살피지 못한 부분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날의 현장 상황으로 인해 듣게 된 시장과 관련된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이 곧 개개인의 유물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치 구술사처럼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전시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뉘던 이야기들이 허공에 떠다니는 말들로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아 모으려는 작업이 내가 거리의 비닐을 수집하는 과정과 비슷하게 느껴졌다. 비닐을 소재로 작업을 한 후로 산책을 하거나 길을 걷다 비닐을 보게 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줍게 되는데 비닐들이 마치 나에게 ‘저를 발견해 주세요!’라며 말을 거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거리의 비닐을 수집하는 것처럼 워크숍의 과정을 통해 남겨진 선생님들의 이야기 속에서 문장을 발견하고 하여 얇은 비닐을 겹쳐 열처리한 원단에 새겨보고자 한다. 한 사람의 역사에서 그 사람만이 가진 이야기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고 전해져야 할 유물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방영경

동네 쓰레기 배출 및 수거 문화에 대한 관심을 시작으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버려진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즐기며 거리의 비닐을 수집하고 창작과 마을활동, 업사이클링 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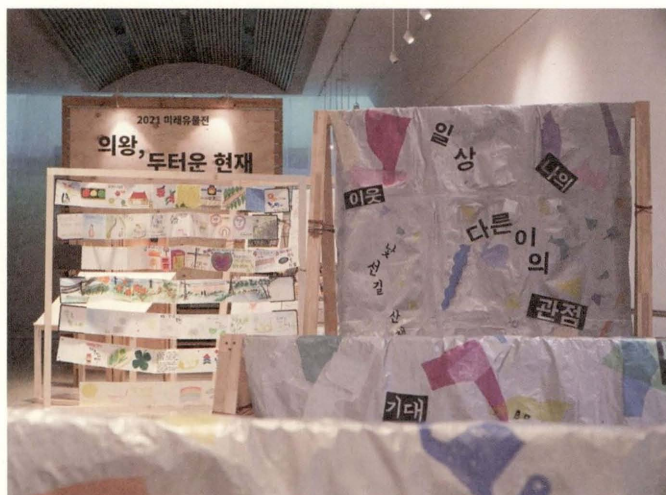
2021 미래유물전 의왕, 두터운 현재



수집된 순간의 기억 노트

‘2021 마을과 삶에 대한 감각, 스위치 켜기’ 워크숍 참여자
(강혜숙, 김정희, 박단경, 이웅기, 전태훈), 설치: 방영경
종이에 오일파스텔, 가로 112cm X 세로 14c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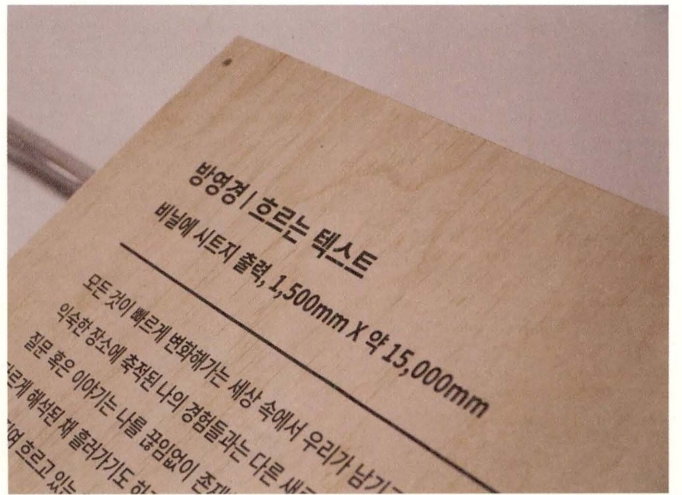
연결되고 연속되는 우리의 일상은 삶의 흐름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순환한다. 오메기 마을과 도깨비시장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느끼기 위해 진행된 워크숍에서 참여자들은 길게 이어진 노트에 그 과정을 담았다. 푸른 오메기 마을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무심코 지나쳤지만 선물처럼 느껴지는 공간에 대한 감사함, 다양한 도깨비시장의 색을 통해 나를 찾아보았던 시간 등이 담긴 흐르고 이어지는 순간의 기억을 수집한 아카이빙 작업이다.



방영경 | 흐르는 텍스트

비닐에 시트지 출력, 가로(폭) 1m 50cm X 세로(길이) 약 15m, 2021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남기고, 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익숙한 장소에 축적된 나의 경험들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갖기 위한 시도와 노력을 통해 나에게 남겨지거나 떠오른 낯설에 대한 질문 혹은 이야기는 나를 끊임없이 존재하게 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다. 견고한 각자의 생각들은 서로 이해되지 못하기도 하고 다르게 해석된 채 흘러가기도 하지만 계속 꺼내 보이는 시도들은 나름의 의미를 통해 새로운 경험의 리듬을 만들어 낼 것이다. 계속 움직여 흐르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유물로 우리 옆에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간의 공유, 의식의 흐름과 가벼움에 관하여

김굴이

회화, 미디어, 출판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창작행위를 서술해나가는 김굴이 작가는 내면에서 발현된 욕망에 귀 기울이며 시작되는 몸짓과 내뿜어지는 단어들을 쪼개거나 해체하며 작업을 한다. 이 과정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은 의식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분열하거나 조합되어 나간다. 무한한 무의식 세계를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재된 모습으로 시각화하며 스스로와의 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일상이 늘 그렇듯 흘러간다 해도 매일이 똑같지는 않다. 날마다의 '나'는 상상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매일매일 변해서 포착할 수 없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시시각각 변하는 면모들은 각각의 순간을 갖고, 사소하게 스쳐 지나간다. 지금의 나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곧 사라지므로 특별하지도, 소중한지도 않은 걸까? 지금을 어떻게 잡아두어야 할지 몰라, 의식의 흐름을 맥박이 뛰는 박자에 맞춰 기록해 보기도 했다. 그러자 스치는 순간 속에 살고 있는 한없이 가벼운 스스로가 보였다. 나는 그저 스쳐지나는 불특정한 누구인 걸까? 스스로가 불특정한 누군가라는 인식은, 무거움이라는 숙제를 주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숨이 가빠 왔다. 갈증이 나고 배가 고파졌다. 이 갑갑한 어려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그때부터 쉼 없이 움직이는 저울이 떠올랐다. 저울은 가벼움과 무거움을 양쪽에 달고 바빠 움직인다. 저울의 균형이 맞는 때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순간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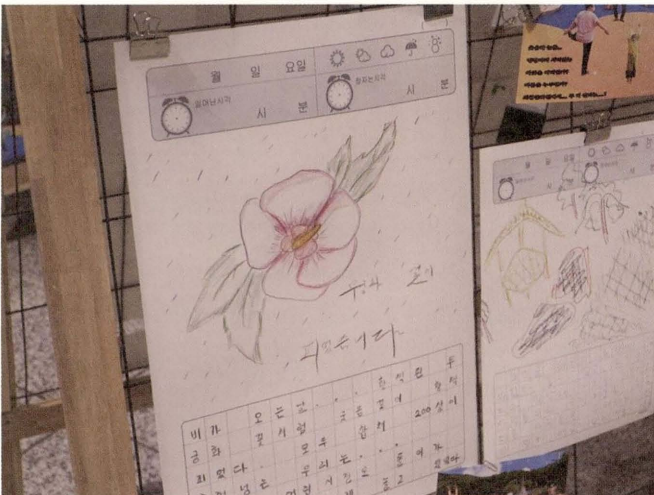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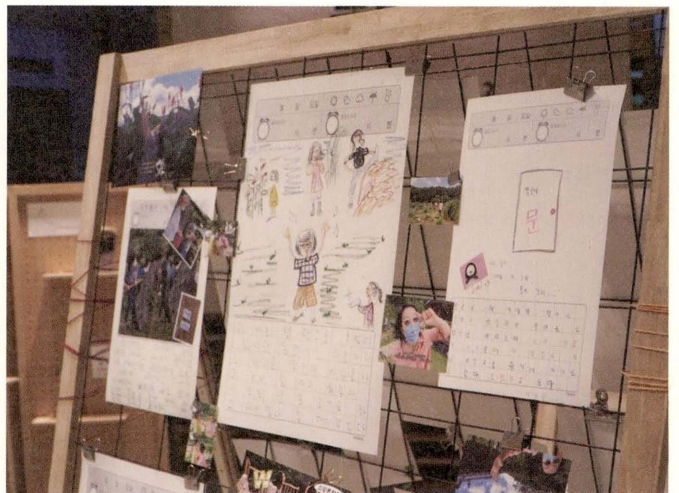
<마음과 삶에 대한 감각, 스위치 켜기> 워크숍에서 우리들은 온몸으로 자신을 느껴보기로 했다. 자기만의 몸짓을 만들어내며, 순간을 몸짓으로 기억해 보고자 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욕망은 단발적이고 미세한 움직임으로 드러났다. 잘 찢어지지 않는 다리를 나뚠으로 찢어보고, 우아하지 않은 몸짓으로 우아함을 표현해 보며 공기를 가르고 뛰어올랐다. 의왕이라는 풍경 안에 놓인 자신을 마주했다. 몸짓을 행하고 스스로를 관찰하며, 떠오르는 감정에 답했다.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연결해 보기도 했다. 가벼이 스치는 순간 속에서 몸짓은 가볍지 않았다. 중력에 응하는 사람들의 시간이었다. 그러한 균형 속에서 모두가 자유롭게 행복해 보였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느릿하게 재생되길 바랐다. 짧은 기억으로, 경험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길 바랐다. 카메라를 들고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동안, 나만의 무거웠던 숙제와 이야기들은 어디론가 흩어져 버렸다. 카메라 속에는 그보다 더 아름답고 작은 몸짓들 - 그래서 애처롭기도 한 소중함이 담겼다. 그들의 순간은 이제 나의 순간이 되었다. 참여자들의 모습은 나의 눈에 담겨 오롯한 나의 서사가 되었다. 이 스치는 순간들이 기억 속 어딘가에 쌓여 영원히 저장되길 바라는 건 아니었다. 느리고 반복되게 재생해 보며 순간을 곱씹어 잘 보내주고 싶었다. 휘발되는 순간을 그려보는 건 영원이라는 착각이 보내는 낭만을 그려보기 위함이다.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한 회전 속에 새겨질 순간들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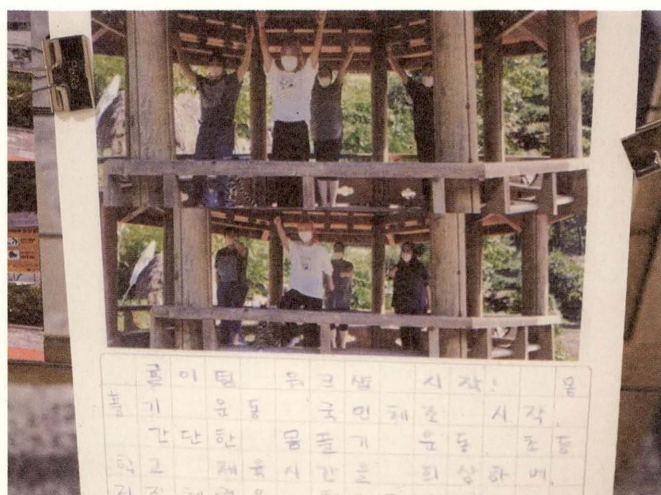
일기장 아카이빙: 마을 큐레이터 워크숍

'2021 마을과 삶에 대한 감각, 스위치 켜기' 워크숍 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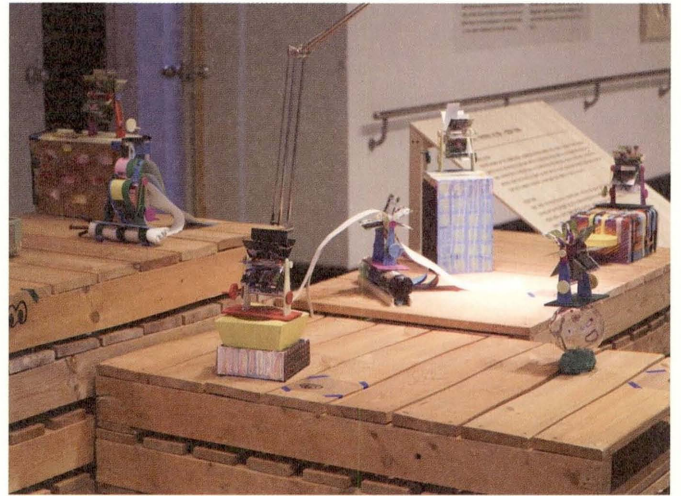
(문희숙, 박찬덕, 원은경, 조은희), 설치: 김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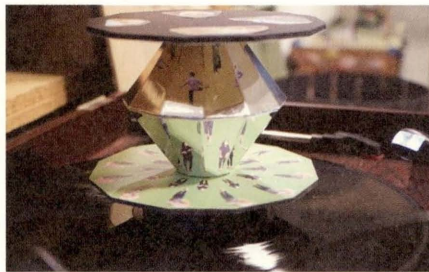
참여자들은 의왕에서 특별히 기억할만한 장소를 떠올리고 '다리 찢기', '우는척하기', '구애의 춤'과 같은 약속된 행동을 했다. 임의로 뽑아 정해진 모종의 퍼포먼스는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에 따라 수정되고 창조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유로운 주체로서 존재하며, 저마다 장소를 매개로 스스로와 교감했다. 그러한 순간은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전시된 일기장은 그날 하루의 일상을 그린 참여자들의 기록이자 유물이다. 그들의 행위, 몸짓, 창조적인 에너지들은 한때 의왕 위에 존재했던 유물처럼 빛이 났다.





‘밈’은 인터넷 세대가 전유하는 독특한 대화방식이다. 미디어와 함께 성장해온 세대에게 익숙한 단어인 ‘짤방’ 혹은 ‘옴짤’을 총체 하는 말이기도 하다. ‘밈트로프’는 모방을 통하지만 전혀 다른 해석이나 흐름을 재생산하기도 하는 ‘밈’과 애니메이션 표현의 초기 방식인 ‘조이트로프’의 합성어이다. 일반적으로 ‘밈’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재생산되고 전유 되지만 작가 특유의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재된 정체성을 통해 아날로그적 움직임으로 재생산된다. ‘밈트로프’는 ‘일상의 스위치 켜기’ 워크숍 안에서 나온 참여자들의 창조적 몸짓들을 충실히 ‘밈’화 시키면서 그들의 능동적인 몸짓과 같이 관객들을 행위로써 참여를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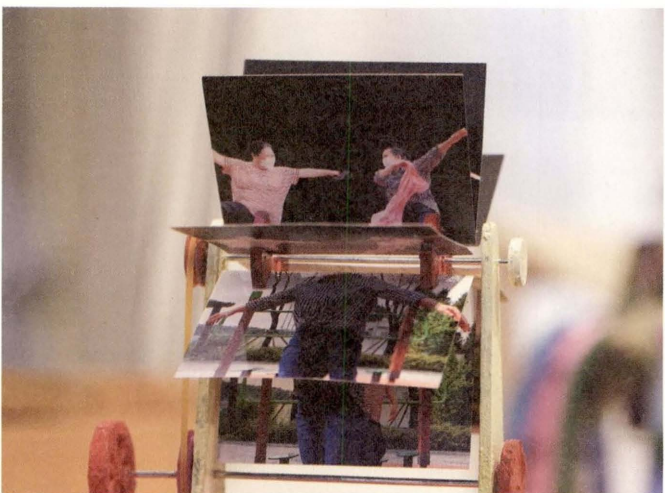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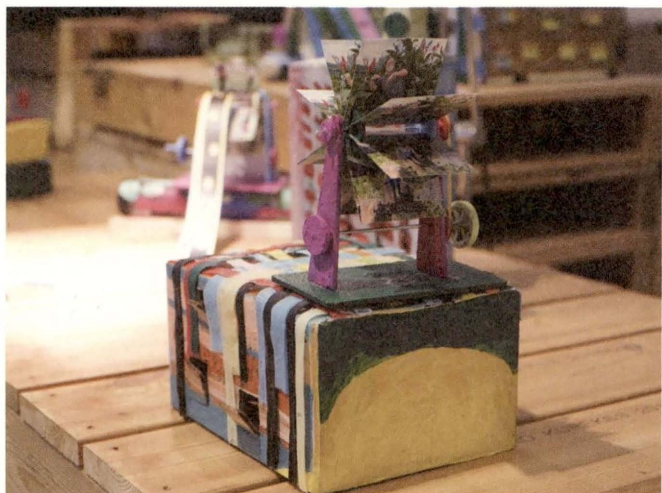
자전하는 순간들

카이빙 섹션에서 2017년 기다랗게 응집된 순간들을 짧게 축약해서 보여주는 한편, <자전하는 순간들>은 찰나의 순간들을 늘어뜨려 놓는다. 모든 움직임은 공기를 거슬러 일어난다. 순간을 반추함은 시간을 거슬러 보는 일은 아닐까? 어떤 '지금'은 과거도 미래도 무색하게 만든다. 잘 찢어지지 않는 다리, 우아해지지 않는 몸짓, 뛰어나올 수 없게 하는 공기의 저항. 그 열기를 지피는 몸짓만큼 지금에 가장 타오르는 게 있을까? 늘 켜켜이 쌓여오던 과거보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보다 가장 타오르는 '지금'이다. 소중한 순간은 가볍지만 자유로우며 그 자체로 삶을 무겁게 지탱해 주는 무언가가 되기도 한다.



겹겹의 현재

6개로 구성된 수동 방식의 '밈트로프'는 손잡이를 돌리다 보면 어떤 겹은 걸려서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를 돌리다 보면 잔상처럼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이 그저 스쳐 지나감에 지나지 않고 무엇으로 연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작가의 고민과 만나게 된다. <겹겹의 현재>는 남겨진 것들에 대해 짧고 일시적으로 소비하는 방식으로써 역으로 삶의 가벼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들에 대하여 다룬다.



나의 삶을 하나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 역사 안에서 남겨진 유물은 무엇일까?
손바닥 크기의 작은 물건들은 누군가에게 진귀함을 남기고 간 순간의
유물이다. 기억이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 않고, 가변적이어서 금방 잊히기도
한다. 이 작은 유물들은 곧 잊힐, 누군가의 순간들이 담긴 징표이다.





강혜숙

- 크레파스: 예쁜 그림을 다시 그려보고 싶은 충동과 욕구의 생겨남
- 커피믹스: 차 한잔의 여유, 잠깐 멈춤, 휴식

박단경

- 필통: 평생을 함께 해야 하는 지혜와 지식의 상자
- 핀: 너, 나, 우리의 연결고리
- 스카프: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고, 싸안을 수 있고, 묶을 수 있는



원은경

- 자른 머리카락: 끈을 묶다. 과거, 현재, 미래의 나와 내면의 나를 만나다. 수업을 통하여 과거의 나를 만났었고, 지금의 내가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의 유물이 될 나의 부분을, 가장 나다운 유물을 제출한다.



전태훈

- 리본: 방영경 작가님의 여행자의 시선 감사리본 달기에 참여하여 나와 함께한 리본을 나의 유물로 선정하였습니다.





박찬덕

활동 때마다 신었던 신발로 “현재의 나를 어린 나로 데려다준
고마운 존재”

이응기

몽당연필로 내 인생은 성장했다.



문희숙

색연필로 나의 꿈을 마구 그리며 채워가고 싶다. 무엇이든 나만의
색으로 나를 채울 수 있을까? 가끔 무언가에 갈등을 느끼고,
목마름이 있지만 친구와 함께 에너지 음료로 재충전하며...
커피 한 잔으로 수다 에너지를 충전한다. 나의 색을 찾아 오늘도
꿈꾸는 나.

낮선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 해서 내 하루가 특별해지는 경우는 잘 없다. 자신을 평소와 다른 공간에 두는 것만으로는 그동안 살아온 내가 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공간이 주는 의미 보다 그 곳에서 스스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오직 나의 새로운 선택과 행동만이 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든다. 특별해진 하루는 또 다른 도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해도 되는구나를 알았기 때문이다. 비오는 날 우비를 입고 놀이터에 누워보는 일.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해보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바보 같은 이런 행동들이야 말로 미래에 남겨야 할 유물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미니멀
미니멀

민건호

예술이나 문학 전공은 커녕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던, 잡생각이 너무 많아 항상 무언가 실천하기 두려운 젊은이다. 그런데 언젠가 부터 든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것 보다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때때로 남 눈치 볼거 없이 살게 되다보니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전시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며 작은 깨달음을 얻어 가시면 좋겠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일들을 한꺼풀 한꺼풀 벗어 던져 보면 좋겠다.





벌써 가을이네



저 많은 차들은 대체 어디서 오고 가는 걸까



미래유물전 41 의왕, 두터운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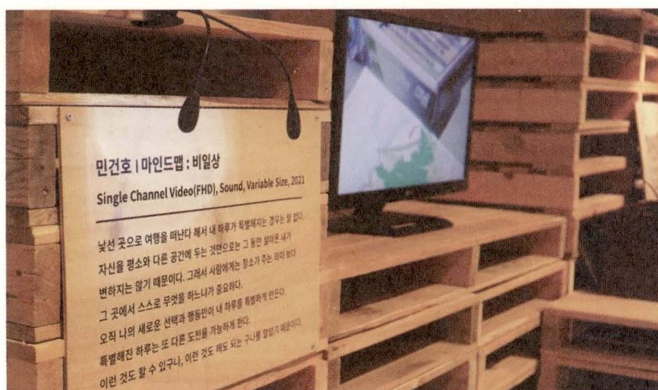


우리집 강아지가 생각난다

민건호 | 로드맵: 일상

Single Channel Video(FHD), Sound, Variable Size, 2021

2021. 11. 3. 수요일 의왕시 일상 속 길을 걷는 사람들, 걸으면서 하는
보편적인 생각들.



민건호 | 마인드맵: 비일상

Single Channel Video(FHD), Sound, Variable Size, 2021

익숙한 공간에서의 익숙하지 않은 행동들. 우리의 일상을 달라지게 하는 데에는 이곳이 의왕인지, 대전인지, 서울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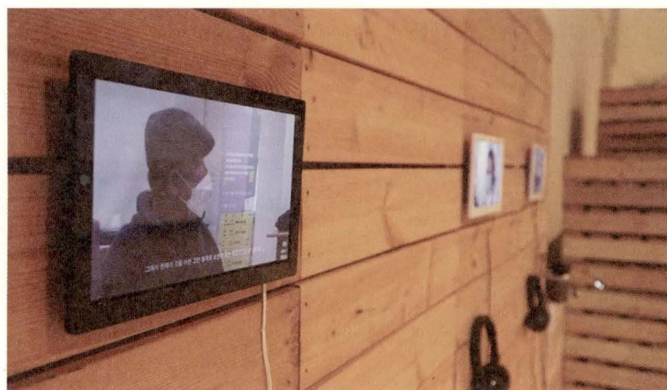


각성의 흔적(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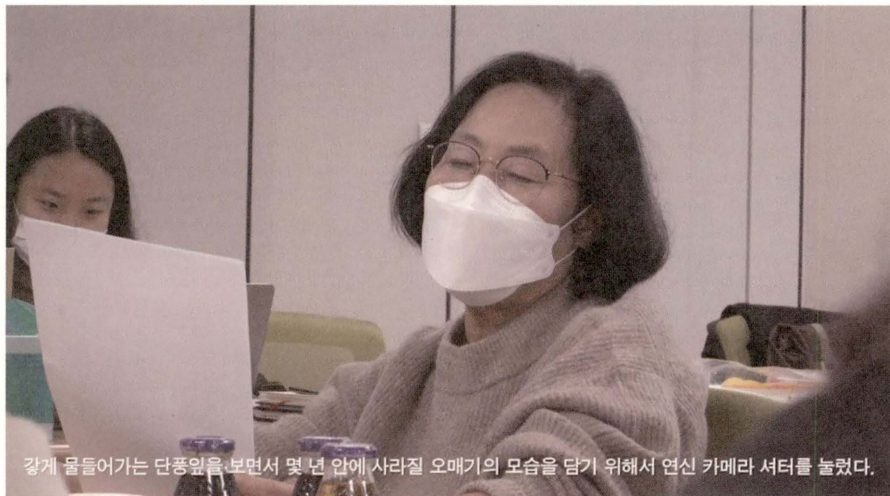
촬영: 민건호, 편집: 백소민

Single Channel Video(FHD), Sound, Variable Size, 2021

2017, 2018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와 2021 '마을과 삶에 대한 감각, 스위치 켜기' 워크숍이, 참여했던 이들에게는 어떤 경험이었을까? 저마다 다른 감정과 생각들을 불러일으킨, 하나의 문화적 사건으로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한 듯하다. 그 흔적들이 너무 반갑고, 소중하다.



강혜숙 마을큐레이터



강게 물들어가는 단풍잎을 보면서 몇 년 안에 사라질 오매기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이웅기 마을큐레이터



무형의 형태의 어떤 정신이나 생각, 사고 이런것들도 유물이 나중에는 될 수가 있다.

박찬덕 마을큐레이터



아무 생각 없이 해야하는대로가 아니라 하고 싶은대로 해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

문화속 마을큐레이터



전태훈 마을큐레이터



박단경 마을큐레이터



도시 숲

도시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갈수록 심화 되면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인간의 소유에 대한 욕망과 끝없는 추구는 물질적 가치에 권위를 부여하고 차별적 계급질서를 정당화시켰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도시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자신을 비워내고 정신적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노력은 부조리하고 모순된 현실을 초월하여 마음의 위안을 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정신적 자유로움은 경외의 대상이자 초월적 존재인 자연적 이상향의 형상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이는 무규정적이면서 개방적이고, 생명의 발생과 소멸처럼 순환하며 목적 없이 일정한 객관성을 지닌 절대적 의미의 자연이다. 절대적 자연으로의 몰입은 인간의 편협하고 차별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물질적 대상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왜곡된 현실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노력의 단초이다. 또한 모든 인식에 있어 객관적으로 타당한 시비의 기준이 없다는 자아 중심의 한계를 넘는 마음의 수련을 통해 평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삭막한 도심 속에서 배경처럼 위치하고 있는 자연을 채집해 중첩시켜 재탄생한 <도시 숲>은 이상향적 자연의 모습과 현대 도시의 이미지와 어우러진다. 도시와 자연이 중첩되는 과정에서 생성과 변이, 은폐와 재현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공존하는 미래의 삶의 터전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는 물질화가 가져오는 환상에서 벗어나 오늘의 굴레를 잊고 잠시 마음의 휴식과 위안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다.

송주형 초대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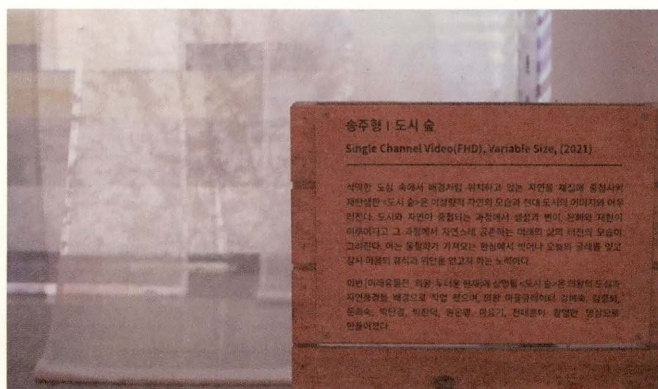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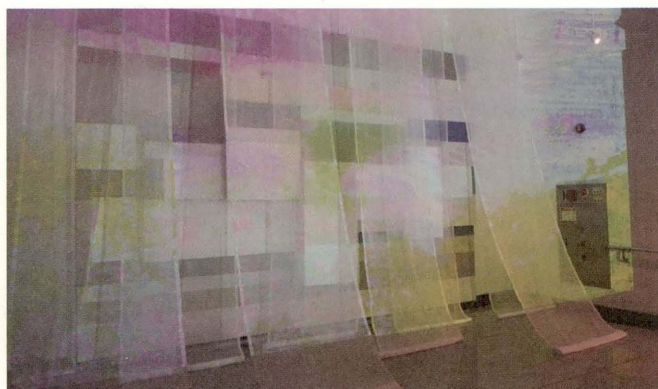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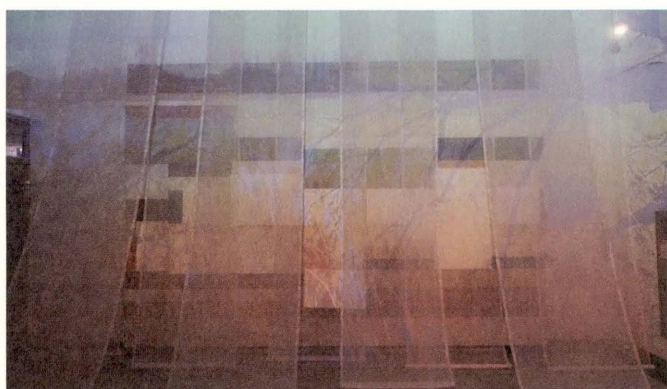
송주형은 물질화로 왜곡된 현대 사회의 모순과 갈등 속에서 스스로를 비워내는 과정으로 얻게 되는 정신적 자유를 작업으로 표현한다. 시공간이 다른 곳에서 채집된 자연 이미지를 여러 겹으로 중첩시키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발색과 이미지의 은폐, 변이 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현실 공간 속에 구현해 이상향의 모습을 띤 새로운 시공간을 재생성 한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인간 중심의 편협하고 차별적인 인식을 벗어나 잠시나마 마음의 위안과 휴식을 얻기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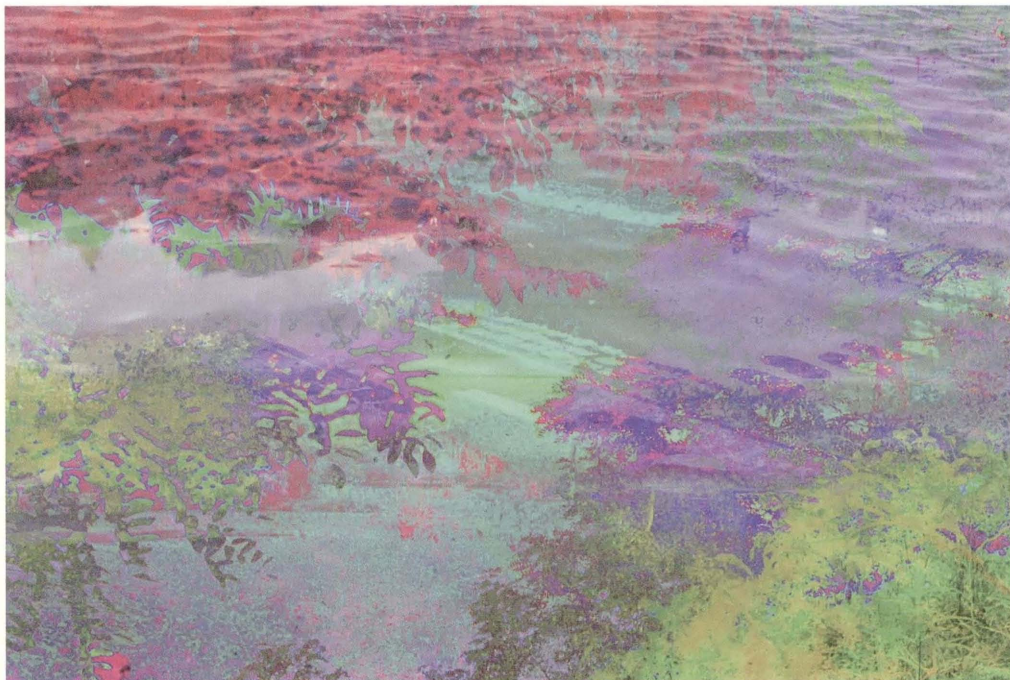
송주형 | 도시 숲

Single Channel Video(FHD), Variable Size, 2021

이번 [미래유물전 의왕, 두터운 현재]에 상영될 <도시 숲>은 의왕의 도심과 자연풍경을 배경으로 작업 됐으며, 의왕 마을큐레이터 강혜숙, 김정희, 문희숙, 박단경, 박찬덕, 원은경, 이용기, 전태훈이 촬영한 영상으로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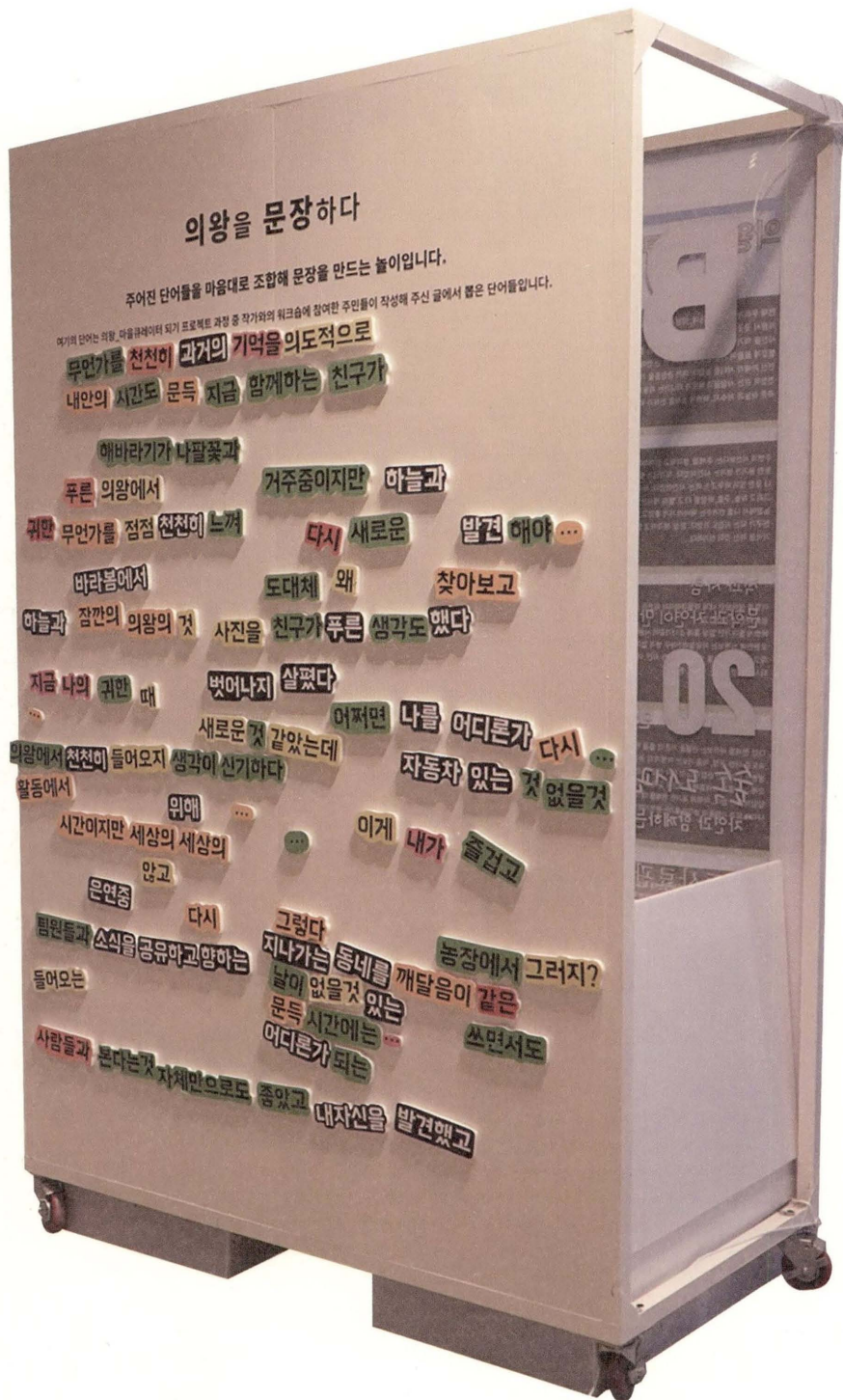


의왕을 문장하다

주어진 단어들을 마음대로 조합해 문장을 만드는 놀이

- 여기의 단어는 의왕_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과정 중

작가와 의 워크숍에 참여한 주민들이 작성해 주신 글에서 뽑은 단어이다.



의왕 마을큐레이터 되기 과정 참여자들의 이야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의왕시도 언젠가는 유물이 될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었다.

의왕시 곳곳을 작가와 돌아다녔다.

사진을 찍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위해 녹음 질은 나무, 노랑게 익어가느 바,
빨강게 물들어 가는 단풍잎을 보며 몇 년 안에 사라질 오매기의 모습을 담기 위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여러 관점들을 가지고 동네를 천천히 살폈다.
천천히 걷는 사람들과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 어디론가 향하는 등산객들,
푸른 하늘과 저수지, 바쁘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지저대는 새들.

(강혜숙, 의왕시 오전동)

고장에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속속히 알 수 없기에 낯선 곳을 여행하는 여행자 같은
느낌도 들었다. 프레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프레임으로 인해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았다. 내가 꼭 빠져 있었다. 신기하기도 하고
새로움에 눈이 뜬 것처럼 흥분도 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다 보니 내 눈으로
들어다보는 것과 차이가 난다. 왜 그러지? 사진을 찍을 때 뭔가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점점 사진을 찍을 때마다 무언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게 맞는 것일까
맞게 하는 것일까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뭐지?

(김정희, 의왕시 청계동)

주변의 시선보다는 주제를 생각하고 참여하려고 노력했고, 망설였던 도전도 가능할
듯한 용기가 생기는 시간이었다. 작가님과 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좋았고,
나 또한 많이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다. 하이드 농장에서 만난 환경은 어린 시절 나
그리고 하늘, 구름, 바람을 타고 멀리 계시는 부모님과의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었고,
농장에서 나를 반겨주는 해바라기가 좋았고, 비와 함께 둘째 시간에는 나팔꽃과
친구가 되는 시간도 가졌다.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몸도 마음도 같은
기억을 하는 것이 신기하다.

(문희숙, 의왕시 부곡동)

일반인이 된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에 놀랐다. 요가 강사를 하면서 행했던 그 관습들이 몸에 배어 있었는지
온연중 주변 분들을 지도하는 것 같은 과거의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고 문득 미안했다.

(박단경, 의왕시 청계동)

이렇게 살아왔던 내게 마을큐레이터 미션은 신선함 있었고,
힘을 주는 시간이었었고,
바쁘게 돌아가던 일상 중에 소나기같이 시원한 시간이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랄까? 아무 생각 없이 해야 하는 대로 가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해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 어쩌면 앞으로 오늘 같은 날이
다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박찬덕, 의왕시 오전동)

이것 또한 나의 지독한 나만의 기준이기에...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내가 다시 세상의 눈치를 보는구나..
문득 깨달음이 왔다. 그렇다. 이번 의왕문화원 수업만큼은..
어쩌면 동심으로 돌아가.. 부끄럼과 세상의 눈치를 안 보나..
한없이 자유로움을 느꼈다.

(원은경, 의왕시 원터마을)

다만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을 기존의 틀을 깨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속도를 더한 관점, 처음 가보는 여행자의 관점, 색깔로 바라보는 관점,
생명을 찾아보는 관점 어느 것 하나 쉬운 건 없었다. 생명과 색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오매기 마을의 바라봄에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답답하긴 했다. 미래의 과거인 현재를 대표하는 것들은 꼭 유형의 물건만은 아니다.
나의 느낌과 사람들의 생각과 풍기는 분위기과 냄새와 색깔 등의 무형의 것도 있는 것이다.

(이동기, 의왕시 오전동)

캔스에 신이 났다. 의왕에서 15년째 거주 중이지만 의도적으로 새로운 곳으로,
익숙한 곳으로 팀원들과 함께[하는 나들이였기 때문이다. 나는 여행다운 여행은
언제 다녀왔나 싶어 여행자의 시선으로 마을 곳곳을 돌아보기와 감사 리본을 달아
기록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오래 가며 쉬어가던 실터들은
사용 금지가 되었는데, 이런 공간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산을 같은 공간이라는 점을
매우 매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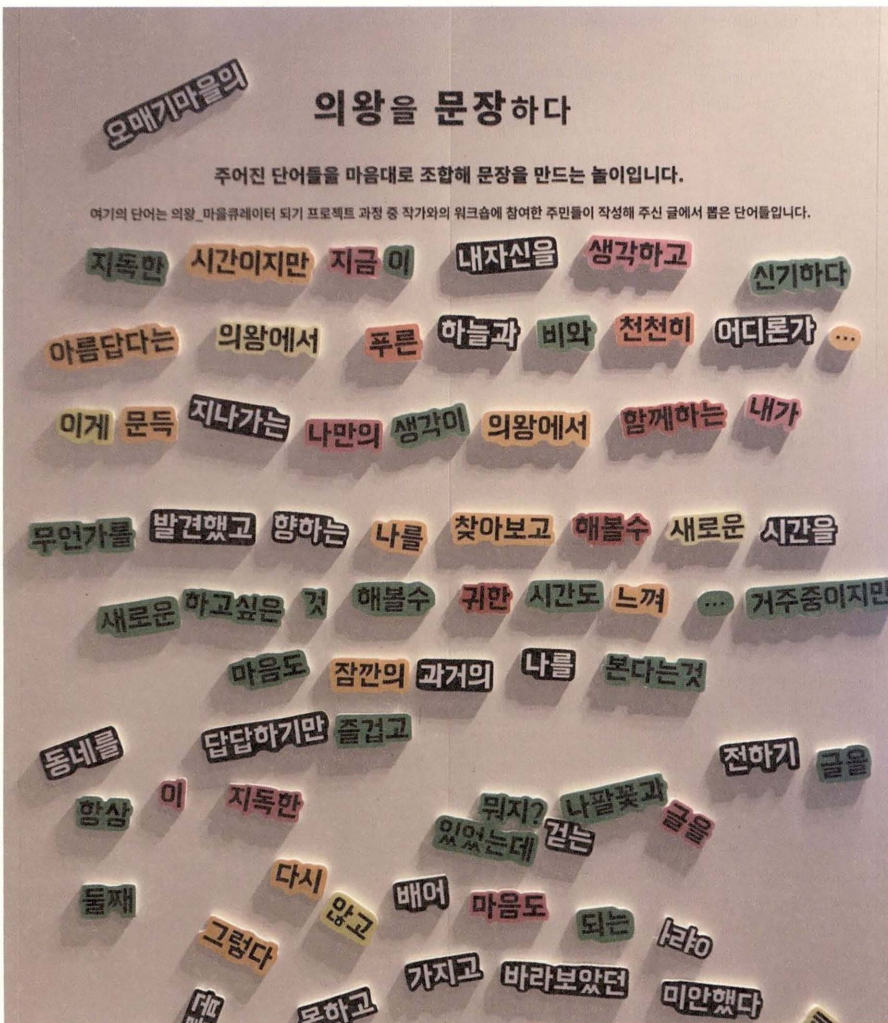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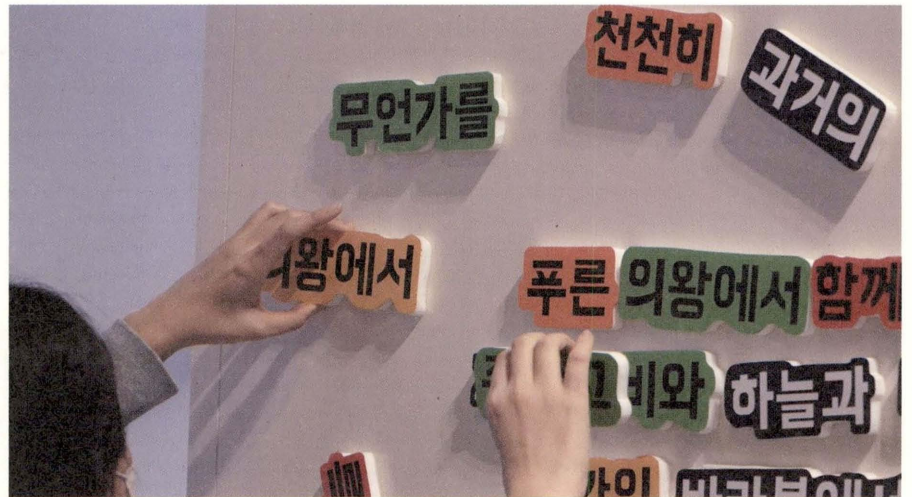
(전태훈, 의왕시 부곡동)

전래놀이도 숙제처럼 여기며 배웠는데 막상 성인들도 좋아하는 모습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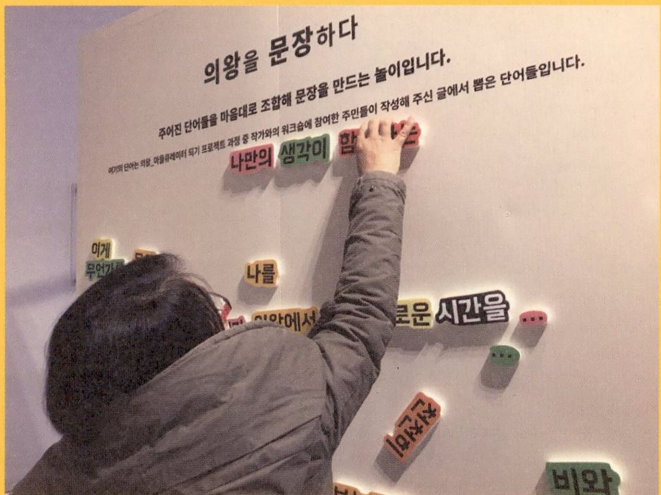
쉽게 결론내고 단정 짓는 내 태도가 부끄럽기도 했지만,
타인의 이야기에 집중하겠다는 도전도 있었어요.
나라면 어떻게 풀어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했었어요.
잠깐의 시간이지만 활동에서 다시 나를 찾아보고 내 안의 무언가를 느껴본다는 것
그리고 표현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즐겁고 아름답다는 것.

(조은희, 의왕시 청계동)

**위 문장은 <의왕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의왕 주민이 작가들과 함께 현장 워크숍 참여 후
작성한 글에서 발췌, 재배치 한 것입니다.**



전시 이모저모











2021 미래유물전 의왕, 두터운 현재

전시 기간 | 2021년 12월 6일(월) - 11일(일) / 오픈식: 12월 6일 14시

장소 | 의왕시중앙도서관 책마루 1층 로비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의왕문화원

후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의왕시, 의왕시의회

기획 | 문화집합36.5, 지혜로운봄, 미래유물전 기획단

미래유물전 기획단

참여주민 | 의왕마을큐레이터(강혜숙, 김정희, 문희숙, 박단경, 박찬덕, 원은경, 이웅기, 전태훈, 조은희)

참여작가 | 김굴이, 민건호, 방영경

초대작가 | 송주형

코디네이터 | 공은실, 오다예

퍼실리테이터 | 임재춘

프로젝트 기획 · 전시 감독 | 민병은

도슨트 | 강혜숙, 김정희, 문희숙, 박단경, 박찬덕, 원은경, 이웅기, 전태훈

전시장 설치 작업 | 가제트, 김광태(의왕시 중앙도서관 시설관리팀)

전시물 제작 | 세모나

레터링 디자인 | 심승희

홍보물 디자인 | 박경민

사진촬영 | 민건호

영상촬영 | YANGCINE

2

2021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마을과 삶에 대한 감각, 스위치 켜기

첫 번째 위크숍
 첫 번째 위크숍
 첫 번째 위크숍
 첫 번째 위크숍
 첫 번째 위크숍
 첫 번째 위크숍

활동방향과 작가소개 그리고 협업

임재춘 퍼실리테이터(이하 임)

이전(2017년 2018년) 마을큐레이터 되기

과정은 일종의 활동이기도 하고 수업이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그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이나 일들이 있었겠죠. 그걸 다 풀어내고 답을 수는 없는데, 상기시키는 작업을 워크숍 형태로 다섯 번을 하려고 해요. 미래유물전에는 사실 미래는 뭐고 유물은 뭐고 전시라는 행위는 뭔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할 텐데, 우리끼리만 하면 힘들잖아요. 전시를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두 분의 작가 분들과 저와 이 작업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의 워크숍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들, 매핑한 것을 꺼내놓고 그때 그랬지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선, 다른 방법으로 지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제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안 그러면 지도를 들여다보고 만든다는 게 예전에 우리가 2년 동안 했었던 것을 또 반복하는 것밖에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어요. 어떤 지역을 매핑 한다는 것은 시간이나 상황 또는 나로 인해서 달라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때의 나와 또 지금의 내가 보는 게 다르듯이, 원터마을이나 오전동이나 내손동, 삼남길 등 장소가 바뀌어서 다르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 장소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나’는 무언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겠죠. 동일한 데를 반복적으로 본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타 여러 활동들을 이어가시면서 지역을 관찰하고 탐색하고 지역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풍성해졌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걸 다시 이 워크숍에서 반복할 수는 없고 그 익숙함, 능숙함에서 조금 다르게 지역을 볼 수 있는 어떤 경험을 같이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정말 어렵게 코로나 시국에 인근 안양과 군포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작가들을 모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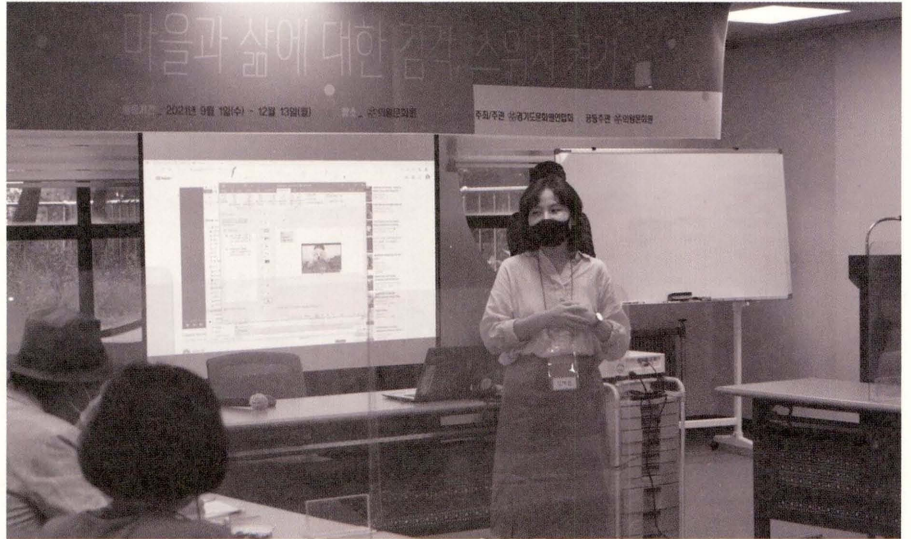
새로운 감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마을을 맨날 보던 방식 말고 똑같은 장소지만 다른 사람의 감각을 좀 빌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일종의 제 표현으로는 프리즘, 새로운 프리즘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제공할까 해요. 그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의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프리즘이 하나 있고요, 동시에 그 프리즘의 성격은 아티스트, 그래서 예술가들이 도대체 이 동네를 읽는다고 할 때 어떤 과정과 방법과 눈과 감정으로 읽는지 여러분이 같이 좀 따라가 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지역을 볼 수도 있구나’ 라는 게 다섯 번의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시도하려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과정들은 계속 주목을 할 거고 그런 과정들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12월에 있을 미래유물전이라고 하는, 미래유물전은 사실 너무 재미없는 이름인데요. 다른 버전의 이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전시회 이름. 그래서 전시 이름들도 우리가 새롭게 함께 짓고 전시가 이런 방식으로 되는구나, 사실 전시는 생략된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낱알이 보여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주 은유적으로 함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죠.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 사이에서 어떤 것들을 추가되고, 어떤 것은 덜어내서 오히려 더 강조하는 방식들도 있지요. 그런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다섯 번의 워크숍으로 작가들을 조금 신뢰하고 따라가 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전시로 이어갈지,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각적인 것으로 보여줄지, 전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다 보여줄 수는 없어.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함축하고 줄이고 오히려 숨기고, 왜 그러잖아요,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일부러 살금살금 보이게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마을큐레이터 작업하면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이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바로 작가님들과 워크숍을 진행할건데요.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두 분 다 시각 베이스의 작가들이고요. 동네,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술이라는 것을 해 온 작가들이에요. 동네나 로컬이나 지역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작가였으면 좋겠다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의왕 근처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뚱맞게 멀리서 먼 나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과 가까운 관점에서 의견을 함께 탐색해 볼 수 있는 작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두 분이 그런 케이스로 여러분들하고 연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김굴이 작가는 작가명이에요. 안양에서 살고, 안양에서 지역 작업을

하면서 저 두 작가가 대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마을, 삶이라고 했던 일상이라는 부분을 도대체 작가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 그리고 그걸 예술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예술은 원래 정답이 없잖아요. (다른 지역 사례의 참여자들 이야기처럼) 우리도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예술가의 시선에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담아내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 저렇게 세상을 보는구나. 처음에는 되게 이상하고 낯설고 좀 어색하고 때로는 오글거리기도 하고 이런데 그게 중요했구나, 그런 어떤 불편함들, 왜 때로는 새로운 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넘어섰더니 훨씬 더 자기 삶이 좀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예술가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봤더니 좀 다른 경험, 자기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그때 당시에 느꼈는데 10년이 지나고 지금 50살이 되어서 보니까 지금 내가 이런 삶에 대한 고민을 할 때마다 그 예술가의 말들이 떠오른다는 말을 했어요.

우리도 짧은 몇 개월이지만 전시까지 꼭 함께 하면서, 그런 호흡들을 같이 따라가다 보면, 물론 작가들도 여러분들의 호흡을 따라가는 어떤 과제들이 있거든요. 하면서 그런 영향들, 앞으로의 우리 삶에 중요한 경험이자 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같이 해보길 제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강조 하나, 의왕시를 염두에 두기보다 내 삶을 좀 염두에 두는 작업이었으면 좋겠다. 매핑 혹시 기억나세요? 행정에서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도시를 살린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죠. 관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뭔가 기반들을 만드는 작업들도 필요한데 사실 한국 사회가 한국전쟁 이후에 그런 것만 해 와서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국가나 정부나 시 같은 공공기관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는 공공기관을 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사는 거잖아요. 독립적인 시민. 우리 시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욕망은 시의 욕망으로 두고, 우리는 각자의 욕망으로 살고 표현하는 경험이 필요해요. 매핑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직관에 걸리는 거, 내가 멈추고 싶은 것을 매핑해보자 이런 제안들을 했었잖아요.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이번 작업도 어떤 장소를 찍겠다고 하는 건 안하려고 해요. 다만 그 감각을 리뷰하는 게 이번 워크숍의 목표예요. 우리는 시(市)가 한, 또는 그런 거대한 정책이나 제도가 하는 흐름들이 아니라 내가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시민으로서의 감각, 개별적인 어떤 한 사람으로서의 문화적 감각들을 어떻게 되살리고, 더 발전시킬 것인가가 이번에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거? 모르겠다? 아니면 기대하시는 거. 나는 어떤 기대감으로 왔는데 그게 영 아닌 것 같다. 아닌가 보다. 내가 좀 잘못 생각했나?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박찬덕 참여자(이하 박) 기대가 아니라 걱정이 있어요. 제가 이해했던 거는 지난번에 했던 거랑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때 함께 했던 제 팀원은 다 없고 저만 남았어요. 그래서 팀 작업을 어떻게 하나 그 걱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나 혼자?

나도 못 하는데...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 오전명동이 저희가 했던 곳이지. 외부에서는 그게 좀 각인되고 임팩트가 있었는데 당장 그걸 했었던 사람들은 다 가시고 저만 남았네요.

임 의미나 맥락이 연결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매핑의 결과물을 그대로 전시로 가져온다고 하면 그 팀을 섭외해야겠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상황은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이미 유물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유물들을 그럴듯하게 디자인 하고 작가들이 포장해서 전시를 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취지에 안 맞아요. 지금 시점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핑 작업이 어렵기도 하지만 되게 흥미로운 것이 과거의 것들은 과거의 것이고, 오전명동이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오전명동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 굉장히 (활동의 맥락을 찾아가는데) 헤맸었거든요. 헤매다가 마지막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그러니까 왜 헤맸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냥 있는 거 말고 선생님한테 눈에 밝히는 것들을 기록 하세요”라고 했지만 그렇게 전환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막판에 아이들이 모이는 곳, 거기가 왜 명동이었는지, 거기에 청소년들의 삶 같은 것들이 보이더라는 점을 알아챈 거잖아요. 거기까지 오기가 3개월...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과거죠. 지금 시점에서 다시 그때 것들을 두고 ‘아 옛날에 그랬지’ 하는 회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의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하는 게 매핑의 핵심이고, 동시대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에요. 어쨌든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핵심이고, 감각이 각성된 사람들이 계속 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발언도 하는 게 이 큐레이터 사업의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워크숍 다섯 번하고 12월에 전시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남는 게 뭘겠어요? 각성된 개인이 남죠.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이라고 한다면 나의 어떤 감각의 성장, 나의 성장. 내 인식의 어떤 확장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국에는 기대하는 효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필요한건, 개별성이라고 하는 개인의 감수성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거, 그것을 조금 더 증폭시킬 수 있는 프레임으로써 작가들하고 작업 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물리적으로 17, 18년도에 했던 것들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식이나 어떤 맥락들을 연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기 참여자(이하 이) 요즘에 화면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을 옛날에 볼 때는 옛날 물건들이었는데 지금은 보다 보니까 나 어렸을 때 보던 겁니다. 미래유물전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다면 현재 있는 것들을 그대로 어떤 전시를 한다거나 그런 걸로만 저는 생각 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거기에 플러스 작가, 어떤 그런 작품성을 가미해서 창의적인 작업을 한다는 데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임 어떤 걸 예술이라고 하고 어떤 건 그냥 기술, 테크니컬한 어떤 기술 이렇게 비교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어떤 건 예술이라고 그러고 어떤 건 그냥 기술 이렇게 얘기 할까요? 어떤 차이 때문에? 그걸 구분 짓는 큰 차이나 생각은 무엇일까요?

박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는 게 예술이고...

임 예술이 고상한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차이를 구분 짓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점... 그냥 하면 기술이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러지?’ 라고 의구심을 품고 보거나 ‘이게 되게 희한하네?’라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거나 하면 예술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호기심이나 의구심이나 그 질문의 주체가 누구겠어요? 나, 그래서 ‘시민도 예술가다’라고 하는 말이 그 시민이 그림을 그려서 예술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체 이걸 왜 이러지?’ 이럴 때 그 그림이 예술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게 꼭 전시를 기술적으로 잘해서 예술가라기보다 ‘내 삶이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이 이게 뭐지?’, ‘우리 아파트가 계속 왜 이러지?’ 이런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예술가라고 보통 칭하는 건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 작가 한 분씩 자기가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지, 자기는 어떤 식으로 이런 작업들을 제안을 했을 때 어떤 구상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들어볼게요.

예술가들은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구나, 내가 워크숍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전시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좀 같이 만들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조금 가늠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선생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소개와 선생님들과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지 워크숍에 대한 제안 혹은 안내도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닐에 열처리를 해서 업사이클링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비닐을 오리고 다리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비닐들을 수집하고, 그걸 오리고, 자유롭게 가위질 하면서 만들어지는 우연적인 효과도 있었고, 그런 효과가 제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결과보다 더 멋지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작업이 재미있었고 비닐로 수채화를 그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 비닐이 겹쳐지면서 그 한 장으로만 가지고 있던 색이 다른 색과 만나서 어떤 오묘한 색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그런 재미에 푹 빠져서 2019년부터는 비닐을 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비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제가 과자를 너무 좋아해서, 평소 과자를 즐겨 먹는데 쌓이는 과자 봉지들을 잘 활용하고 싶었어요. 봉지들이 많아지면서 이걸로 뭔가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즈음 유튜브 ‘프레스스 플라스틱’이라는 채널에서 비닐을 다려서 가방을 만드는 영상을 보고 저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가지고 있던 비닐을 가지고 테스트 하고 실험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재질이나 적정 온도 등 그런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열처리를 하면서 어떤 게 적절한 재료가 될 수 있는지 실험해 봤고요. 그러다가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는 재질이 표면적으로 꽤 좋은 결과를 보여준 것 같아서 두께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면서 그 재료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비닐백(Vinyl be Bag)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파우치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 이것이 상품화도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직 만들어진 상품은 없지만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기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군포에 독립서점이 하나 있어요. 터무니책방의 엄선 작가님께서 책갈피 같은 거를 만들어보면 어떨지 제안을 주셔서 비닐 소재로 함께 협업해서 만들고 판매까지 해보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로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참여자분들에게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비닐들을 모아 오시게끔 요청해서 나에게 필요한 어떤 파우치로 만들어봤습니다.

비닐이 썩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데 잘 만들어서 오래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봉투에 있는 ‘진심’이라는 글씨를 내가 만드는 백에 담고 싶어서 그 부분을 오려서 저렇게 작업을 해 주신 참여자분도 계셨고요. 파란색 택배 비닐을 가져오셔서 파우치를 만드신 분은 다른 참여자 분에게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라고 자랑스럽게 보여주셔서 그때 좀 감동이었어요. 저만 느꼈던 작업 과정의 즐거움과 결과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좀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워크숍에서 참가자분들이 만들어주신 작업 결과물인데요, 칸딘스키도 생각나는 것 같고, 무슨 음표도 떠오르는 것 같은데 너무 감각적으로 멋지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60대 정도의 선생님이셨는데 워크숍에 참여하러 오시는 길에 봤던 길가의 꽃을 보시고 멋지게 만들어주시기도 하셨어요. 저는 워크숍을 통해 어떤 가방의 형태나 그런





기능적인 것만 만들 생각을 했었는데 저 선생님의 작업을 보고, 이게 어떤 작품의 형태로도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또는 어떤 그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영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비닐을 잘게 자르고 조각내서 열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하시고 창작하시는 과정이 저에게도 많은 영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닐을 가지고 상품으로도 만들어보려고 하고 전시도 참여했습니다. 수리산 상상마을 <수상한 툴Tool> 전시에 <플라스틱 판타지>, <비닐 화석> 작업을 전시했던 모습이고요. 화석이 옛날의 지질 시대를 살았던 다양한 생물의 모습을 알려주는 것처럼 정말 먼 미래에서 본다면 현재는 비닐과 플라스틱들이 화석으로 남겨지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비닐 화석'이라는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모았던 과거 비닐봉지들을 작게 색종이처럼 오리고 전시장에 비치해두어, 우리가 진짜 오랫동안 화석처럼 남겨야 될 게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비닐을 오려서 같이 설치해 보는 어린이가 참여 전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쓰레기 문제 또는 업사이클링, 이런 비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앞에서 설명해 주신 재춘 선생님을 만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제가 살던 집 앞에 쓰레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통학로로 이용하는 작은 교통신에 쓰레기들이 쌓이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그냥 저기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구나라고 인식을 했는데 이게 점점 작은 산처럼 많아지고 높아지고 커지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수거를 안 했을 때에는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바뀌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좋은 동네에 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쓰레기 문제가 해결된다고 좋은 동네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환경을 바꿔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해서 ‘액티브 시티즌’이라는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거기서 재춘 선생님을 만났었어요. 쓰레기 문제에 관심 있었던 다른 두 분의 선생님과 같이 쓰레기가 쌓이는 교통섬에 분리 배출함을 설치하고 시범 테스트를 하면서 다시 재분류하고 무단투기 쓰레기에서 주소가 나오면 다시 돌려드렸어요. 맥도날드 테이크아웃 종이 안에 한 입 베어 문 햄버거가 버려져 있었는데 그 안에 배달 주소도 함께 있어서 그 집을 찾아가 벨 누르고 “선생님 어제 햄버거 드셨죠?” 물어보고 이거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무섭기도 했어요. 혼날까 봐, 싸움이 날까 봐. 그래서 최대한 친절하고 공손하게 저도 같이 이 동네에 사는 이웃이라고 잘 좀 버려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쓰레기를 뒀으면 막 주소도 나오고 또 전화번호도... 그런 건 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 전화해서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저 공간을 많이 바꿔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분리 배출함을 설치하고 나더니 자연스럽게 재활용 쓰레기랑 일반 쓰레기가 분리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페트병 뚜껑이라든지 또 알록달록한 것들이 눈에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또 수집해서 아이들하고 어떤 교육적인 도구로 활용해 볼 수는 없을까 해서 또 모아서 씻고 말리고 하면서 색깔별로 분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페트병 교환 프로그램도 했어요. 분리 배출함 앞에 스위치가 있어서 사장님이라 이야기해서 자체 상품권을 만들기도 하고, 또 마을 축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오신 주민 분들께도 뚜껑이나 재활용품을 가져오시면 상품권으로 교환해드리는 이벤트도 하면서 분리배출을 홍보하려고 노력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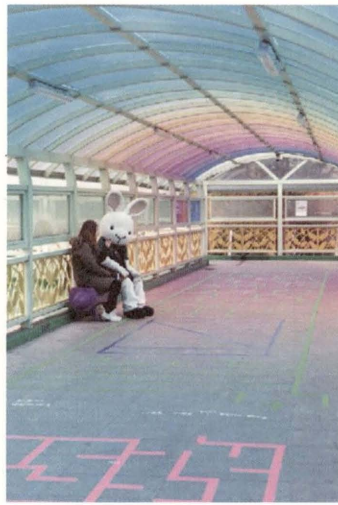
이런 쓰레기 문제가 부메랑이 되어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부메랑이라는 제목으로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페트병 뚜껑에 자석을 부착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움직여 보며 놀 수 있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구름다리 미술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군포에 살고 있지만 제가 사는 동네 외에는 사실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군포의 용호동에 위치한 큰 육교인데 여기가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긴 육교였던 것 같아요. 출구가 9개나 되고요. 진짜 이런 육교를 처음 봤어요. 이렇게 긴 육교도 있구나 하면서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면서 관찰을 하고 여기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한다면 뭘 하면 좋을지 생각 하다 갑자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앨리스가 토끼를 따라서 굴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굴이 지상으로 올라 진다면 이런 모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상으로 올라진 환상 토끼굴’이라는 컨셉으로 4가지 프로그램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이 육교는 존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육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육교를 로맨틱하게 보이는 전망대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육교 한 가운데 망원경과 조명을 설치하고 감성적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로맨틱한 전망대 공간으로 바뀌고자 했어요. 퇴근길에 지쳐 귀가하시는 분들께 “전망 보고 가세요” 라면서 호객 행위도 해봤어요. 익숙한 공간이지만 한 번도 집중해서 바라보지 않았던 육교 안과 밖의 공간을 한번 낯설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저도 앉아서 보니까 렌즈로 보이는 동네의 풍경이 좀 생경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좀... 감성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로맨틱 전망대에서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예상 밖의 반응을 준 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요. 여기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육교였어요. 근데 학생 중에 한 명이 계속 거기서 머뭇거리고 안 가는 거예요. 제 쪽을 보는 것 같기도 해서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중학생인데 짝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교 창에 써놓은 ‘로맨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설레고 궁금하게 다가왔고 자꾸 기웃거리며 발도 못 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짝사랑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도 참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고 그 친구의 짝사랑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응원도 하고 격려도 했던 아주 인상적이고 재미있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제안 드리면 이렇게 호응해주고 관심 가져주셔서 저도 용기를 얻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환상 토끼굴>의 네 가지 프로그램 중 또 다른 것으로 ‘공중문방구’도 진행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학교 앞의 풍경은 뭔가 문방구도 있고 뽑기도 있고,

확하지결하고 그런데, 여기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보도 육교가 그냥 아이들의 주된 통학로인거죠. 그러면 여기에 좀 문방구 같은 거를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 해서 뽑기를 통해서 이색 장난감을 주고 대신 아이들에게는 육교에 대한 느낌이나 감상 의견을 받아서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환상 토끼굴>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일상에서 만나지 못하는 어떤 장면 같은 거 어떤 해프닝으로 만나도 좋겠다는 생각에 토끼가 직접 굴을 돌아다니는 ‘구름다리 위 토끼를 만나셨나요?’를 기획했습니다. 내가 다니던 익숙한 육교에 뭔가 못 보던 생물이체가 다니는 상상을 하면서 토끼 탈을 쓰고 가방에는 캔디나 젤리를 가득 담고 뛰어다니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드렸는데 한 주민 분은 고맙다고 굴을 주셔서 감사했어요. 저도 재미있게 했던 프로젝트였고, 공간이나 어떤 지역의 시설물, 이런 것들을 다르게 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마을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분리분리 프로젝트’ 이후로도 계속 환경이나 업사이클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쓰레기 문제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시설물(분리 배출함)을 설치했다는 책임감으로 저도 모르게 가서 또 점검을 했었는데 현재는 제가 근처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관리자의 부재로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사한 곳도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가 심각해서 동네에서 활동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청소 하는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리서치를 하거나 어떤 작업을 할 때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봤는데요. 채운 선생님도 예전에 아카이빙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분리분리 프로젝트’ 할 때부터 사진이라든지 그 장소에 대한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다닐 때 마다 쓰레기를 찍고 계속 이 자료를 쌓아가고 있고요. ‘분리분리 프로젝트’를 할 때는 쓰레기차가 언제 오는지, 그 장소에 대해 꽤 오랜 시간 관찰했던 것 같아요. 한 장소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것들을 이해 관계도 한 장소로 만들어서 그 관계자들을 다 만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비닐 작업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관심이 또 비닐로 집중되었어요. 그래서 나무에 비닐이 하나 걸려 있는 모습을 보고 작년에는 한 6, 7개월 정도 계속 그 나무에 걸린 비닐을 관찰 했는데 7월 이후로는 또 어디론가 날아가 버려서 묘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지금은 비닐을 소재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비닐이 그냥 비닐이 아니라 저한테는 어떤 소재가 되고, 뭔가 귀중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비닐들이 또 저를 보면서 “발견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길을 지나다닐 때마다 보이는 비닐을 줍고 있어요. 그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이것을 또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지 그런 고민도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의외로 깨끗한 상태의 비닐들이 좀 많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특징인 저 돌담에 비닐이 말려서 꽂혀있는 것도 봤는데 지역적인 특색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또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통해서 많이 영감을 얻거나 도움을 받아서 계획을 구체화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핀터레스트’라는, 예술가들도 많이 이용하고 어떤 조사할 때 찾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를 자주 들여다보고 다양하게 검색을 해요. 검색어에 따라서 보여 지는 이미지들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기본 이미지 조사를 좀 많이 하는



청계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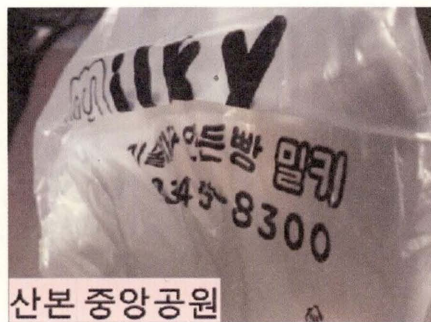
동대문



군포 금정역



산본



산본 중앙공원



제주도

편이고, 그리고 시각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린이 도서관에 가서 그림책으로도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면 복잡하게 생각했던 게 가끔은 명쾌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더 복잡해지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찾는 걸 좋아해서 거기부터 출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워크숍과 매핑의 작업이 그 결과로 전시까지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시 형태는 또 어떻게 될지 앞으로 같이 작업을 해 나가면서 관련된 것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계속하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매핑 작업을 하시면서 체화된 경험들이 전시에 잘 녹아들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어떤 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면서 찾았던 거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지도의 형태로 그 전시 공간이 둘러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선생님들이 쓰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어서 전시 공간에 보여주면 어떨까? 참고가 될 만한 이미지를 조사해봤고, 옆에 아래쪽에 노란 풍선은 옛날에 축 분양이라는 어떤 기념비적인 행사나 그런 활동을 할 때 상징적으로 저런 풍선들이 있었는데 우리도 저런 거를 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어부가 그물로 물고기를 포획하듯이 한 번 걸러주고 중요한건 남는 게 어떤 유물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과거와 연결된 큰 틀은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런 전시의 형태는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는 워크숍에서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은 뭐가 있을까, 또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본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활동을 통해

새롭게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어요. 물리적으로 시선을 높인다거나, 실제로 가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3~4cm 높이에서 동네를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풍경이나 바람이나 또 다른 어떤 감각을 열게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감각을 접해보는 다섯 가지의 도구들을 만들어 봤어요. 선생님들께서 한번 미션처럼 수행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달리는 것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이라고 해서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고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 그리고 안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어린이, 초등학생이 타는 그런 안전한 두 발로 움직일 수 있는 킥보드 같은 거를 타고 의왕을 바라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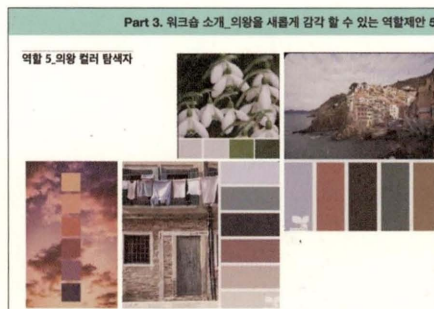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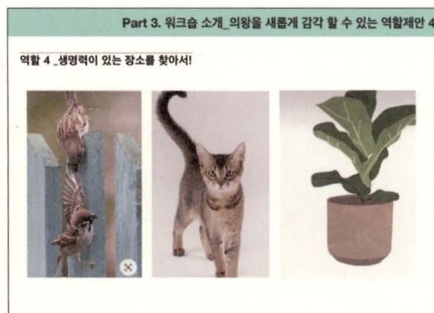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거리두기 상황이 길어지면서 동네에 있는 정자에 들어가지 못하게 출입금지 테이프로 다 막아놓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안전제일, 위험, 경고의 의미로 테이핑이 되었는데 그런 공간이 새삼 선물 같은 공간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미처 몰랐지만 선물 같은 공간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을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더라도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선물을 포장하는 마음으로 한번 리본 테이핑을 해본다거나 래핑(포장)을 해보면 어떨까 했습니다. 이걸 좀 말장난이기도 한데 래핑이랑 매핑이랑 비슷한 거 같아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몰랐지만 선물을 받았다고 느꼈던 그런 공간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지 모르는 답답함에서 요즘에는 모두가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여행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선생님들께 여행 키트를 드리는 겁니다. 왜, 어떤 여행지에서는 좀 용감해지잖아요. 새로운 것도 시도해보고 예쁜 옷도 입고, 진짜 멋지게 꾸미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떤 장치나 도구들을 갖추고 한번 실험해 볼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생명력이 있는 장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도 좋고 새, 매미, 소리가 있는 것도 좋고. 아니면 녹색이 있거나, 여기 오다 보니까 정말 화원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이 느껴지는 곳을 한번 표시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컬러 탐색자’라고 해서 도시의 어떤 컬러를 정하거나 할 때 많이들 하는 작업이기도 한데 우리 동네 혹은 내 주변에는 어떤 색들이 존재하는 지 찾아보는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제안을 드리고요. 이 경우는 다 같이 하나씩 해보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 분이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저 역할로 수행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건데 혹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는 어떤 역할이 있거나 아니면 또 추가하고 싶은 것들을 알려주시면 같이 만들어 가면서





워크숍을 진행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매핑을 처음 접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선배님으로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같이 배우면서 즐겁고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장소 안에서 어떤 사건을 벌이는 거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동네나 어떤 장소를 기억하거나 감각한다고 해요. 우리가 처음에 많이 걸었잖아요. ‘어슬렁거린다’ 이 표현 기억나시죠? 어슬렁거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것, 이미 있는 것들을 내가 감지했다고 하면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는 영경작가가 한 것처럼 판 짓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장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루틴이 있어요. 근데 그 루틴을 한번 거슬러 보는 거, 꼭 여기에서는 이런 일만 벌어져야 돼? 영경작가는 쓰레기나 환경에 대한 문제, 생태적인 어떤 이슈, 기후위기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지역을 보고 이 지역에서, 이 장소에서 벌어졌으면 하는 일들을 자기관심사를 투사해서 한번 사건을 벌이는 거죠.

예술이라는 게 묘한 게요, 신도시가 많이 생기면서 육교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육교를 토끼집과 토끼 굴이라고 본 거는 영경 작가의 생각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토끼 탈을 쓰고 간 건 단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육교를 어떻게 바꿔 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한 거죠. 그러면 어떤 상호작용들이 벌어지잖아요. 상호작용을 의도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로맨스에 관심 있는 친구가 잡자기 그 말에 꽃혀서 온다거나 아니면 “야, 이 장소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네” 라고 누군가 생각하면 그러면 그 장소가 그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그냥 통로로서의 길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벌어질 수 있는 문화적인 어떤 장소, 기능으로만 얘기하면 그냥 통로일 뿐이지만 어떤 경험이 생기면 거기는 문화적 장소가 되거든요.

영경작가는 자기 경험에 대한 것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다섯 가지 제안을 했잖아요. 물론 그 다섯 가지 제안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호기심으로 따라 해도 좋고 아니면 다른 제안을 해 주셔도 좋고 그래서 팀별로 회의를 조금 할 건데 “내가 저거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 “이런 거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도 되고 개별적으로 팀별 활동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모둠 안에서나 둘이 같이 “이거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제안들을 이따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때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굴이 작가는 결이 좀 달라요. 관심사가 다른 작가들을 섭외했고, 캐릭터나 자기감수성이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르게 동네를 관찰하고 표현하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실행, 실천들이 어떻게 다르게 벌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굴이 작가 안녕하세요. 저는 날 때부터 안양시 동안구에서 자랐고요. 유치원은 포일로에서 다녔고 안양시와 의왕시가 인접해 있어서 내손 1동, 2동까지는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장소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재개발 이전에 풍경을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기억이 완전하진 않겠지만 저한테 아주 익숙한 곳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어떤 장소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의 작업을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께 저를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일단 이미지들을 모아봤어요. 제가 여러 장르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영상도 하고 있고, 출판도 벌써 올해로 세 번째 책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도 여전히 그리고 있고, 퍼포먼스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면 가감 없이 하는 편이라서 “굴이 작가님 어떤 작업하세요?”라고 질문을 받으면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앞서 영경 작가님의 경우 쓰레기 분리 배출, 비닐 이런 정체성들이 조금 더 명확하시잖아요. 저는 약간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서 일단 이미지를 모아봤고, 모두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자칫 이야기가 지루해질 수도 있으니 한 두 가지 만 골라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제가 작년에 안양 석수시장에서 개인전을 했어요. 첫 개인전인데 여기 혹시 안양 석수동 가보신 분 있으실까요? 석수시장은 가 보셨을까요? 거기가 저는 안양 사람이지만 굉장히 낯선 곳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석수시장에서 첫 개인전을 하게 됐는데 2020년이다 보니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전시라고 하면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생각하게 되는데 전시장을 이용할 수 없어서 석수시장에서 빈 점포를 빌려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조금 스토리가 있어요. 이 전시를 VR로 기록을 해둬서 보여드리려고 사이트를 가져 왔는데 이렇게 석수시장에 보시면 벽화가 군데군데 그려져 있고 지나가다가 뭔가가 있어요. 이게 뭐지 싶은 약간 미술의 흔적들이 있는데 여기가 한 10년 전부터 예술 프로젝트를 했던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곳에서 전시를 해도 생뚱맞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공간을 빌려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전시 공간이 여러 공간들로 이렇게 나뉘어서 전시를 하게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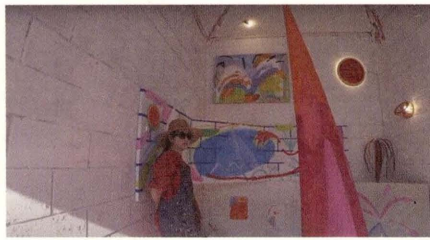
제가 여기서 뭘 했냐면 저는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 농부가 작물을 정성을 쏟아서 기르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작물은 내가 키워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음대로 자라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때는 자연재해가 와서 농사가 망하기도 하고 그런 필연과 우연이 뒤섞여서 어떤 결과물로 생명이 탄생하고, 그런 과정들이 일종의 예술이 피어나는 과정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10월에 전시를 오픈했어요. 보시면 크고 작은 작품들을 제가 만들기도 하고 그리기도 했어요.

이 전시 공간에서 전시 오픈 날에 '새참을 만드는 날'이라는 제목의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막걸리를 따르고 전을 나눠 먹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또 다른 전시 공간은 분위기가 다른데요. 여기서는 몇 점의 드로잉도 있고 그리고 설치물도 있는데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안에서 증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증기가 흘러나와서 이 하늘 색깔이 뿔어져 나온 그 모양의 조형물에 닿아서 물이 뚝뚝 흘러지고, 물이 흘러서 땅에 스며들고 그 땅이 다시 증발해서 또 수증기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려고 이 작품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가짜 뉴스예요. 제가 가짜뉴스를 석수시장을 배경으로 해서 '기쁨의 첫 수확', 또 '의문의 거대 작품 논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인터넷 기사를 만들었고, 전시 보러 오신 분들이 각각의 작업에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아쉬운 건 악플이 없고 너무 칭찬밖에 없어서... 악플이 있었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했었고 그리고 석수시장이라는 공간이 되게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이 시장에서



저보다 오래 살고 있는 고양이가 있어요. 시장에서 제일 큰 마트 이름이 우이 마트인데 고양이 이름이 우이예요. 전시해야 되는데 우이가 너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영상 찍으면 와서 처음에는 고양이가 나온 부분을 다 편집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 나는 고양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따로 고양이를 리스펙하는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장 상인분과 같이 생생정보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패러디해서 석수시장을 탐방하는 영상을 찍기도 했는데 이것도 잠깐 보실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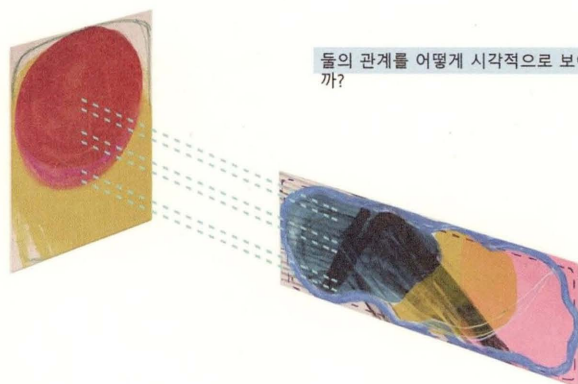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틱한데 저는 매끈한 작업보다는 덜 해 보이는 작업에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출처=공간기록연구소)

공간을 이렇게 꾸몄고, 여기는 길목인데 윈도우 갤러리라는 컨셉으로 창을 이렇게 꾸미기도 했고, 이 전시들을 그냥 흘려보내기 아쉬워서 VR로 기록을 했고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작품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나뉘드린 유인물에 홈페이지 주소가 있으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더 즐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분위기가 바뀌었죠. 제 그림들인데 보시면 약간 특이한 점이 있을 거예요. 보통 그림은 평면이잖아요. 저는 대부분의 그림들을 측면에서 촬영하고 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갤러리에 들어가서 그림에 도달하기까지 정면으로 보는 것 보다 측면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이게 평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납작한 직육면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도 무언가 뚜렷한 것을 그리기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둘의 관계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호수예요. 이 태양의 빨간 중점에서 노란빛이 흩어져 있고 이 노란빛을 호수가 감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림이 따로 있으면 아무 매력도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마주봤을 때 둘 사이의 관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관계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라는 걸 어떻게 수면 위로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저는 주로 고민하고 있고, 이 고민이 여러분께서 2년 동안 매핑을 하셨잖아요. 매핑과도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가 대학생 때 했던 작업인데 벌써 10년 정도... 이게 저의 집, 나의 방, 이 공간이 저에게 친밀하면서도 친숙한 공간이에요.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낯설게, 재밌게, 새롭게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빨래더미를 걷어내면서 영화오프닝을 흉내 내기도 하고, 모두가 잠든 어두운 밤에 혼자 후레시를 듣고 감상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림자놀이,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작업이었어요. 저희 집도 일반 가정집이에요. 그런데 카메라를 들고 후레시 빛에 의지해서 보니까 아주 색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영상을 몇 년 만에 다시 보면서 알았는데 집안에서 구두를 신고 돌아다녔거든요. 엄마가 아시면 환장할 노릇이긴 한데 일상을 파괴하려는, 파괴하기보다는 색다른 행동을 하려고 많이 이상한 짓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행동들이 보시는 분들이나 혹은 여러분들께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의미는 내 스스로에게 있는 거고, 그 스스로의 의미를 여러분께서도 직접 워크숍을 하면서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두 번 동안 특정 장소, 스팟에서 활동을 할 건데 일상의 스위치를 켜는 것, 눈을 깜빡이면 다른 일상이 보이는 것처럼 내 행동을 바꾸는 게 생각을 바꾸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면 일상도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상을 처음부터 바꾸려고 하는 시도보다 내 눈을 다르게 깜빡여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이미지가 설명이 됐으면 하는데 저의 워크숍의 목표는 스스로 행동을 바꾸는 것이고요.

행동 지침

- 지정된 장소 앞에 도착하여 장소를 탐색한다.
- 지정된 장소 앞에서 행동을 한다.
- 지정되는 장소는 구체적인 스폿이어야 한다. (ex 학교-교문앞, 놀이터-미끄럼틀)
- 미끄럼틀이 스폿이라면 미끄럼틀 타는 행위 외의 모든 행위 OK
- 그룹원 모두가 한 스폿 앞에서 함께 같은 행동을 한다.
- 행동이 끝나면 해당 스폿 10m 안팎에서 개별 행동을 한다.
- 개별행동이 시작되면 일일VJ에게 신호를 한다.
- 일일VJ의 인터뷰에 응한다.

행동지침이 있는데 저희 그룹이 나눠질 건데 5명이라고 하면 다함께 행동을 하고, 각자 개별 활동을 할 건데요. 예를 들어 그 장소가 놀이터라면 장소를 탐색해서 어떤 미끄럼틀을 선택을 하고 미끄럼틀을 타는 것 외에 어떤 행동을 할 거예요. 그 행동을 제가 랜덤으로 지정을 해 드릴 건데 만약에 강력하게 의견을 주시면 제가 따르도록 할 거고요. 예를 들면 미끄럼틀 앞에서 다리 찢기를 하거나 미끄럼틀과 대화를 하거나 노래를 흥얼거리고, 가위바위보를 한다든지 장소의 쓰임과 상관없는 행동을 할 거고요. 저희 그룹이 5명이라면 다섯 명 모두가 미끄럼틀 앞에서 같은 행동을 하고, 몇 분 후에 각각 나눠져서 각자의 개별 활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은 제가 일일 VJ가 되어서 여러분을 쫓아가 질문을 드리기도 하고, 인터뷰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행동을 하시면서 인터뷰에 응하시면 되고, 혹시 짤이라고 아시나요? 움짤, 영어로는 밈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담잖아요. 움짤이라는 게 상황에 맞는 자막을 넣거나 유머러스하게 이미지 그 자체로 보여주는 건데요. 합성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기록한 걸 짤로 만들어서 12월 전시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룹을 정하고 나서 장소를 정할 건데 저에게 가고 싶은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거 넘사벽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취지는 그래요. 그동안의 내가 어떤 감각에서 동네를 보면 거기서 밖에 안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경험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매핑을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것은, 내 감각이나 인식이 확장 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만그만한 것만 보일 것 같거든요. 한 두 번의 경험으로 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 자기 경험의 인식을 확장 시킬 수 있는 실마리, 문의 틈을 벌리는 수고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논의했어요. 더 센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이 도망가실 것 같아서...(웃음)

예술이 잘하고 못하고가 없고 다리 찢기도 정석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리를 찢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장소에 가서 뺄 것을 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지침을 줬는데 ‘미끄럼틀에서 미끄럼틀 타는 것 말고 다 된다’ 그럼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나’ 그럼 황당한 일을 통해서 질문 해 보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럼 미끄럼틀을 유심히 봐야겠죠. 주변도 돌아보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눈을 거스르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나, 아니면 못하냐... 어쩌면 미끄럼틀 앞에서 우두커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낯선 행동들을 할 수 있나, 없나. 자기 자신을 알아채는 것도 중요한 감각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미션처럼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나를 갖다놓는 것 자체가 미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나, 어떤 반응을 하나, 나의 머뭇거림을 어느 정도까지 알아차리나 이런 것 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호객행위(?)를 더 하자면 여러분 사시면서 이런 거 해보신적 없으시죠?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면서 동네를 알고, 감각한다는 것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구나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해왔던 것, 잘 해왔던 것, 그것만으로 유물을 규정하고, 과거지향적인, 시대와 동떨어진 어떤 문화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이 필요해요. 과거의 사물이나 역사나 사건을 중심으로 한 유물과 미래적 가치관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또는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관점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정의하는 시도들이 같이 있어야 과거와 현재가 연결이 되고, 그걸 통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겠다’라던가, ‘앞으로는 이런 가치가 중요해’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무조건 개념적으로 과거의 것은 소중해라고 하면 주입하는 가치가 되고, 요즘 친구들이 역사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학교에서도 중요한데도 계몽적으로 가르치다보니까. 아이들이 과거의 것이 중요하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관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내면화 되어 있어요. 저는 마을큐레이터 사업이나 미래유물전이 사람의 성장이라는 것, 시민의 시각이라는 것을 주제로 다뤄볼 수 있겠다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영주, 민병은 선생님이 이게 첫 시도라고 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특히 문화원이 과거지향적인 문화적 시각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실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아리송함이나 아리까리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계속 질문해주시고, 우리도 계속 소통하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이야기가 뭔가에 대한 실마리를 두 작가가 던져주신 것 같네요.

이 과거가 포함이 된 현재를 예술적으로 재해석해서 미래유물로 만드는 거죠?

임 그건 우리가 정하는 거죠. 15명 각자의 미래에 대한 생각, 유물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정답이 없죠. 선생님이 생각하고, 관심 있는 문화나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고, 다르니까 그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데 저나 작가들이 온 거는 균형감이 필요한데, 그동안 많이 있었던 것 말고 동시대 삶의 감각에 더 축을 뒀으면 좋겠다. 워크숍은 동시대 감각, 지금의 삶에 주목하는 유산,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유산으로써의 유물에 포커싱을 맞추고자 한다. 그래야 과거에 기울었던 추의 균형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번 워크숍은 ‘지금의 삶에 더 주목하고, 개별성에 주목해보자’는 것입니다.

박단경(이하 단) 전시를 할 때 우리가 거기서 그 행동을 해야 하는 건지?

임 전시를 어떻게 할지는 워크숍을 한 번 해보셔야 하는데, 많이 여러분들을 당황시킬 거예요. 사실 어제도, 멘봉에 빠져서 이분들이 도망가시면 어떡하나 하긴 했는데, 이런 당황스러움을 재미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당황스러움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관료화시키고, 자기 인식을 좁게 만들 수 있거든요. 보통 삶에서 새로움이라는 것은 이 당황스러움에서 시작하잖아요.

단 요즘 여행을 못가서 여행 블로그를 많이 보는데 각 세계에 젊은 남자들이 여행 다니면서 하는 행동이 굉장히 참신해 보이더라고요. 대리만족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걸 여기서 하면 내가 관중 같아 보이고... 이 세상이 너무 정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깨서 개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임 그래서 작가들은 자기가 미쳤다고 얘기하거든요.(웃음) 백남준 작가도 그랬지만 자기가 미쳤다고 얘기하거든요. 서로 미쳤다고 하는 걸 나쁜 말이라고 하지만 예술가들은 그 '미침'이라는 게 세상을 얼마나 다르게 보는가? 왜냐면 우리 세상이라는 게 막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안에서 어떻게 다름, 미래적 가치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뭐가 가치 있다 없다고 하려면 그전에 멈춰야 판단할 수 있는데 멈추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미친 짓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게 아까 '나도 예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나도 그림을 그리고, 재봉된 키트로 뭘 만들어서 예술가가 아니라 나도 멈춰야겠어, 그런 의지, 내 속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예술이라는 것이죠.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체험이 과연 예술이냐는 거죠. 시민이 예술가가 되려면 그런 질문이 필요한 거고, 박단경 선생님은 '지금 같은 시대에 나는 해보겠다'라고 얘기해주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룹을 나누고, 다음 주에 나가서 한번 워크숍해보고 와서 당황스러움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죠. 의견을 들어서 민주적으로 해볼까 했는데 다들 결정을 못하실 것 같아서 한번 손을 들어 결정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굴이작가(랑 같이 하실분)? 박찬덕 선생님, 원은경 선생님 두 분. 영경작가? 이용기님, 김정희님, 전태훈님, 강혜숙님

그리고 굴이 작가처럼 이름을 바꿔도 좋아요. 이름처럼 오랫동안 살면서 나를 표현하고, 드러내주는 게 이름이기도 해서 내 자아가 거기에 많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그것만큼 강력한 굴레가 없어요. 요즘 연예인들이 부캐라는 것도 많이 갖잖아요. 이게 흥미로운데... 이름을 바꿔도 좋아요.

박 호를 지었어요. 놀자 입니다. 공자, 맹자, 순자가 있는데 유명한 성인들이 다 자자 돌림이더라고요.

임 놀자 박찬덕 좋아요.

단 페루의 한 작가는 시마다 작가명을 다르게 써요. 한 7가지 되요. 그래서 전 이름은 바꿔도 좋다고 생각해요.

임 맞아요. 부캐도 아니고 다 자기인거죠. 아직 결정못하신 분?

단 두 가지 워크숍 다 맘에 들어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임 두 개 다 하셔도 되요.

단 두 가지 다 하는 건 버거울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박 두 가지 다 가능할까요?

임 영경작가 작업은 개별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어서 같이 한다고 하면 굴이작가 워크숍에 참여하고, 자기가 일상



안에서 시간을 내서 영경작가의 제안 중에서
참여하고 했던 거를 그 다음 주에 와서 공유하는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경작가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같은 장소더라도 그 안에서 각자 활동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같이 가서 해봐도 되고, 개별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임 예를 들면 첫 번째 높이를 달리한다고 했잖아요. 높이도 있지만 속도의 문제도
있거든요. 최근에 어떤 친구가 자기 프로젝트를 하는데 3초만 느리게 행동하는
프로젝트를 해요. 쓰레기를 버릴 때도, 엄마가 설거지를 할 때도 슬로우로 천천히 해보게
해요. 그게 대체 뭐냐는 거죠. 속도를 다르게 하는 것. 오히려 영경작가는 걷는 것에서
속도를 빠르게 가는 것, 자동차는 잘 안보이잖아요.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같은 건 훨씬
느리기 때문에 속도에 따라서 우리 동네는 어떻게 보이는지... 조금 더 착한 기획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타는 킥보드나 자전거가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는 길인가? 이런 것들을
탐색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여기에 이런 게 있네, 동네에서 이런 냄새가 나네, 왜
데니스 우드 지도 예전에 보여드리면서 냄새 지도, 사운드 지도, 불빛 지도 다양하게
보여드렸잖아요. 일상에서 속도가 생기면 포착 되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높이이자 속도를 변화시켜보자 그런 제안이죠. 그건 꼭 시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자기가 규칙을 정하거나 스스로 시간을 정할 수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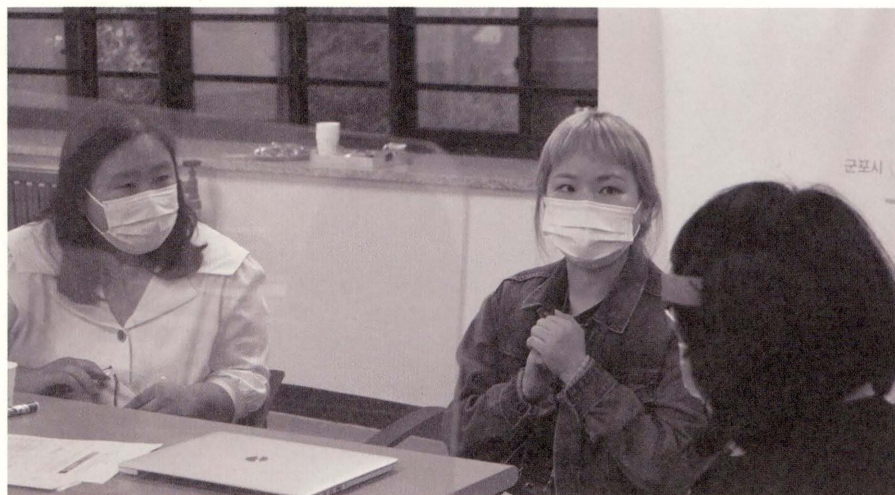
단 그럼 각자 그 활동을 하고 나서 결과물 전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 그건 모둠으로 가면 알려 주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각자 어디서 무엇을 느꼈는지 기록하는 게 중요한데 무엇을 어떻게 기록 할지는
각 모둠의 특성에 맞게 할 거예요.

단 그럼 저는 영경작가 팀으로 하겠습니다.

임 네,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바꾸거나 접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다음 주에
실행을 하는데 너무 많이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나를 던진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 주에 모이면 그 경험이 어땠는지 해볼 건데 우리가 2, 3년 전에 했던
작업들의 질문을 붙여서 같이 리뷰 하는 작업을 진행할까 해요. 이전에 했던 작업들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면서 이번에 했던 작업과 겹쳐서 보는 작업을
모여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모둠별로 모여서 다음 주에 어떻게 활동할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시고
자연스럽게 헤어지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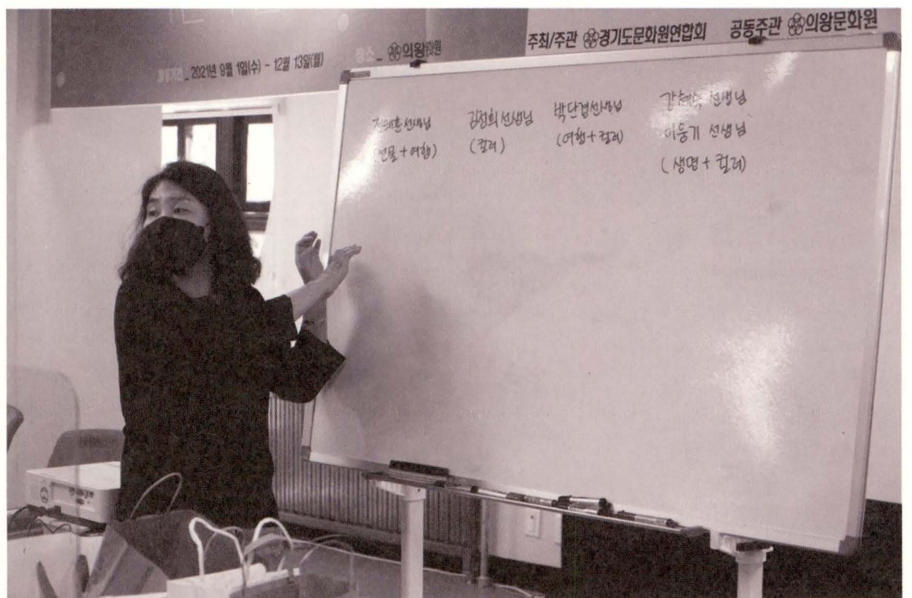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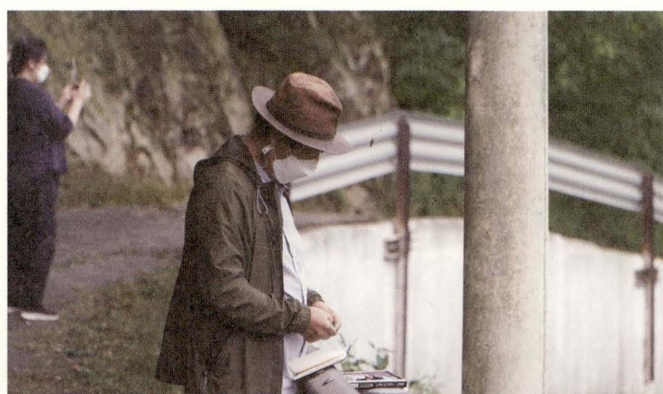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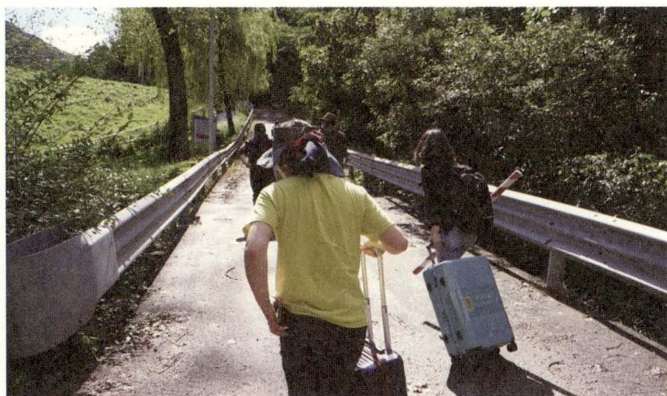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워크숍 워크숍 워크숍 워크숍 워크숍 워크숍

현장 워크숍 | 이후 경험 나누기





이웅기 참여자(이하 이) 조금 두려움과 설렘도 있었고,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젯밤까지 정하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새벽 세 시까지 파워포인트 작업을 했는데 그림도 다 못 그렸고요. 왜 어려웠냐면 두 가지 관점을 정해놓으니까 자꾸 그것을 중복시키려는 것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색깔과 생명을 섞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결국에는 하나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생명을 관점으로 잡았고, 강혜숙님은 색깔로 따로 정했는데 저희들이 유물로 남기고자 했던 것은 어저께 재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죠, 오매기 마을에. 어제 시에서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쪽 마을이 앞으로는 사라지게 될 건데 그곳에서는 무엇이 보이는가...

임 직접 만드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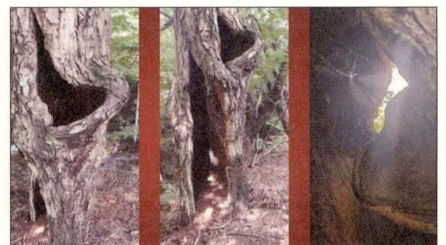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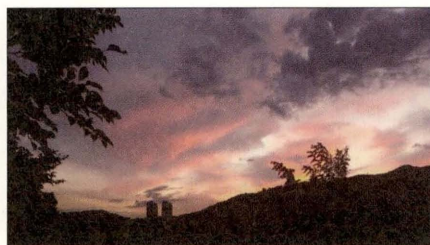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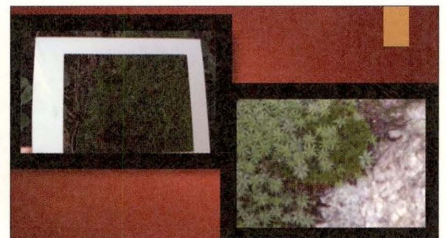
이 네

임 일단 기술적으로 많이 느셨네요.

이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자료는 제작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작권은 제작자에 있으며 사용출처만 밝히면 무단으로 사용하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음을 밝혀둡니다. 두 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런 설명 없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이번에 찍은 것과 제가 십여 년 전부터 오매기 마을을 찍어 놓은 것들입니다.

임 모든 사진을 다 직접 찍으신 건가요?

이 네



이 이건 진짜 새가 아니고 제가 만들어 놓은 새입니다. 여기는 생명이 시작되는 맑은 공기가 보이고, 푸른 하늘도 있었고. 옛날에 여기를 양어장으로 써가지고 다 망가뜨렸었는데 이제 보호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어서 겨울이면 얼음이 얼어있는 깨끗한 그런 호수, 생명이 시작되는 이 장소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저 끝에 가서 이렇게 찍으면은 이렇게 데칼코마니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여기에 쭉부쟁이 피어 있는 꽃들이 저수지에 어울려 있고, 예쁘죠? 거기에서 이번에 갔을 때 바위틈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수지 옆에 약간 습기를 가지고 생명이 시작되고 있었고 이렇게 아주 작은 새싹들에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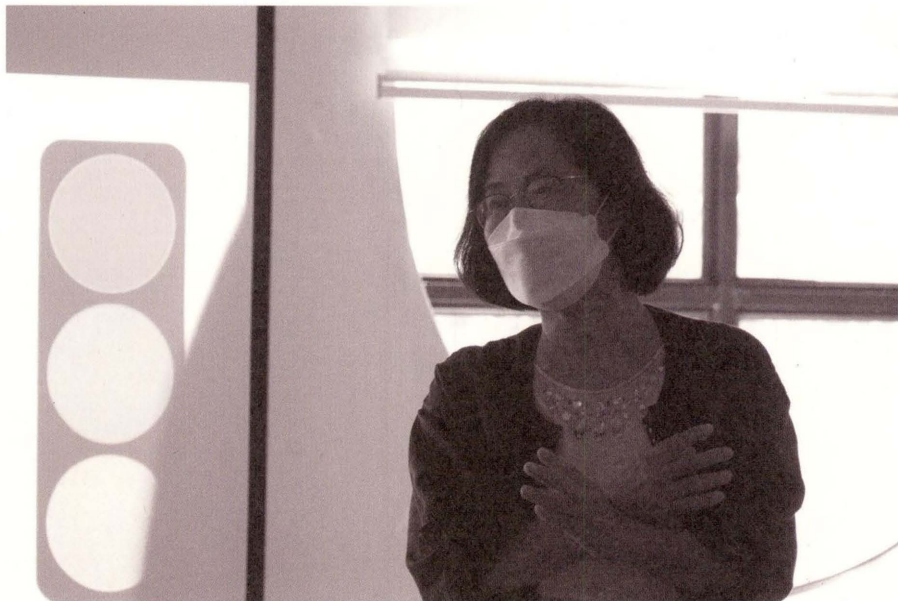
힘차게 돌아나면서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 덩굴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덩굴을 보면 어떤 힘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가녀린 줄기로 뻗어 올라가는데 어떤 꿈이 보여요. 식물 공부는 아닙니다만 모든 덩굴들은 끝을 구부리고 올라간다는 것은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자연 속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곤충들은 서로 짝을 찾았고 서로 모여서 사랑을 나눠서 마을을 만들고 있었고, 아름다운 너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의왕의 가장 높이 솟아있는 바벨탑, 서해 그랑블 42층 건물이 저렇게 우뚝 솟아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텃밭에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 생명이 태어나서 아가와 같은 바벨탑들이 들어서니까 물론 이렇게 빈 둥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갔지만 거기에 남은 사람들은 혼자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고 그것에서 뭔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매기마을 하트마을은 하트가 있는데, 하트는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트를 안에서 들여다보니 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이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보호하고 가꾸고 보존하려는 그런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해주고 기다려준다면 그리고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언뜻 보기에는 이렇게 막히고 규제되고. 이런 하늘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멀리서 넓게 보면 그것은 푸른 하늘 일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서는 희망이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코디언북





강혜숙 참여자(이하 강) 저는 첫날 와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딱 봤는데 미래유물전이에요. 미래, 미래를 가지고 어떻게 유물을 만드는 이야기인가 참 고민했는데 이번 또 숙제를 하다 보니까. 주제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선생님이 처음부터 하나만 선택을 해라 했으면은 정말 쉬웠을 것 같았는데 저는 생명하고 이 칼라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물론 모든 자연물에는 생명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칼라가 있는데 이걸 교집합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인터넷에 네이버에 물어보기도 하고, 검색도 해보고, 생명과 칼라를 어떻게 결합을 시킬 것인가 무진장 찾아보고 고민했는데 답을 못 찾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ppt를 어제 저녁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가 첫날 가서 '나 오늘 자연에서 그림을 봤으니까 나 이걸 그릴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내가 뭔가 주제를 잡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던 걸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릴 수가 없더라고요 주제를 못 정하니까. 근데 어제 저녁에는 정말 그래도 끝까지 생명과 칼라, 이 교집합이 무얼까 고민하다가 제가 '오매기 희망의 신호등'이라는 주제를 정했어요. 이게 또 우리가 작품 발표할 때까지는 바뀔 수는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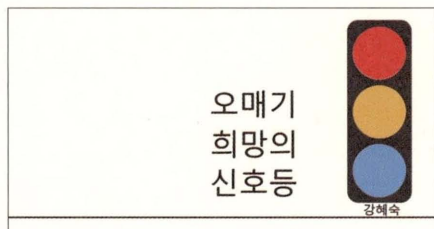
우선 오늘을 위해서 잠깐 이 주제를 정했는데 신호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1868년에 영국 런던에서 가장 먼저 설치가 됐대요. 그때는 신호등 색깔이 이 세 가지가 아니고 빨간색 밖에 없었고, 그것도 가스불을 이용한 신호등이어가지고 빨간 불이 켜지면 멈추고, 꺼지면 통과하는 그런 신호등에다가 빨강과 파랑 그리고 지금 1918년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모습의 신호등이 만들어졌습니다. 항상 우리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만 이 색깔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빨강은 멈춤, 노랑은 신호변경, 예고, 파랑은 통과라는 색의 의미를 가진 신호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신호등이나, 신호등은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죠. 보행자들이 많은 통행로 아니면 교통량이 많은 곳 그리고 사고 다발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곳에 그 어떤 필요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이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인데 사람이 있으면 신호등이 설치되는 것이고, 신호등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있는 것인데 오매기에 갔더니 이 신호등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의 신호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매기에도 신호등이 보이더라고요.

오매기는 신호등이라는 주제를 정했는데 신호등입니다. 어제 몇 년 전부터 오매기 개발 계획이 있었어요. 어디라고는 정확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오매기는 개발할 것이라는 계획서를 발표했고, 어제 의왕시청에서 얼마큼의 면적을 개발한다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빨강은 시간이 멈추는, 이 빨강은 사람들이 많은 추억을 가질 것이라는 의미에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몇 년 정도 개발이 될 거면 그 개발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몇 년 뒤에 개발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변화가 분명히 보이겠죠. 그래서 시간의 의미로 선택을 했습니다. 추억은 아까 오매기저수지 보셨죠? 오매기저수지가 옛날에는 낚시를 허용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아빠와 같이 낚시를 하는 그런 추억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문화원 건너 쪽에 이 하천이 있는데 옛날에 거기서 아이들이 물장구 치고 뛰어놀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주민들은 또 여기에서 인생을 살면서 희노애락을 가진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멈추면, 개발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에서 시간에 멈춤을 했어요.

그다음에 어제 발표된 면적이 0.295km²예요. 그 안에 포크레인이 작업을 할 것이고 땅이 파헤쳐질 것이고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곳에 아스팔트가 깔릴 것이고, 건물이 들어설 것이고,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고, 공원이 생길 것이고 그런 많은 변화가 나타날 거다. 해서 이 삼색 신호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빨간색은 추억으로 이야기를 잡았습니다. 추억이나 기억, 열정, 우리 심장의 피가 열정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첫 번째 그림은 여기 오매기에는 꽃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꽃집에서 한 컷 찍은 것이예요. 그리고 이 꽃집에서 저희들도 그러잖아요. 텃밭에 심을 모종 사러가고 내 꽃 사러 가고 그런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오전상회, 옛날에는 상회 그런 말 안 썼잖아요. 점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서 알사탕도 사 먹었을 것이고, 이런 오랜 기억 속에 있는 것인데 어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오전상회 그랬더니 의왕 오전상회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낮에는 슈퍼를 하고, 밤에는 술을 팔고 그런 식으로 한번쯤 가볼만 하다.



임 지금 열려 있는 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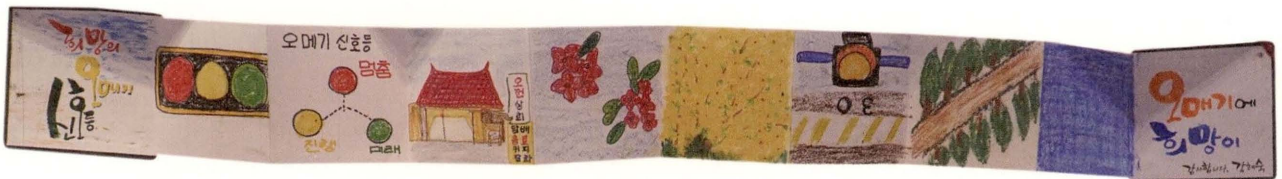
강 네, 여기 있어요. 오전상회. 굉장히 오래된 곳이죠. 비닐로 이렇게 쳐져가지고 테이블에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술 한잔 하면 분위기가 최고라고 그런 블로그에 또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다 아시죠? 많이 이용하셨을 거예요. 거의 다 이용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연애편지를 많이 쓰셔가지고 저기에 넣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추억을 잡았어요.

그다음 옐로우, 노란색은 기쁨, 흐름, 소통으로 잡았는데 시간의 흐름으로 설정을 했어요. 봄이 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색깔이 노란색이시죠? 그리고 그 노란색 중에서도 아마 개나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이예요. 그리고 점멸등은 신호가 없으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 노란색은 아이들 통학버스도 노란색이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이기 때문에 이런 교통안전에도 사용하고 있는 노란색, 개발 과정, 시간의 흐름을 나타냈어요. 그다음 파란색. 파란색은 희망, 균형, 어떤 변화, 조화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파란색에 하늘은요, 그날 가서 찍은 거거든요. 너무나 무 질은 파란색을 띄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하늘을 찍어 봐도 이렇게 선명하게 파랑과 흰색의 구분이 정확히 나타나기 힘든데 그날 날씨가 좋아서 인지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아까 이용기 씨가 보여준 저수지에 데칼코마니로 나오는 그 사진이 저는 참 좋은데 그날은 그게 잘 안 찍어 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물이 좀 흐려져 있었가지고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렇게 숙제를 하면서 정말 강인한 생명력, 생명 검색 많이 해봤거든요. 강인한 생명력을 찍으면 뭐가 나오냐면 시멘트 바닥에 풀 한포기 나온 거, 보도블록사이 나온 풀 하나, 질경이 이런 것만 주로 나타나더라고요.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정말 강인한 생명력을 찾으려고 보니까 이제 찍어지더라고요. 파랑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꼭 질은 파란색이 아니라 파란색하고 초록색을 합하면 청록색이라고 이야기한데요. 그래서 우리 신호등을 볼 때도 잘못하면 '아, 그거 빨강, 파랑, 초록, 노랑이야, 파란불일 때 건너' 그랬더니 개그로 그날 그 애는 학교를 못 갔다고 하잖아요. 파란불이 안

켜지니까. 그런데 파란색으로 저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변화, 개발이 끝난
다음에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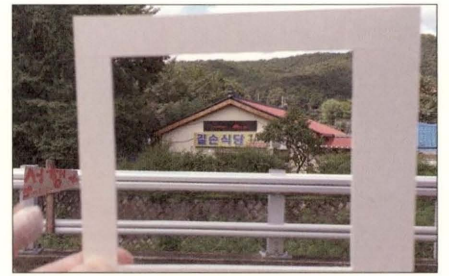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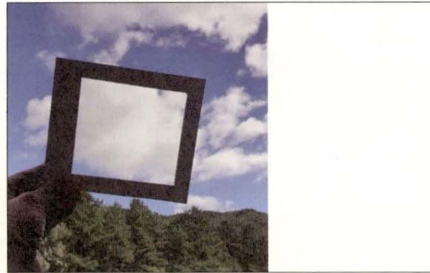
그러면은 이 오매기 신호등의 레드와 옐로우, 블루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타냈는데
이 시간의 흐름을 얘기했고요, 이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앞으로 오매기 마을은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오매기. 희망의 신호등이 밝혀질 거라는 이야기를
꾸몄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코디언북



박단경

박단경 참여자(이하 단) 저는 여행과 색이라고 했는데요. 오매기 저수지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썬글라스도 끼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분들도 만나고, 사물도 만나고, 생명도 만나고, 색도 만나고, 여러 가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만났던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막 걸어가고 있었어요. 의도하지 않게 뛰어가는 분의 발이 저한테 찍혔어요. 프레임을 제가 못 놓고 해서 손가락으로 프레임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색을 프레임에 넣어야 해서 색을 눌렀습니다. 하늘도 색을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그렸습니다. 후수가 하늘을 머금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오매기 저수지 배수로에 철판을 깔아놨는데 철판 색이 오묘하더라고요. 철판색이 물질과 닿아서 산화가 된 것 같아요. 산화된 색을 프레임에 넣어봤습니다.

여뀌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눈에 확 들어와서 여뀌를 그렸습니다. 이것은 쇼핑백인데요. 크레파스하고, 볼펜 나눠줬던 쇼핑백인데 이것도 색을 프레임에 담아봤습니다. 그 때 그녀의 여행 가방이 너무 멋졌고, 금방 떠나고 싶은 충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행가방을 그렸습니다. 네, 바로 저분의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프레임에 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날 잠시 제가 쓰고 있던 모자인데요. 선생님께서 소품을 많이 가져오셨어요. 근데 그 모자랑은 제가 똑같이 못 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표현은 모자로 이렇게 해서 색을 해서 넣어봤습니다. 모자가 참 예쁘죠. 제가 잘 그린 것 같아요.

아코디언북



그래서 저기에 저의 가방과 그 아까 그 종이봉투와 모자가 프레임에 갇혀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방은 또 못 그리고요,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것도 프레임에 넣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커피를 그날 너무 마시고 싶어서 선생님 댁에 가서 마실까 여기서

마실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 앞에서 혼동을 느꼈어요. 들어갈까 말까 들어갔는데 안됐다 어쨌다 해서 이 앞에서 굉장히 많이 충동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저 색이 너무 괜찮아서 이 색도 프레임에 가렸습니다. 그날 갈증이 많이 났고요. 고마운 물이 떠올랐어요. 여행을 하면서 필수적인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떠올라서 그려봤어요. 지나오는데 저 문양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화장실인지, 창고인지 모르겠는데...

강 오전동 마을회관이에요.

단 네, 그날 너무나 마시고 싶었던 커피를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저쪽 빨간색하고 이 색하고의 배색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이 길손식당이 사라질지는 모르는데 여행다니다 배고프니까 마지막으로 길손식당을 넣었고요. 그래서 오늘의 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참여자 저는 방영경 작가가 내준 미션을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색깔을 선택했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두 가지를 할까, 세 가지를 할까, 다섯 가지를 다할까 고민하다가 다섯 가지 다 하는 건 욕심인 것 같아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색깔을 했는데 그렇다면 색깔을 어떻게 나타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서도 색깔이 다 파랑, 초록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잡아내지? 라는 생각을 많이 고민을 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ppt를 만들면서 제일 대문에 뭘 넣을까... 색깔인데 그냥 색만 넣자니 너무 심심할 것 같기도 하고, 표현을 어떻게 나타내지 하다가 ‘눈길을 끌다’라고 작은 제목을 달아봤고요.

사실 이 사진은 제가 원했던 사진은 아니에요. 근데 사진을 찍었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제가 원했던 거는 이거였거든요. 그때 그 현장에 저는 미래유물이라는 것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 나의 생각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입은 옷, 가지고 있는 물건 이런 것도 지금 현재의 모습이니깐 그걸 담고 싶어서 그때 같이 간 우리 조원의 옷을 찍었어요. 색이 유난히 튀는 옷을 입고 와서 노란색 빛이 도는 옷을 찍었는데 그 옆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툭 튀어나왔네.... 오히려 처음에는 이게 눈길을 끌었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이 가방이 눈길을 끄는 거예요. 저 멀리 초점도 안 맞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 내가 발표할 때 처음에 이 사진을 써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의도 하지 않았지만 내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사진이 내가 원하지 않는 걸로 찍혀 나타나거나 그리고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도 보이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날 이렇게 보면서 색깔이 다른데 초록빛이 가득한 이 세상에 가만히 보니까 그때 우리가 시간이 오전 중이라서 해가 일부는 비취지고, 일부는 안 비취지고... 비슷한 색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빛이 비취지고, 안 비취지고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찍어 봤어요. 그러면서 물에 비친 모습도 같이 비교가 되게끔 찍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작게 찍었어요. 좀 더 프레임을 크게 안 하고 더 작게 하면 어떤 모습일까 봤더니 이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초록이지만 좀 다른 초록, 하늘이 물에 비친 하늘이지만 좀 다른 하늘색, 다른 구름색 이게 보이더라고요.

아까 우리 앞에 이용기 선생님이 있는데 지나가는 데 저 나무가 눈에 확 띄더라고요. 어, 하트네! 근데 하트 안은 까맣고. 그 주변에는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색 나무색이네. 그리고 그 옆에는 초록색이 같이 대비되네. 색깔이 이렇게 명암이나 빛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걸 점점 더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바로 이 나무거든요. 이렇게 멀리 찍고 가까이 찍고 프레임을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 다르고, 거리 조절에 따라 달라서 분명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인데도 색깔이 이렇게 달라지게 나타나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천이 있는데 정말 별초를 한 거죠. 제가 이 주변은 늘 다니긴 했는데 늘 여름이면은 풀이 우거져 가득 찼는데 이제 추석이 다가와서 별초작업을 하셨나 봐요. 근데 늪은 호박 두개가 딱하니 있는 거예요. 어 신기하다. 그리고 어떻게 재는 저기 있을까. 그리고 별초하시는 분들이 왜 저기다 뒀을까. 바로 바닥에 두면 상하니까 올려뒀겠지만 이 색깔에 묘한 대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컷을 한번 담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지나가다가 우리 작가님이 주신 프레임을 제대로 살린 사진 같아서 제가 넣어봤는데요. 이렇게 같은 초록색인데 아까 두 개 말씀드렸죠. 계속 빛에 의해서 한쪽은 그늘지고 한쪽은 비취지고 같은 색깔이라도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이걸 더 느끼게 되어서 넣었구요. 이거는 길가의 아스팔트와 초록의 나무, 초록의 풀, 그다음에 노란 꽃. 이렇게 대비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눈에 띄어서 사진에 담아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도





빛에 의해서 이렇게 색깔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다음, 가을의 파란 하늘. 파란하늘만 있을 때는 합성 같은데 구름이 잠깐 왔다 갔어요. 아 이거 자연입니다. 순수한 자연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하천변에 있는 은행나무였는데 이제 계절이 가을에 접어들었나 봐요. 색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은행잎 가운데 끝부터 노랗게 변하고 있어요. 늘 제가 버스 타고 다니는 길이라 자세히 못 봤지만 이날 걸어서 다니면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거. 그랬더니 어느덧 계절은 가을로 접어드는구나. 초록색 은행잎이 묘하게 좀 노란 빛으로 물들고 있는 거를 보면서 좀 더 계절의 변화를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진은 저희 조에서 이른바 스팟이었어요, 핫스팟. 다들 여기서 사진 찍었는데 저도 여기서 찍었는데 노란색. 노란색 밑이 좀 있죠. 근데 약간씩 달라. 이건 난간의 황토빛. 그리고 이게 전구인데 좀 더 형광빛이 있는 노랑, 보도블록의 보호대죠, 노랑 그리고 초록. 이렇게 한 프레임에 의도치 않게 담았는데 비슷한 색이 나타나는구나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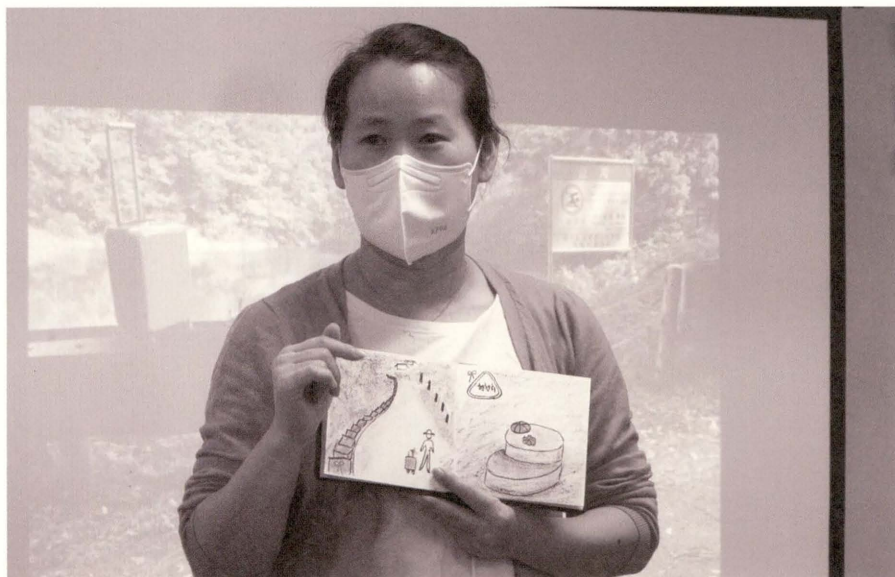
이렇게 제가 색을 보니까 빛에 의해서 내지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계절에 의해서 그리고 미처 보지 못했던 자각을 하는 순간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코디언북



전태훈 참여자 저는 부곡동에 살고요. 저희 동네 골목골목도 모르는 제가 오매기 마을은 처음 가봤습니다. 제가 영경작가님을 선택한 이유가 한 가지였어요. 코로나시대에 공동구역을 금지 리본으로 감았는데 그게 어찌면 선물 같은 공간이었다. 그래서 리본을 감사의 마음으로 단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 멘트 하나에 꽃혀가지고 그리로 갔는데 거기에서 저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여행자와 감사.

모여서 출발을 하는데 어머니 이거 큰일 났네,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지? 최근에는 제가 운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해 주는 사람의 차를 타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다른 분이 운전해서 뒤에 앉아 가는데 정말 좋았던 거는 가는 중간에 평소보다도 더 자세히 봤어요. 뭐가 보였냐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보였어요. 평상시에도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린이 보호 구역이래요. 그러면 나는 보호해 주지 않네? 삐딱선의 생각을 좀 하면서 제목을 그래서 '편견 있는 생각과 시선의 여행자 전태훈' 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제 가방을 들고 나오고, 가방 갖고 나오는 것 자체가 나에게선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사실은 이걸 또 사진을 찍어 갖고 와서 무슨 진짜 작가처럼 이렇게 콘티 그려가지고 다시 들여다보니까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잘라가지고 다시 배열하고 그리다가 보니까 섞였더라고요. 이제 어디로 가나 했는데 오매기 입구로 들어갔을 땐데 좀 전에 정희 선생님 사진에도 나왔죠. 이렇게 쪽 울타리 밑에 이 부분은 일부 정도만 정리가 돼 있었어요. 잡초가 정리가 돼 있었는데 그 정리된 안쪽에 누군가가 이렇게 수고해서 정비도 다 해놨는데 완성을 시켜준 거예요. 최근에 제가 한 5년 정도 일을 하던 그룹에서 저는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올 때 그때 생각은 '아, 나 생활문화 작가 되 거야' 이랬는데 진짜 생활문화 작가는 이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컷 일하고 기분 전환으로.



제가 또 이것도 그래서 감사하다고 리본을 달았고, 낯선 곳에 저수지를 먼저 갔을 때도 처음에는 이용한 방법은 난간이었어요. 난간 펜스에 리본을 달았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안전을 위해서 해줬던 거예요. 나는 처음의 생각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나는 비보호였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알고 보면 곳곳에 나를 보호해주던 곳이 이렇게 많았던 것을 감사하게 됐어요.

이것도 잘 모르시죠, 천천히. 이게 표지판인데 실제로 천천히 슬로우 표지판은 반대예요. 삼각형이 역삼각형이더라고요. 잘못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슈퍼 앞에 울타리에 조명 달아놓은 건데 여기 보면은 진정한 생활 예술인의 작품을 만나고 나서 내 생각 주머니가 이렇게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감사하게 리본을 달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빼막선을 처음에 넣었어야 하는데 배열을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조금 속상한 거는 뭐였나면 이게 엄마 손 잡고 가는 아이. 이것도 지금 좀 논란이 많기는 하죠 이 시대에. 근데 지금 제 손을 잡고 같이 나들이 가는 아들, 딸들이 있기는 한데 개들이 이제 내 손 잡고 안 나타나는 거. 그래서 혼자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게 좀 앞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비보호가 절대 아니었고, 가는 곳곳마다 여기는 위험합니다. 접근금지, 여기는 진입하면 안 돼요. 잘 못가면 어때 유턴해서 돌아가. 어 갈림길도 나오네... 갈림길이 나왔을 때 그냥 선택해서 아무 데나 가. 근데 내가 살아가는 이 날도 마찬가지로 선택도 왔다 갔다 하고 어느 날은 번덕이 열두 번도 더 바뀌는 갯년기를 앞두고 있는 아줌마인데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은 맨날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이 마지막은 어느 집 상가 가게였던 것 같은데 가게 주차장 입구, 울타리를 장식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지나가다가 보이길래 안쪽에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와서 사진을 찍었어요.

결국에 나는 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고민고민 걱정하면서 갔는데 여기에서 시선이 멈춘 건 내 추억이 아니었을까. 우리 집 담장 닳아가지고... 결국에 내가 보고 싶었던 건 코로나 때문에 핑계 대고 잘 안 가던 친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세 히 보면 큰일 나요. 그리고 사진 보면 실망합니다. 여기서 다 칭찬해요. 그래서 밖에 자꾸 나와야 돼요. 오늘도 칭찬받으면서 힘나서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코디언북



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작가들의 생각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작가들 입장에서 어떤 의도로 첫 번째 워크숍을 준비했고,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어땠는지 얘기를 짧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영경작가 9월 1일 첫 날에 우리가 문화원에서 만나서 선생님들께 제안 드렸던 거는 좀 가볍고 기존에 바라보던 방식이 아닌 조금 새로운 방법으로 주변을 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고민 끝에 다섯 가지들을 제안을 드렸는데 진행을 하면서 이것도 너무 일상적인 방법이나 시선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 그리고 프레임 같은 것을 사용한 게 또 다른 틀을 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선생님들도 정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또 진행을 하면서 저도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나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뭔가 각 주제마다 어떤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준비는 했지만 이게 또 실제로 그 현장에서 사용되어지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사용되지 않고 익숙한 방법으로 선생님들이 원래 보던 시선과 흐름으로 이어졌던 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 와보는 공간이다 보니까 잘 몰라서 선생님들의 안내를 따라 이동을 하게 됐는데 원래는 조금 머물고 앉아서 그림도 그리고 그런 시간적 여유를 보내면서 각 장소마다 관찰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그날 날씨가 햇빛은 뜨겁고 저희가 마침 간 장소들이 그늘이 없어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이 근방을 돌아왔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많이 머무르지 못한 부분은 아쉽고 저는 유물이라거나 그 단어에 포커싱이 되는 것보다 그냥 그 순간에 선생님들의 감정 그런 게 조금 더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워크숍을 생각 했거든요.

그래서 사물이나 어떤 색깔은 고정되어 있지만 그것을 바라봤을 때 내 감정에 따라서 색도 달라질 수 있는데, 같은 초록이더라도 어떤 사람 눈에는 그게 초록이 아니라 빨강으로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겉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의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감정, 느낌 그런 게 다 담겼으면 좋겠다는 출발이었는데 그런 의도를 저도 잘 전달을 못 드린 것 같고 설명이 좀 부족함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고, 선생님들이 유물이라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지금의 선생님들이 담겨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선생님들이 찍어주신 사진이랑 설명 들으면서도 더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근데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또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그 장소들을 바라보셨는지 그때는 미처 이야기 못 나눈 것들을 좀 깊게 지금 시간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끝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다음 주에 찾아갈 공간, 장소에서는 어떤 것들을 찾아보면 좋을지, 무엇을 담으면 좋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또 어떻게 전시랑 연결될 수 있는지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임 어찌됐건 간에 저는 들으면서 이야깃거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야기들을 이제 뭐 할지 오늘 한 번으로 하면 될 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그런 걸 따라가 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되게 흥미롭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5분만 쉬었다가 굿이 작가 그룹의 이야기로 이어가볼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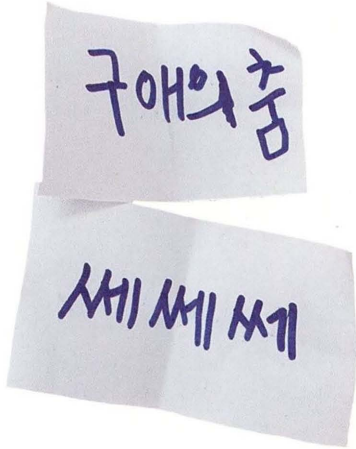
임 아까 보니까 우리가 함께하긴 했지만 기억하는 방식이나 오늘 일주일 후에 나누는 어떤 이야기들이 되게 다를 수 있거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굿이 작가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둠의 진행을 해주세요.

김굴이 작가(이하 굴이작가) 저희 조원 하이드(원은경) 님께서 여기를 가자 하셔가지고 장소를 정하게 되었는데요. 원터마을에 있는 쾌이굴(하이드님 농장)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크고 작은 바위들이 모여 있듯이 모여 있어요. 거기서 이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제가 드렸는데 그런 제안을 드린 이유는 그 장소를 기억한다는 거는 나를 체험하는 일이고 나를 체험하는 게 또 장소를 기억하는 일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고, 저희는 굉장히 활동적인 행동을 했고요.

그 사진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저희가 광장에 모여서 준비 운동을 하고 이게 그 바위예요. 돌을 만져보기도 하고 그 돌 위에 올라가서 저희가 특정 지령을 드렸거든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지난번에 발표에서도 살짝 언급 드렸지만 다리짚기 또 올기, 한탄하기 이런 등등의 이 장소와는 연관성이 없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해보자,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체를 기억하고 우리의 행동을 기억하고 이 장소를 또 기억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런 활동을 했고, 약간 퍼포먼스처럼 이루어졌어요.

이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행동을 하는 거에 내가 얼마만큼 빠져 있고 이 돌과 이 장소가 얼마나 상호적으로 교감을 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너무 좀 겁을 내시면 어떡할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발표를 했을 때도 저희도 두 명밖에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랬는데 막상 (지령) 제비뽑기하기 전까지는 ‘어떡해요, 선생님’ 그러셨던 그분들이 막상 뽑고 나서 정말 잘 수용해주셨어요. 사진으로도 그런 게 좀 보이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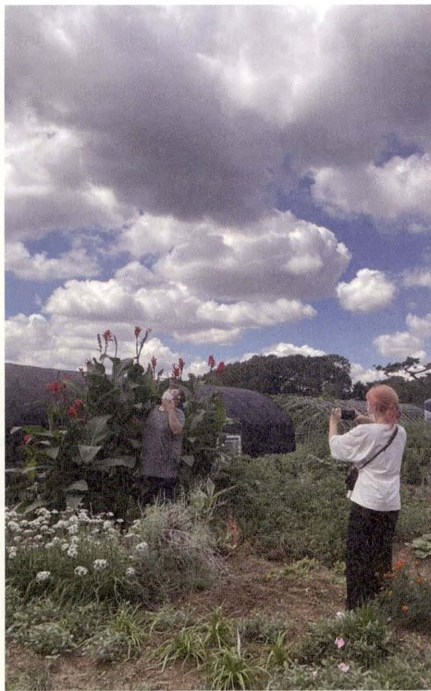
이게 편집된 영상은 아닌데 이 지령은 탭댄스 추기였어요. “잘 추는 비결이 뭐예요?” 라고 여쭙았는데 “미치면 돼요.” 라고. 이 지령은 귀여운 척 하면서 장소와 수다떨기였어요. 딱 보면 아시겠죠. 다리 짚기였어요. 이렇게 간단한 저희 활동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 이런 행동을 할 때 조금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템포가 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표를 할 때는 그림일기를 그려서 구연동화를 구현하듯이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따로 ppt를 준비하지 않았고 그림일기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그렸던 그림일기를 통해서 발표를 해 주실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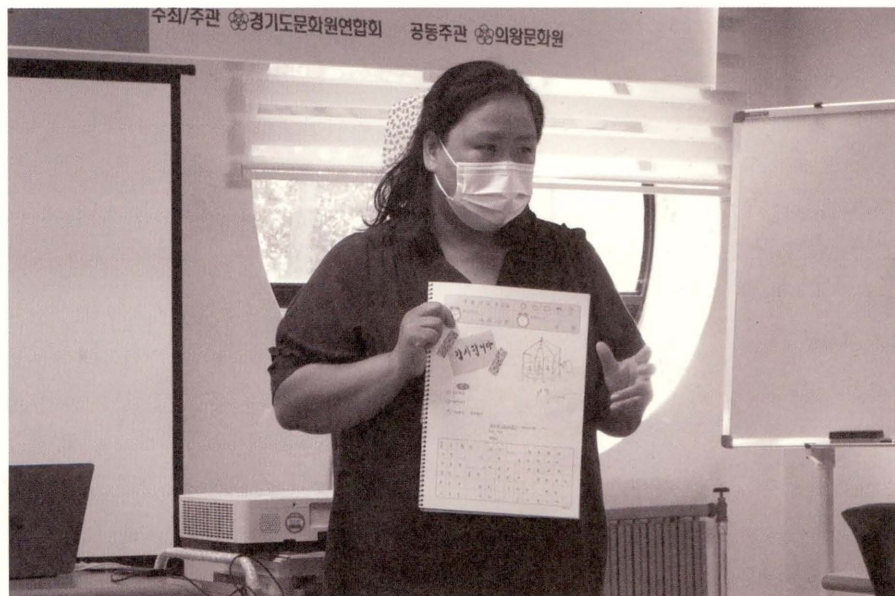
"잘 추는 비결이 뭐예요?"

"미치면 되요."



원은경 참여자(이하 하이드) 안녕하세요. 사실 먼저 맞는 때가 좋다고 내내 떨리고 긴장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미션을 통해서 느낀 것은 내려놓음이에요. 많이 내려놔어요. 이거를 보고 나서도 더 내려놔고 그리고 이 스케치북을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오늘 새벽 2시에 그렸습니다. 제가 이 교육을 위해서 사실은 다른 일이 있는데 그걸 하나를 줄였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도 일하고 그런데 그만큼 여기 오는 게 너무 소중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해야지 했는데 금방 수요일이더라고요. 새벽에 일기장을 봤는데 이 학교하고 학년하고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왕문화원학교에 4학년 2반 하이드라고 썼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첫 장을 어떤 걸 그럴까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한참 한 시간을 멍을 때렸어요. 앉아서 이 교육을 통해서 난 뭐가 좋을까 했는데 감사가 밀려오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농장에서는 제가 항상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선생님들 오실 때는 말을 좀 들어보고 우리 굴이 썸이 하는 대로 그대로 내려놓고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수요일 날 했던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즐거웠던 하루였고, 행복했던 기억들과 다시 또 설레어지는 수요일이 또 왔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플러스 떨리는 수요일. 저한테 많은 감정들을 주는 수요일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배움은 좋은 분들과 함께여서 오늘이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 순간들의 감사. 말은 솔직히 잘 못하지만 한분 한분 보면서 낯설고 그렇지만 같이 국민 체조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제비뽑기가 있는데 우는 척하기인데 제가 사실은 우는 척을 모르고 우는 연기하기로 알았어요.

영상 찍으니까 재미있게 찍어야지 하면서 막 연기를 하려고 각자 포즈를 잡았어요. 돌에서 그냥 제가 우는 연기 하려고 했는데 울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울어지지? 그래서 제가 빨리 울어야 돼. 지금 카메라 돌아가고 있어. 울어야 돼 라고 하고 있는데 안 울어지는 거야. 난 왜 안 울어지지? 하고 딱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미션 할 때 우는 척하기라고 얘기해 주는데 근데 '척'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울고 싶지 않는데 울려고 하는 자신도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돌을 잡고 나 빨리 울어야 돼. 어떻게 사물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참 됐더니 이제 다른 분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 돌한테 느끼는 바가 '괜찮아'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돌이 '괜찮아, 우는 척 안 해도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제가 계속 누리고 있고, 이렇게 숲명도 하고 빛명도 하고 또 등산로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등산객들이 없을 때는 사실은 동네 아이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 나무가 있어요. 그럼 나무 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등산객들이 지나가면서 나를 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습관인데 자연을 보면서 사실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 소나무 같은 거 강한 생명력을 느끼고 또 순간순간 변하는 거. 그다음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농사는 잘 안 돼요, 어쩔 때는. 그러면서 내려놓음. 농사 10년, 다른 거 10년이면 박사 되고 그러잖아요. 농사는 하면 할수록 너무 새로운 개척지고 너무 신비롭고 되게 낮아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계속 자연만 생각했어요. 근데 한 10년째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여기 오시는 사람들,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 그래서 오늘 이런 미션도 하고 오늘 순간순간 이런 모임을 통해서 자연, 사람 그리고 나도 잃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척하면서 많이 살았는데 그 모습 또한 괜찮다. 지금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제 서서히 변하는 모습도 괜찮고 그리고 우리 농장을 통해서도 개발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우리 그때 배울 때 도룡마을 하고 이제는 오매기까지 그때 마지막 멘트가 “저 농장 잘 지키겠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건방졌던 거예요. 변화의 흐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있는 이 순간과 지금, 지금 발표하는 이 순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미래의 고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좀 부족하지만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일기장

()

9 월 15 일 수요일

일어난 시각

2 시 00 분

잠자는 시각

시 분

미션

① 쿠키 제조

② 유채화하기

③ 귀여운 것 · 수다 떨기

활동 (중독미션) → 다른 선생님과 ... 하기

- 다리 짚기

- 행진소.

즐	기	웠	딘		하	우	...	행	복	했	던	
기	덕	...			다	시	또	실	려	여	지	든
수	요	일	...		배	울	은	생	물	과	도	
갈	타	...	중	은		분	들	과	함	계	하	든
오	른	이			매	우		기	데	가	되	든
수	요	일			이	다	...	감	사	합	니	다

PENPIA

문희숙 참여자 저는 우선 마을큐레이터 단어를 듣고 여기 처음 왔을 때 나도 저런 지도에 어디에 뭐가 있고 이게 없어질 거니까 비포, 에프터를 남기는 그런 작업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수업에 두 작가님의 프로필 아닌 프로필을 보면서 각자의 개성을 보면서 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가는 길에 우리 은희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죠. 두 분 다 받아들이실 수 있고, 두 분 모두 엄청난 시너지를 갖고 있겠구나. 그래서 두 분 다 모두 좋은 에너지인데 선택의 여지없이 굴이 쌤이 담당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림도 저에게는 약간 해매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케치북을 주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 학생이에요. 그래서 뭐뭘뭘 학교 학생 쓸까 하다가 여기에는 지금 학생인데 초등학교를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굴이 쌤을 만나는 순간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전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회상을 한 거죠.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했을까. 일기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그래서 우선 이름을 썼습니다. 2021년 가을 이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큐레이터를 언제 하는가를 남기는가가 중요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삶에 대한 감각 스위치를 온전하게 느끼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느꼈냐면 우선 원터마을을 어떻게 가야할까 되게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뚜벅이였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처음 시도하는 길로 갔어요. 보통은 인덕원에 가서 마을버스를 타고 가고, 1년 전에는 다른 사람의 차로 갔는데 오늘은 다른 길로 가보자. 그래서 제가 요즘 고속도로 톨게이트 마다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청계IC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처음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톨게이트에서 그 고속버스를 환승해서 내려서 갔는데 버스가 안 서는 거예요. 보통 여기 의왕IC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돼 있고 저도 올해부터 갑자기 의왕IC 톨게이트를 이용하게 됐었는데 청계 톨게이트에서 버스정류장은 있는데 사람이 오가는 길, 마을과 연결되는 길은 안내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폼을 입은 아저씨들한테 물어봤어요. 청소하는 미화원분들한테도 물어봤더니 그분들 역시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선 저쪽 길 건너에 큰 휴게소가 있으니까 지하도로 건너보자 했어요. 약간은 오매기 마을과 비슷한 느낌이었었는데 그 고속도로 전체가 지하 터널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무서운 터널을 혼자 뚜벅뚜벅 걸어갔더니 나온 지 얼마 안돼서 하우현 성당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기부터는 하이드리 농장 가는 길을 아니까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가 되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찾아가는데 그래서 가는 길! 처음으로 청계 톨게이트 아래 있는 길을 한번 이용해봤다는 것도 저의 그거였고 일기는 웬지 오늘 이라고 쓰지 말라고 하지만 오늘이라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오늘은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하차 후 원터마을에 갔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원터마을 하우현성당과 하이드리농장 반갑다. 자연아~’ 라는 내용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아까 전에 우리 굴이 선생님이 사진을 저장 똑 같은 거 보여주셔서 마음이 아팠는데,

‘몸 풀기 운동으로 국민체조를 시작했다. 간단한 몸 풀기 운동이었지만 초등학교 시절을 회상하고 저질 체력을 확인했다.’ 우리 굴이 선생님이 제일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날 우리 굴이 선생님이 대한 비하인드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요. 제가 이따 공개 하겠습니다. (웃음)

다음 저의 첫 번째 미션은 우는 척하기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농부예요. 30년 되는 농부이시고 쌀농사까지 직접 지시는 그런 농부이신데 제가 작년에 하이드리 농장을 갔을 때 나도 은경 선생님 같은 딸이 될 수 있는데 엄마랑 좀 멀리 산 게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서 부모님 생각이 난다. 뜨거운 햇살 아래 벼들 익어가는 소리도 들리고, 부모님의

땀방울도 바람을 타고 다가온다.

이렇게 바위에 앉아있는데 제가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물어봤어요. 아버님 지금 저쪽 어디에서 돌 움직이고 계셔야 되는데 아버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년 전에 뵈었던 어머님의 모습은 꽃을 따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 가지고 꽃차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어머니도 또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 장소를 내가 갔던 그 기억을 회상하게 되더라고요. 아버님도 찾게 되고 어머님도 찾게 되고 그리고 저희도 지금 토지법이 많이 변경이 되면서 농장에 있는 그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을 좀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30년 동안 멀쩡히 있던 컨테이너 박스를 반으로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하이디농장도 똑같은 고충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비닐하우스도 새 단장이 되었던 거예요. 아, 이전 우리 필요가 아니라 정책이 바뀌면서 불필요한 일들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해야 하는 구나. 그리고 또 그린벨트 지정 지역이어가지고 나무를 또 급하게 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적인 여유를 줬으면 좀 더 좋은 나무를 좀 더 정성과 내가 필요에 의해서 심어야 되는데 보통 나무를 심는다면 장기 계획을 가지고 나무를 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거리 두기를 넓게 넓게 줘야 나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이것도 나무에 대한 제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이런 정책들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지요.

그다음에 국민체조로 전체 미션이 있었거든요. 국민 체조를 하면서 엉덩이로 그림을 그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국민체조도 가물가물한데 지금 엉덩이 그림까지 그리라고 하니까...

‘옴치, 박치인 나에게 두 가지 지령을 한 번에 하는 건 어려웠다. 그래서 엉덩이로 국민체조를 도전했다. 해바라기가 나를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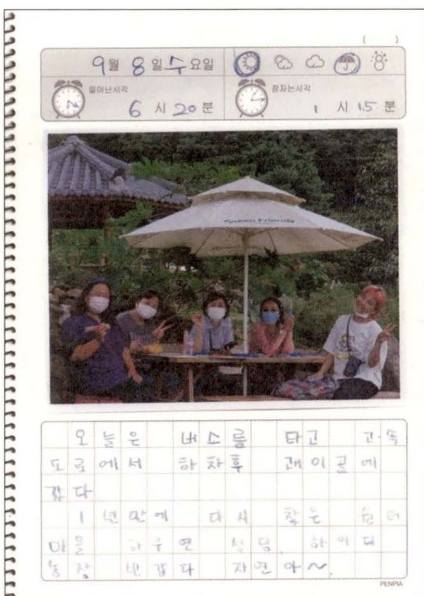
이날 해바라기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하이디 농장에 있는 꽃 사진도 많이 찍었었는데 이제 자연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를 좀 줬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농사를 지으니까 이때 되면 무 하고 배추를 심어서 가을걷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보이지만 해바라기를 볼 수 있는 여유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농장에 가면 풀이 나를 부르고 열매가 나는 부르고 해서 그쪽에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되지 꽃은 관심을 갖기가 힘든데 오늘은 일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션을 잘 뽑아야 되는데 두근두근 하면서 두개를 뽑으라고 그래서 저는 창의적 포즈, 다리찢기를 선택했지요. 두 개를 한 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구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체력이 약하니까 도구를 좀 사용해서 찍는 방법을 했습니다.

‘창의력 포즈, 다리찢기는 상상력이 부족한 나에게 굴이썸의 에너지를 충전하여 도전. 바위야! 미안하고, 고마워. 함께 있어 든든해. 나도 작가에 도전하는 오늘의 친구가 돼준 바위에게 사랑해 그리고 감사해요.’

바위가 없었으면 이렇게 저는 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서 바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 봤습니다. 이거는 그날 사진인데요. 굴이썸을 저는 그날 많이 사진을 찍었었어요. 굴이썸이 사진 잘 안 보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포즈! 그 다음에 굴이 썸이 벌을 너무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을 무서워하는 사진들을 제가 다 담았거든요. 저희 팀에 그냥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원은경 썸이 가지고 있던 일기장 그림이에요. 원래는 내가 잘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바위 위에서 우는 내 모습인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다 플러스 알파로 담아온 거거든요. 그림을 잘 그렸으면... 이렇게 그리지 않았으면... 하는 섭섭한 마음이 있고요. 그날은 우리에게 소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때 보면 화판에다가 스케치북 들고 소풍 가잖아요. 그날은 나에게 소풍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9월 8일 수요일

일어난 시각

잠자는 시각

쿨	이	턴	무크	셀	시작!	물
플	기	운	동	국	민	체조
간	단	한	몸	플	기	운
학	고	체	육	시	간	을
저	질	체	력	을	확	인
땅	난	다	땅	나		

PENPIA

()

9월 8일 수요일

일어난 시각

잠자는 시각

우	는	적	하	기	미	션
동	부	의	딸	이	농	장
부	모	님	생	각	이	나
하	살	아	래	버	들	이
소	리	도	들	리	고	부
방	울	도	바	람	을	타
온	다					

PENPIA

()

9월 8일 수요일

일어난 시각

잠자는 시각

국	민	체	조	하	며	영
림	그	리	기			
몸	치	박	치	인	나	에
지	를	한	번	에	어	려
영	탈	이	로	국	민	체
해	바	라	기	가	나	를
되	대					

PENPI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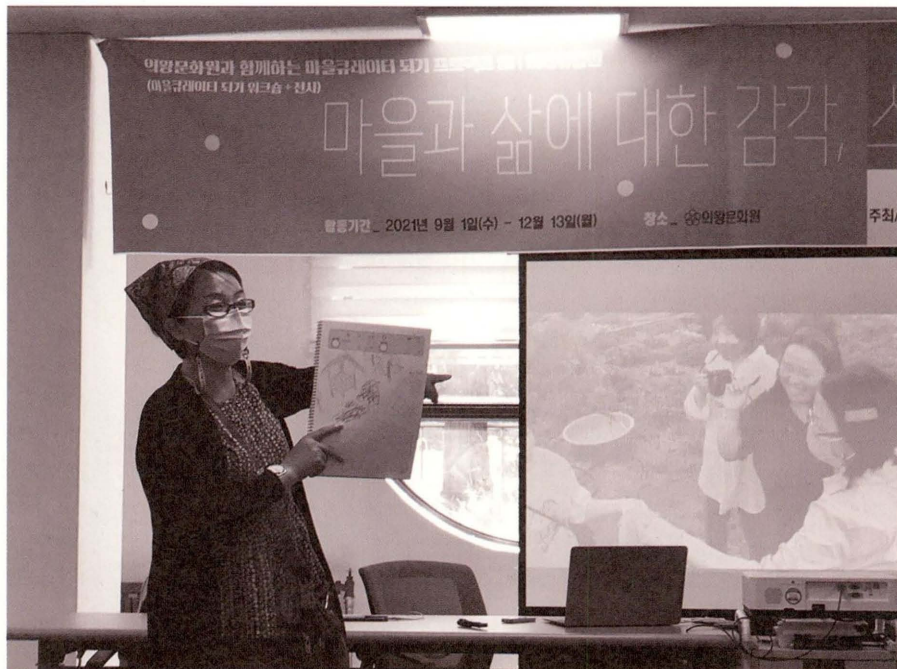
9월 8일 수요일

일어난 시각

잠자는 시각

찬	의	진	도	즈	다	리
려	이	부	족	한	나	에
의	에	너	지	를	충	진
바	위	야	!	미	안	하
함	께	있	어	들	든	해
도	전	오	늘	의	친	구
강	해	그	리	고	감	사

PENPIA



박찬덕 참여자(이하 놀자) 저는 이 그림일기, 스케치북 그림일기? 어쨌든 한 50년 만에 처음 봤어요. 제가 직접 해본 거예요. 우리 애들이 학교 다닐 때 했었지만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는 스케치북이 아니고 공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스케치북 그림일기가 있다는 걸 내 나이가 조금 있으면 60이니까 처음 알았어요. 근데 거기 가서 지금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셨고 사전에 여기 지금 영상들을 보셨으니까 아셨겠지만 저는 처음에 굴이 작가님이 브리핑을 할 때 이걸 잘 듣고 있으면서 아무도 안 가고 나 혼자 하겠구나 생각했어요. 아무도 신청 안 할 것 같았는데 은경 쌤이 딱 해 주시길 갖고 그림 둘이 하면 되겠구나. 나중에는 두 분이 또 오셔가지고 4명이 했는데 우리 정말 그날 하루가 너무 유쾌해서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선생님들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나이가 들면 박장대소, 파안대소라는 걸 할 기회가 거의 없죠.

그날은 말 그대로 시종일관 파안대고, 박장대소. 그래서 정말 하루가 엄청 행복했고 제가 앞으로 비 오는 날 가고 싶은 최애 픽! 약속했어요 저랑. 제가 거기 갔더니 그날 날씨가 오매기가 하늘이 정말 좋았잖아요. 거기는 산하고 밭하고 건너편의 하늘이 일체형으로 어디 그렇게 멋진 그림이, 그렇게 멋진 사진 저는 못 봤어요. 그렇게 너무 좋은 날씨 중에 더 좋았던 거는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정말정말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정말 너무너무 좋았고요. 거기 가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낮에 햇살 좋은 날도 좋겠지만 은경 쌤네 하우스도 지어놓으셨는데 그거를 그 안에 앉아서 빗소리를 듣고... 제가 시골에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제 기억에 마당에 함박꽃이 있었어요. 작약이 있었는데. 비 오는 날 마당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작약으로 비가 툭툭툭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막 꽃이 춤추면서 거기에 떨어진 빗방울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 딱 갔더니 여기에 앉아 있으면 그걸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막 줄랐어요. 비 오는 날 꼭 번개 쳐주세요. 그럼 제가 막걸리 사갈게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가도 될 것 같아요. 아외고. 그러니까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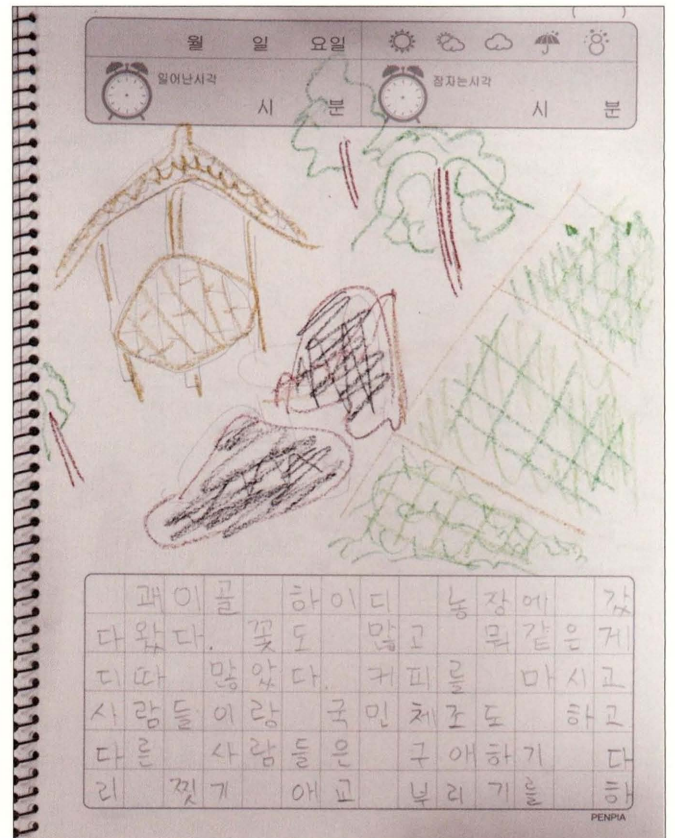
제가 이거 하면서 굉장히 설렜던 게 사실은 저는 그림일기를 써본 세대는 아니에요. 그림일기 써본 세대는 아니고 그림도 잘 못 그려요. 이렇게 보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랑 이렇게 달라요. 거기 그렇게 멋진 원두막이 제 기억엔 요기 이렇게 뽕죽 쑤던 샷갓같이 생겼던 그 지붕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당에

이렇게 넓게 마루가 있었는데 이게 팔각정이었는지 사각정이었는지 그런데 고민하다가 그린 게 삼각정을 그렸어. 삼각정은 없었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애초에 거기를 선택했던 게 패이골의 바위들이었잖아요. 이 넓직한 게 바위에 아까 희숙 쌤 앉아 있는 바위도 그렇고. 밭에 왜 이렇게 이런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저는 생각했던 게 밭에 이렇게 한 가운데 바위가 있는데 농사지면서 이걸 왜 안치우지? 나라면. 내가 농부라면 그걸 치워서 평평하게 개간을 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걸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있는 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감나무예요. 풋감이 열려 있었는데 숨씨가... 여기가 이제 지금 각각 다른 작물이 심어져 있는 밭이에요. 제가 그걸 표현하려고 애는 꼬불꼬불 그리고 애는 사각무늬로 그리고 애는 뽕쪽뽕쪽 그렸어요. 그다음에 짜자잔~네, 제가 그렸습니다.

아까 보셨죠? 저기서 춤추는 애가 있고요. 여기는 쫘지머리 묶은 굴이 작가님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 사진에서 막 이렇게 뭐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우리 희숙 쌤은 다들 보셨다시피 몸매하고 상관없이 엄청나게 유연하시더라고요. (웃음) 그랬고, 은경 선생님 아주 귀여운 척. 이게 아스파라거스예요. 저는 아스파라거스라고 그린 거고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칸나꽃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우리 오늘 안 오신 은희 선생님이 구애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자기를 사랑해 달라고. 나랑 집에 같이 가자며... 칸나꽃을 잡고 오물이고 앉아서 하는 사진인데요. 이거는 제가 일기를 쓴 게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썼었던 방식으로 써왔어요. 오늘은 꼭 어디 갔다 해야 되잖아요.

‘패이골 하이드리 농장에 갔다 왔다.’ 다녀온 것도 아니예요. ‘갔다 왔다. 꽃도 많고 뭐 같은 게 되게 많았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썼어요. ‘커피도 마시고 사람들처럼 국민 체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애하기, 다리 찢기, 애고 부리기를 하고. 나는 탭댄스를 쳤다. 넓다란 농장에서 하늘거리는 바람을 맞으며 사람들하고 노니 참 재미있었다. 비 오는 날 또 오기로 꼭 약속하고 헤어졌다. 참 재미있었다.’ 우리 아들 일기는 참 재미있었다가 여러 번 나오고 마지막에 참 재미있었다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방식을 빌어서 이렇게 해봤고요.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굴이 작가님 감사합니다.

일기장



꽃이작가 오늘 세 분이서 발표하는 거 들으면서 굉장히 큰 선물을 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오늘 진짜로 선물을 받기도 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형용할 수 없게 기분이 뭐랄까 약간 간질간질한 기분이 들었는데 그리고 정말 제 귀에 쿵 박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또 하나 기억나는 게 하이드 님께서 이 순간이 미래의 유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말이 되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이 미션과 모든 이 진행의 핵심이 아닐까. 이런 순간을 정말 잘 체험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발표도 들으면서 좋은 부분이 또 몇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희숙 님께서 ‘해바라기가 나를 보고 웃는다.’ 이게 뭔가 하는 도중에 딱 마주친 거잖아요. 그런 순간이 되게 아름답게 느껴졌고, 그 아름다운 그 순간이 저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놀자 님께서도 그 그림을 처음에 보여주셨는데 제가 일부러 자세히 안 봤어요. 이 감동을 발표를 들으면서 느끼려고... 잘 그랬다고 하지는 않으셨는데 제일 디테일이 있었어요. 인물 한 명 한 명 그 행동과 몸짓을 잘 묘사를 해 주셨고 순간이 잘 포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동감 있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그림일기 제가 또 과제를 드렸는데 그거를 잘 어떻게든 잘 느끼시고 그 템포를 유지하려고 하셨던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 경험들이 저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제안 드린 거를 충실히 해온 느낌이 아니라 다 각자가 원해서 각자의 체험을 살려서 해 오신 느낌이 들어서 기뻐요. 그래서 제가 더 감사해요.

임 다음 주가 기대돼요. 제가 짧게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 잠깐 하고 다음 주에 아마 준비 할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모둠별 할 얘기가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각자 지난번처럼 마무리를 할 건데 그 전에 혹시 결과자료집이 이 선생님들에게 다 공유가 된 건가요? 파일로 받으시기도 하고 아마 실물이 있으시거나 파일은 필요하시면 pdf로 된 파일은 공유를 해드렸거나... 그래서 제가 최근에 17, 18년도 자료집을 다시 꼼꼼히 보고 있어요. 다음 현장 워크숍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또 만나잖아요. 그때 뭘 가지고 오시냐면 그때 (17, 18년) 했던 자료들 있죠. 갖고 계신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고 있을 거예요. 그때 했던 자료들, 실물들, 종이들, 낙서했던 거. 이렇게 메모했던, 그때 우리 드로잉북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아무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료들을 다음 번 개별 모둠 워크숍 할 때 말고 그다음에 오실 때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내일 준비물 챙쳐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하면 안 찾아질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시거나 2주 동안 좀 생각하시면서 이걸 가져가야 되겠다 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탐색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뭐가 있나 좀 찾아보는 시간들이 좀 필요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겠다 생각하시고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그때 작업했었던 거는 아니지만 그때 기억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되거나 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거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가져오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가 됐든, 지도하면서 막 덕지덕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한 거, 포스트잇 한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가벼운 전시 같은 걸 했었잖아요. 전시하면서 막 했었던 작업, 또 메모했던 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아무튼 아직도 남아 있네 하는 것들도 다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지금 우리 집 서재에나 상자에 뭐가 남아 있나, 내가 노트북에 컴퓨터 뭐가 남아 있나 이런 걸 조금 살펴보시는 시간을 2주 동안 가져보시라는 취지에서 미리 말씀드리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마을큐레이터 이 사업이 사실 매핑이 핵심은 아니고 하나의 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툴들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고, 그 툴에서 이 마을큐레이터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뭘까 저도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마을과 삶에 대한 어떤 감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취지였었고 또 하나는 그 삶의 당사자, 주체가 바로 내가 됐으면 좋겠다. 아주 대단한 예술가나 마을연구자, 전문가가 ‘의왕에서 이게 되게 소중한데’라고 말하는 것 말고 우리가 시민으로 살면서 각자가 느끼는 마을에 대한 어떤 거, 그게 무엇이든 유형의 것도 있고, 무형의 것도 있죠. ‘그 감각의 어떤 경험들을 조금 쌓아보자’라는 게 마을큐레이터에서는 중요한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인지적이라고 얘기하죠. 지식이나 책을 보거나 의왕 역사책 같은 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책을 통해서 의왕을 경험하는 거는 학교나 각종 강좌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뭔가를 알아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글자로 알기도 하지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내가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마음큐레이터에서 의도적으로 애쓰려고 했던 거는 느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애써서 해보자. 그래야 밸런스가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지금까지 왔던 것 같고 제가 오늘 느꼈던 거는 2017, 18년도에 했던 표정이나 말들, 언어가 상당히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과자료집이 파일로 공유가 됐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었더라 라고 하는 걸 좀 떠올려보시면 다른 느낌이 나고 그래서 그런 다름이 저한테는 중요한 어떤 요소로 다가오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했었던 말들, 문장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걸 떠올리시면서 그때 만들었던 자료들, 낙서들, 그림들 그다음에 포스트잇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2주 후에 가져오실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흥미로운 시간이었어요. 다음 주에는 영경작가 그룹에서도 같이 합류할건데 이거는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희가 따로 하기로 했지만 지금 의왕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각자 삶의 어떤 관심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훨씬 더 자연과 가까운 자리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의왕의 어떤 모습, 아까 신호등으로 표현을 해 주셨지만 되게 변화의 지점들이 있죠. 그렇다면 다음번엔 의도적으로는 굉장히 번잡스럽고 불편한 도시나 어떤 사거리나 교차로 어느 지점을 가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고민해서 두 그룹 안에서 장소나 방식이나 이런걸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결정이나 논의를 이제 모둠에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모둠 작업을 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 백

다섯 번째 워크숍
다섯 번째 워크숍
다섯 번째 워크숍
다섯 번째 워크숍
다섯 번째 워크숍

현장 워크숍 II 이후 경험 나누기

임재춘 퍼실리테이터(이하 임) 지난주 워크숍 전 날 비가 예보 돼 있어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카톡방에 비가 온대요, 어떻게 하지? 했는데 비가 오면 새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크게 변경하거나 이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보자. 왜냐하면 동네나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가 일상을 유지한다는 것이 비가 온다고 멈추고 이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동네에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게 비가 오지 않은 상태가 최고의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가 올 때 비가 옴으로써 뭐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대신에 또 새로운 어떤 되는 게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날씨에 우리가 했던 계획들을 좀 맡겨 봐도 되겠다.

그리고 혹시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계획한 대로. 근데 그 안 되는 거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았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불편했고, 뭐 때문에 어디까지 하려고 했는데 안됐고 이런 것들도 아는 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주에 모듬별 활동이 되게 궁금해요. 비가 오기에 더 미친년이 될 수 있었던 건지... (웃음)

박단경 참여자(이하 단) 절 쳐다보고 말씀 하시는 건지... (웃음)

임 아유~! (모두 웃음) 우리가 각 모듬별로 지난번에는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기도 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공유를 해보자는 과제 미션이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각 모듬별로 지난번에 했던 걸 공유를 해주시고, 오늘은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할 거거든요. 근데 오늘 다 하지는 못할 거고 시간상,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생각을 해 온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다예 썸이 수집할 수 있는 이전의 자료들을 챙겨오셨어요. 이따가 그걸 같이 보면서 전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모듬별로 영경 작가, 굴이 작가가 어떻게 했는지 문을 열어주시면 모듬별로 한명씩 나오시거나 자리에 서서 하시거나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런 거 같지도 않지만... (웃음)

굴이 작가 모듬에는 오늘 상 받으러 가신 분이 두 분이냐 계시데요. 못 오신 두 분 이야기도 다른 두 분이 채워서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굴이 작가 모듬부터 지금 시작을 해볼게요.





원은경 참여자(이하 하이디) 일주일 뒤에 보는 내 모습이 너무 낯설어

임 저게 난 가...? 인정하세요! (웃음)

(활동 영상 시청 중)

굴이작가 처음에 뽑으셨던 주제가 게 빙글빙글이었거든요. 공원에 훌라후프가 몇 개 쓸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다들 훌라후프를 들고 뭔가를 하셨어요.

강혜숙 참여자(이하 강) 저기가 어린이 공원이어가지고 물건이 많이 있어요. 줄넘기도 있고...

임 뒤에서 철봉 하는 사람이 더 웃겨. (웃음)

전태훈 참여자(이하 전) 걷는 것만 봐도 박찬덕 선생님 태가나요.

굴이작가 다들 부끄러워 하시면서도 되게...

임 지금 부끄러워하시는 건가요? 저게?

굴이작가 놀자 님은 어렸을 때 굴렁쇠 굴리기 이런 거를 자주 하셨다고 그러셔서... 어렸을 때 아주 잘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놀자 언니 신났네

조은희 참여자(이하 조)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몸 풀기를 했는데 오른쪽은 항상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왼손을 그리고 저 구멍을 내가 뚫고 갈 수 있을까. 반대 방향으로.

단 설명까지 좋습니다.

굴이작가 처음에 정해 드렸던 주제가 빙글빙글이었는데 훌라후프를 각자 들고 오셔서 각자 행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훌라후프를 동시에 굴려서... 이 놀이를 뭐라고 부르나요?

조 의미 없어요. 그냥 하다가 놀아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굴이작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분리수거장에서 무궁화게임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원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술래가 막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무궁화 꽃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었죠?



조 거꾸로 개구리가 가는, 무궁화가 아닌 예쁜 해바라기가 피었습니다. 오리가 낮잠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미션이 들어가는...저기가 분리수거장이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봤어요. 박스 분리수거장을 저렇게 컨테이너에 넣어서 비에 안 젖게 하는 지역을 처음 보기도 했는데, 비가 왔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밟고 지나가니까 저기의 용도는 종이 젖지 말아라 하는 건데 막 밟아 대니까 경비 아저씨가 놀라서 왔다가 거기에 건물주이신 찬덕 언니가 계시니 주민이라서 얘기도 못하고 한참 계시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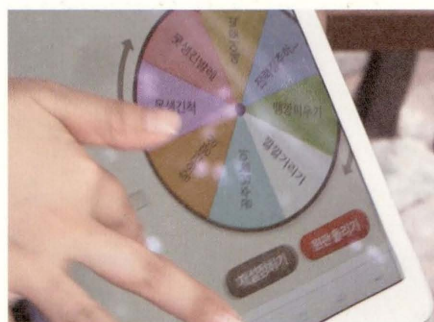
굴이작가 그리고 구경하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때 너무 재미있어 보여서 저도 같이 끼서 하고 그리고 건호 쌤도 같이 끼서 한 판씩 했어요.

임 그때 했을 때 되게 웃겼을 거 아니예요. 이렇게 영상으로 봐도 웃겨요?

하이디 그때가 생각나요. 다른 선생님은 꽃도 꽃았어요.

굴이작가 이렇게 게임하면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저 이렇게 쉽 없이 놀았어요. 제가 느꼈던 재미있는 순간은 하이디님 영상에서 운동하는 기계에서 하이디님 인터뷰를 하는데 이 분이 옆에서 당황하지 않으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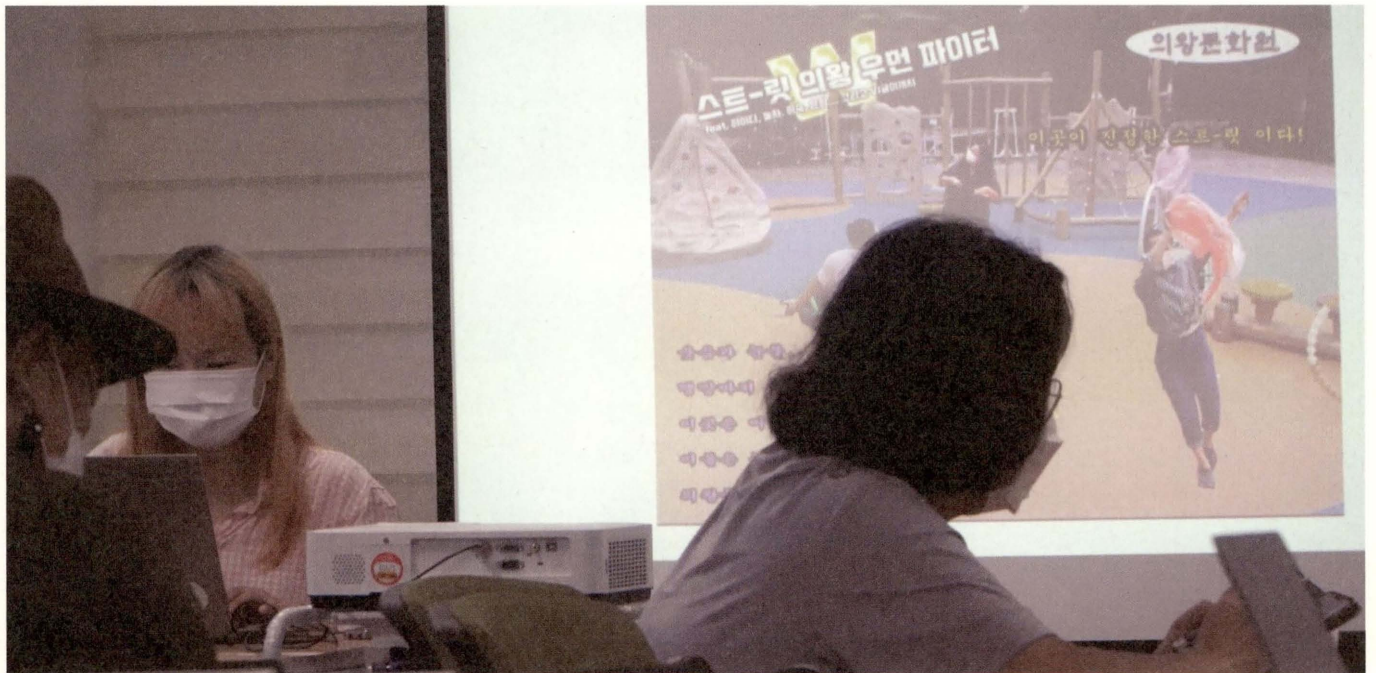
태연하게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 웃겼어요. 제가 비디오를 찍으면서 많이 웃는데 이 장면을 보고 너무 웃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것도 제가 정해드린 게 아니었는데 원래는 희숙님이 받은 주제가 못생긴 발레 하기였는데 원래 이분 혼자 하셔야 하는데 다들 오셔서 춤을 추고 계세요. 제가 보여드린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래서 12월에 전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발표 했듯이 움짤이라는 요즘 인터넷 세대들이 만드는 그런 콘텐츠를 가져와서 비슷하게 하려고 해요. 제가 좀 예시를 보여드리면 다들 스누피 아시나요? 이게 스누피에서 유명한 댄싱 찐이거든요.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면 아까 마지막 보여드린 영상을 보고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 영상을 가지고 이 스누피가 미국 70년대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만들어진 만화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유튜버가 이런 식으로 패러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성을 해보면 재미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만들어 본 게 요즘 엠넷에서 핫한 프로그램이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고 여성 댄서들이 춤추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분들이 춤을 추셨잖아요. 그래서 의왕 공원에 합성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전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스트리트 의왕 우먼 파이터





이곳이 진정한 스트리트 이다!

조 첫날 저희가 두 번 모이고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남기기는 했었어요.

‘나설 때는 무거웠던 발걸음. 비가 오는데 안 가고 싶은 마음, 핑계만 가득했던 길. 도착하고 팀을 만나 서서히 움직이며 평소 하지 않는 끼를 부리고 한 바탕 웃고 내려놓은 하루.’

실은 윈터가 교통편이 좋은 데는 아니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야 되는데 아침에 늦장을 부리다가 집 앞임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고가야 했던...

낮선 시간이었어요. 근데 국민 체조라는 지금 우리 세대는 알고 있는 체조잖아요. 국민 체조가 등장하면서 그 낯섦이 조금 친근함으로 다가왔던... 근데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오히려 우리 빼격거리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작가님이 더 빼격거리더라고. 아 나이하고 관계없이....

저는 그날 구애의 춤이라는 미션이 있었어요. 단체 다른 미션 말고 개인 미션으로 구애의 춤을 했었을 때 제가 평소에 잘 추는 게 구애의 춤이예요. 그래서 나무를 잡고 열심히 한번 흔들어봤던. 그래서 그날 저를 조금 기억했던 거는 제가 구애의 춤을 췌던 것과 국민체조를 통해서 옛날 추억이 다시 되살아났던... 우리 어렸을 때는 가다가 말고 음악 울리면 막 국기에 대한 경례도 했던 추억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그다음 미션 중에 우는 척을 하라는 미션이 있었었는데 이 미션을 처음에 이해를 잘 못해갔고 척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앞 글자, 우는 거에만 더 집중을 해서 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참 끝까지 말을 잘 안 듣는구나 라는 걸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샌드위치가 간식으로 나왔었는데 벌이 더 좋아해서 벌이 자꾸 샌드위치에 달려드는 바람에 샌드위치를 제대로 못 먹고 도망갔던 이게 첫날의 모임이었어요.

두 번째 날도 마찬가지로였던 것 같아요. 하필이면 이렇게 문화원에서 뭐 한다고 하는 날 비가 이렇게 와요. 근데 비 오는 날 진짜 싫어하거든요. 우산 쓰는 것도 싫고. 특히 우비가 싫는데 작가님이 아침에 우비를 준비해갖고 와라라는 미션이 있었어요. 아침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비를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차라리 비를 맞자. 뭘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우비를 입으면 습하기도 해서 몸에 발진이 되게 잘 나는 편이라서 그냥 비를 맞고 말자하고서는 우비를 안 가지고 갔는데 갈등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산도 필요하고 버스도 타야하고, 한 번 지각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지각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날도 고민을 했어요. 집에 막 나가면 시간이 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늦장늦장 했는데. 땀 때보다도 십분은 조금 빨리 서둘러서 나갔더니 때마침 버스를 탈 수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내가 잘 다니던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가서 헤매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고민을 하는 얼굴이고요.

‘우산을 가져가야 하나, 택시를 타야 하나 고민 가득. 설마 비 오는데 어느 노선을 타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했던’



제가 여하튼 버스를 타고 내렸어요.
내렸는데 공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혼자
찾기는 싫어서 우리 멤버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아직 한
10분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10분
동안 어슬렁거리려고 하다가 뒤를 딱
돌아보니 뭐 이상한 게 있는 건 거예요.
공원 같이 생긴 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운동하고 계시는 분한테 “저, 죄송한데
가족 공원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여기
가족 공원이 있어? 가족공원은
모르겠는데. 근데 공원은 여기만 있어.
공원은 여기밖에 없어.” 내가 찾는 곳은
가족 공원인데요 그랬더니 한 5분을
걸어가신 분이 갑자기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리와, 이리와”
그러시더니 저를 막 끌고 가시더니 “여기
써 있네, 가족공원이라고” 그래서 눈앞에
놓고도 실은 조금만 더 움직였으면 되는데
안 움직이다 보니 가족공원인지 몰랐던.
그래서 그때 특이했던 건 정작 그 안에서
지금 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돌고 있는 공원의 이름을
모르고계셨다 라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름 지어주기 뭐를 하나 해서. 뭔가를 좀
알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비를 피해서 있을
곳에 앉아 있는데 할머니가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야. “왜 왔어?” “그냥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요” 그게 할머니가
앉아마자 신세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10분을 할머니한테 별서는데 할머니의
주요 핵심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나 구박받지 않고 내 새끼하고 잘 살려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집에서 나와야 된다.
집에서 내가 보이는 순간 자식들은
스트레스 받는다. 나도 한 때는 젊어서
아이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생도 되게
많이 하고 새벽부터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내 삶은 내 새끼들이 나한테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나와야
된다’는 이 말을 하시는데 사실은
구슬땀어요. 자식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게 구슬땀고, 할머니가
그러면서도 계속 본인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분 동안 이 얘기를 들어주면서
우리 엄마도 혹시 어디 가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할머니는 나름 자기가 이렇게
사는 건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현명하게 사신다고 하시면서 “어지간하면 아침에
일찍 집을 나와서 있자. 늙으면서 나도 젊었을 때
부지런히 살았다. 그래도 자식들은 모른다. 아파도 힘들어.
힘들어도 눈에 많이 안 보여야 자식들이 편하다.”
이 말이 저에게 좀 많이 들어와서 그날
엄마한테도 전화를 한번 해봤던 날 같고요.

이제 도착을 했어요. 뭔가 미션을 시작을
했는데 그 방법을 다르게 갖고
오셨더라고요. 전에 처음 만났을 때는
주머니를 갖고 와서 뽑으라고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휴대폰으로 돌리기를 하면서
미션을 주시는데 여전히 국민 체조는
시작됐다~. 태블릿에서 저희가 사다리를
타더니 빙글빙글이라는 이거를 가지고
단체 행동을 하라고 했었을 때 교집합으로
있었던 건 여하튼 단체잖아요? 단체로
빙글빙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했는데
이 안에는 퍼포먼스라는 빙글빙글이
있었고, 빙글빙글 안에 우리가 웃었던
우리가 즐거웠던 그런 빙글빙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보셨지만 열심히
돌렸잖아요. 열심히 돌리면서 그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좀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편견이라든지 익숙함에 내가 너무
휩싸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실은
‘new’라는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을 내
안에서 자꾸 하기 위해서도 뭔가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조금 배웠고요.



제가 이상하게 문화원에 줄무늬 옷을 많이 입고 오나 봐요. 첫날에도 보면 이렇게 줄무늬 옷을 입고 왔는데 그다음에 또 갔더니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보통 이렇게 줄무늬 있는 옷이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문화원 오는 날은 줄무늬를 입는 날?

제가 받았던 미션은 땡깡, 창의적 땡깡이 있었는데 저는 땡깡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건 제가 땡깡을 부렸다기보다 아이들이 땡깡을 부리던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생각난 것 같아요. 아이들을 보다 보면 땡깡을 부리는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조차도 나는 땡깡이기 때문에 “당신 말이 안 들려. 말 새끼지 마” 이러면서 오히려 작가님을 좀 당황시켰던 미션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제 안에서 표정조차도 달라지는 건 거죠. 실은 놓고 싶었는데 우리 박찬덕 선생님께서 그냥 누우시더라고요, 바닥에. 그래서 아마 그때는 시선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땅바닥에 저렇게 사람이 막 누워 있으니 저거 뭐지? 뭐지? 이랬던 분위기가 조금 많이 있었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면서 우리는 평소에도 실은 어른들끼리 전래놀이라는 걸 자꾸 배우고 아이들하고 놀고 싶어서 전래놀이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다치지 않으면서 요즘 식으로 아이들과 놀아야 되나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실은 그러다 보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면서도 세 번 정도 더 나가보자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아니라 미션 꽃이 피는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런 놀이 속에서 더 즐거움을 찾고 있는데 이렇게 신세대들이 놀이를 모르는구나 더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노는 애들 데리고 뭐 하고 놀지?’ 이런 고민이 많았다면 이 신세대들을 보면서 아이고 아이고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왔던. 그래서 좀 더 새롭게 무궁화 꽃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놀았던 거. 그래서 이 날 핵심은 “들어는 봤니? 무궁화 꽃.” 거꾸로 미션도 있으면서 저희도 나름대로 되게 즐거웠던. 실은 퍼포먼스를 끝내고 제일 고민은 그런 거였어요.

‘큐레이터하고 도대체 어떤 연관점이 있는 건 거지?’ ‘마을에서 이것들을 어떤 것과 보는 거지?’ 고민을 일주일 동안 좀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 마을이라는 거. 일단은 만약에 의왕시스럽다 라고 하는 거는 그 공간 안에만 내가 들어 있었다라는 거지, 애를 의왕시하고 어떻게 연결을 짓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안에 이게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있어서 이것을 무너뜨리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그래서 의왕문화원에서 물어봤을 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창의적인 퍼포먼스는 있었는데 아직 내 안에서도 의왕스러운 퍼포먼스는 아니었다 라는... 그래서 조금 다음에 뭔가를 좀 하게 되면 거기에 좀주제를 더 넣어서 그것과 같이 한 번 더 활동을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던 한 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다 사실 제가 커밍아웃을 하자면 원래는 초, 중, 고, 대학교 개근하고 아파도 가고 이래요. 그리고 숙제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솔직히 제가 저번 주에 숙제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낫선 나를 좀 발견하고 느낌대로 가보자 해서 굴이 썸조에 갔는데 저는 이번에 수업을 하면서 즐겁고 참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이 숙제를 어떻게 두 시간 만에 해야 하나 하다가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내 감정대로 솔직하게 이 낯설도 익숙하게 한번 해보자 했는데 우리 두 선생님이 안 나와 큰일 났다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지난 결과보고서를 받으면서 이렇게 전에 조사했던 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비장의 무기, 그 조사 한 거를 갖고 와야겠다 했는데 사실은 수업 때도 제가 이사 준비를 계속했어요. 박스에 넣었는데 그래도 박스를 찾다가 또 시간이 돼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과거 얘기를 살짝 하자면 우리가 마을큐레이터 조사가 끝났었잖아요. 끝나고 사실은 우리 아버지한테 인터뷰도 하고 뭐 했는데 조금 시선이 불편해지더라고요. 동네 이장님도 그렇고,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루는 성당 뒤 옛날 사진이 있는데 능선이 있더라고요. 이 능선이 어디 산이지 하면서 제가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조사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너무 점점점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거 돌 모으는 게 구석기 시대 고인돌 하고 뭐 하고...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 내가 과거에만 너무 집중을 했구나. 현재 일어나는 거, 현재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현재의 원터마울도 계속 변화무쌍한데 내가 과거의 시점, 어디 시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 또한 정신이 없고요 생활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까 생각했더니 '그래, 천천히 장기적으로...' 오늘 좀 장기적으로 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수업한다고 했을 때 너무 하고 싶은데 아침, 점심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과연 할 수 있을까 했지만 또 이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했는데 그런데 첫 시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거예요. 근데 안 해본 걸 한번 하고 싶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워크숍 했을 때 느꼈던 점은 낯선 곳에 가서 우리가 신나게 놀고 신나게 즐겼는데,

월 일 요일

☀ ☁ ☔ ☂ ☕

일어난 시각
 시 분

끝나는 시각
 시 분

발	단	.	.	.	어	번	수	업	은	여	기
수	업	은	성	나	고	은	거	했	다	.	.
문	은	4	6	세	만	며	나	돈	나	.	.
지	기	원	시	길	은	물	아	가	왔	.	.
었다	순	간	이	중	문	인	여	침	보	.	.
이	었다	.	고	숙	이	서	나	는	나	의	.

다들 커밍아웃 만나게 되었어.

월 일 요일

☀ ☁ ☔ ☂ ☕

일어난 시각
 시 분

끝나는 시각
 시 분

우리 꽃이
 피었어

비	가	오	근	갔	.	.	환	씩	원	무
금	화	꽃	기	릴	.	웃	음	꽃	여	활
피	었다	.	모	두	합	쳐	200	살	이	.
출	적	넣	은	우	리	는	.	.	.	.
모	두	다	어	림	시	길	로	물	아	가
있	었다	.	신	나	게	볼	고	있	었다	.

PEPPA

월 일 요일

☀ ☁ ☔ ☂ ☕

일어난 시각
 시 분

끝나는 시각
 시 분

우리 실이
 이따 나 그방
 문이 열려...

발	단	은	태	어	살	개	열	려	는	.	.
전	매	고	유	심	히	게	떨	려	는	인	.
생	년	은	바	라	보	며	하	의	반	드	.
가	다	기	물	대	바	일	정	은	어	.	.
미	바	라	은	은	된	거	려	나	가	는	.
들	했	다	도	밀	가	고	보	다	.	.	.

기대 중...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것이 문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연도 자연이지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재미있는 것이 미래에서 봤을 때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수업을 통해서 참 다양한 선생님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8년도에 우리 선생님들이 도룡마을, 역사 이렇게 조사하셨잖아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철도는 살아있다' 한번 괜히 그쪽으로 가보고, 왜냐면은 이걸 어떻게 해서 원터마을에 적용해서 내가 이어서 할까 나중에... 그래서 우리 마을도 사라질까 좀 두려움이 앞서요. 어느 순간 원터마을 집들도 대부분 서울사람들이 샀는데 그때 조사했을 때 내가 농장을 열심히 해서 로컬 푸드도 정직하게 하니까 한 몇 년 되면 인기가 많아서 잘 되면 이 땅을 서울사람한테 사서 여기서 원터마을 안에서 살면서 마을 역사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글도 쓰면서 의왕시에서 재미나게 살고 싶다고 그때 다짐을 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흘렀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루에 4시간 일해서 만원 벌기가 힘들어요. 아니 그래서 그 자존감은

확 떨어지면서 마음은 지금 옷 색깔과 같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밑바닥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재조직을 하면 안 될까? 내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농업을 하시잖아요. 그 당시 제가 예전에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일본에 농업 연수까지 갔었어요. 선진문물을 배워서 우리 농업에 앞장서리라 하고 막 열심히 했었는데 막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적용을 했어요. 진짜 농약도 안 쓰고, 심지어는 우리 고객도 너무 좋아하지만 사실 멀쩡멀쩡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꿀꿀하고 할 때마다 열심히 해서 오늘 내가 꽃이라도 더 열심히 붙이자. 뭘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를 딱 보니까 일본은 도심지에서 농업을 하려면 농업을 먼저 보호해줘요. 근데 올해 저희의 농장은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농지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농사를 지으면 세금이 더 두 배로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그린벨트라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농사를 못 짓게 그 법이 1971년도에 법을 적용해서 나중에 개발을 할 땐 수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함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아버지가 따지러 시청에 들썩들썩하면 저는 말려야 되요. 왜냐하면 한 번 공격을 하면 그 후폭풍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수용하고 좀 장기적으로 내가 이런 거를 기록을 해야겠다. 왜, 마을에 다 농업이 없어지고 빌라가 세워지잖아요. 왜 농사 못 짓고, 빌라 세워? 세금이 두, 세배로 더 비싸요. 세금이 많아서 콩을 10년을 수확해도 땅세를 못내요. 땅세 밖에 안돼요. 농업을 하면 안 되는 구조가 돼서 도심지 농업인들이 자꾸 밀려나니까 저도 우리 동네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농업인이 몇 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걸 생존을 하고 지키려면 어떻게 하나 많이 고민을 하셔도 되게 바쁘는데... 당장 오늘 밭 매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는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다시 해야지 했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굴이썩꺼는 왠지 좀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어깨가 무거운 짐들을 여기 올 때는 딱 내려놓고 재미있게 놀고, 재미있게 즐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2년이나 3년 뒤에는 내가 또 어떤 내용을 얘기할까. 또 진짜 어떻게 또 변했을까.

월 일 요일

시 분

날씨

시 분

동

대

나의

생각...

수	차	니	자	면	의	및	기	여	운	들
어	머	가	실	는	것	대	가	얼		
많은	이	아	가	운	영	고	했	다		
정	일	을	이	되	수	있	고	나	알	고
비	빽	가	장	강	한	대	일	로	이	필
속	도	있	다	는	바	밀	공	로	있	다

이제 앞으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직업의 다양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물론 개발도 중요해요. 개발 입장에서. 또 개발해서 마을이 예뻐지고 이런 거죠. 그렇지만 농업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를 잘 지키고 이제 도룡농도 있고 아직도 생태계가 아주 무궁무진하거든요. 여기를 후대는 아니고 내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잘 지킬까 이 고민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갑자기 심각해졌는데 마무리는... 제가 내려놓은 것은 결국 사람과 같이 하는 장소가 문화 자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꼭 문화재 1호 이런 게 아니라 어디든 함께하고 즐기고 이런 게 진짜 문화 자원이 아닌가요... 사람이 있는 거. 사람이 있어서 생활하고,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이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방영경 작가 저희 팀은 지난주에 도깨비시장을 갔었어요. 의왕역 앞에 있는 도깨비시장인데 그 전 주에 선생님들께서 뷰파인더(프레임)을 가지고 색을 담는 활동을 즐겨워하셔서 시장 안에서 한 번 더 색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장에 갔었고, 그 전에는 우리가 너무 자연이 있고 정적인 공간에 있어서 이번엔 도깨비시장을 정한 이유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가서 뭘 볼까라고 했을 때 그전에 사진으로만 담았던 색을 이번에는 사진 외의 방법으로 선생님들께서 느끼는 어떤 색을 담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몇 가지 안내사항, 지시문 같은 거를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을 우리가 둘러보고 거기서 내 마음에 드는 거, 눈길을 끄는 색을 찾아보고 또 혹시 냄새나 어떤 공기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색을 한 번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것과 맛있어 보이는 색 그리고 시장에 대한 추억, 그런 것들을 한번 담아보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의왕 워크숍_두 번째 시간_210929.



1. 마음에 들거나 눈길을 끄는 색이 있었나요? 그런 색을 하나 고르시고, 그 색을 천천히 관찰해 주세요. (1분 이상 관찰 부탁드립니다.)
관찰이 끝나면 그 색을 가지고 계신 오일 파스텔로 표현해주세요.
다 그리시면 뒷면에 그 색에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2. 나와 가장 닮았다고 생각되는 색을 하나 고르시고 이번에는 그림이 아닌 글로 표현해 주세요.
나와 닮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그 색의 새로운 이름도 지어주세요.
3. 도깨비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냄새, 향기, 공기 등은 어떤 색일까요? 오일 파스텔을 이용하여 색으로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색의 이름도 지어 주세요.
4. 가장 맛있는 색은 어떤 색인지 찾아주세요! 맛있게 보였던 이유와 그 색의 맛있는 이름도 지어 주세요.
5. 다른 곳에서는 본적없는, 도깨비 시장에만 있는 색을 찾아주세요.
6. 시장과 관련된 추억이 있으신가요? 그 추억의 색을 담은 물건을 시장에서 찾아주세요. 그리고 오일 파스텔로 그려주시고 이름을 지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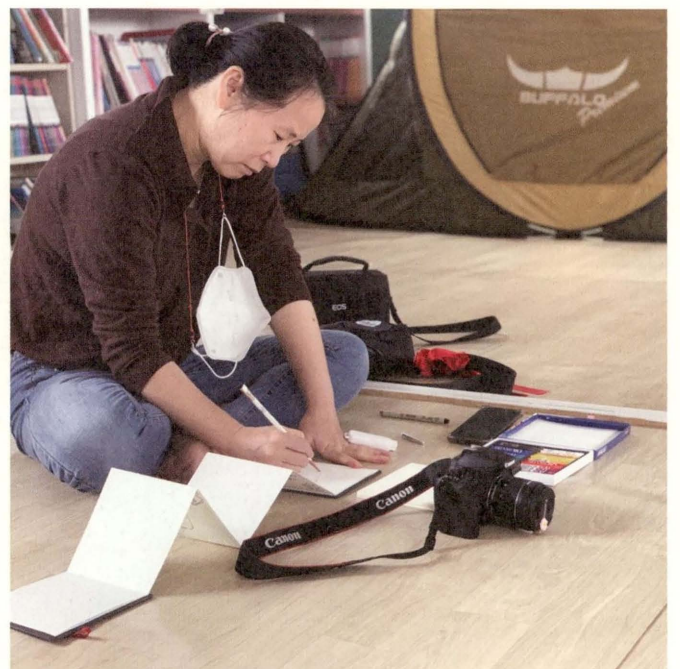
시장을 둘러보고 직접 관찰하면서 발견한 색을 오일파스텔로 표현하거나 색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 작업을 현장에서 하고 싶었는데 비가 오고, 시장 내부가 어둡고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어수선했던 분위기이다 보니 원래 계획했고 던 현장에서의 관찰은 어렵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다른 조용한 장소로의 이동을 원하셔서 근처에 위치한 '바람개비 행복마을'(의왕시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이동하여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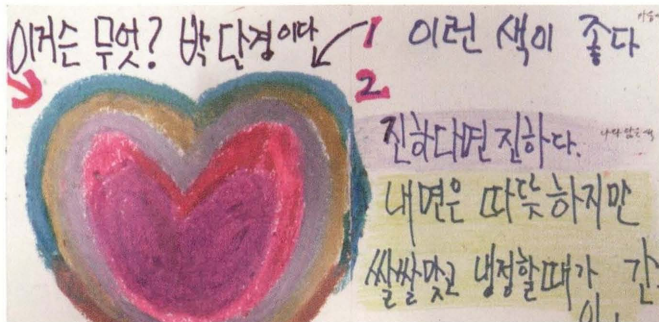
그날 재춘 선생님이 저희랑 같이 동행을 해주셨는데 동네 이름인 삼동에 대한 질문을 하나 선생님들께 드렸어요. 그 질문을 매개로 계속 이야기들이 이어져 선생님들이

시장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아 하셨던 불편함의 이유라든지 또 각자 시장과 관련된 추억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정희 선생님께서는 그 시장에서 옛날에 20년 전에 실제로 장사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단경 선생님께서 시장의 냄새가 안 좋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아, 그래서 이 공간에서 관찰하는 게 어려웠겠구나 하고 이해하게 됐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부모님이 시장에서 일을 하셨고, 재춘 선생님께서도 어머니께서 식당 하시고 그런 경험에 대한 서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되게 열심히 선생님들께서 새벽까지 ppt를 만들어주시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거를 금지하고 나눠드린 아코디언 스케치북에 담아 오신 색을 가지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단경선생님부터...







이렇게 색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꿈과 희망이라는 그런 시장을 표현을 했어요. 네 감히 있죠. 그래서 4번 맛있는 색은 무엇이나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배가 무지 고했거든요. 팔시루떡입니다. 근데 찰시루 보다는 메시루. 그래서 가을이 되면요, 그 떡을 많이 해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해 가지고 한 두 시간쯤 찌가지고 동네에 다 돌려요. 친척들이나 또 가난한, 우리도 가난한 집이지만 같은 동질감으로 떡을 많이 보내요. 우리 언니하고, 나하고 시루떡을 돌리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결실의 계절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또 5번, 갔는데 이렇게 화려할 수가 없어요. 그 도깨비 시장이 칙칙한 줄 알았는데 밖으로 나갔더니 색깔이 이런 색이 엄청 눈에 가요. 여기 의왕부동산과 꼬마김밥. 여기 말하는 수화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 독특했다. 말하는 소화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하고 저쪽에 모텔 건물인지 이런 색이 모여져 있었어요. 이런 것까지 같이 제가 내은 색으로 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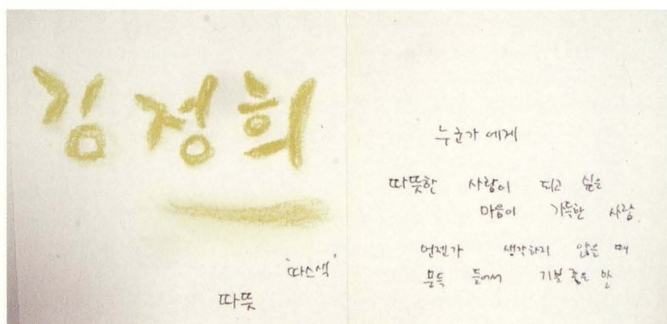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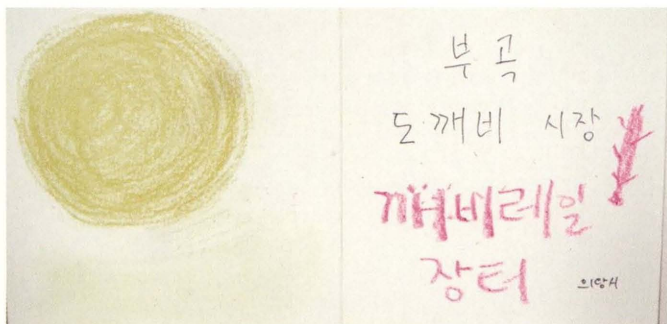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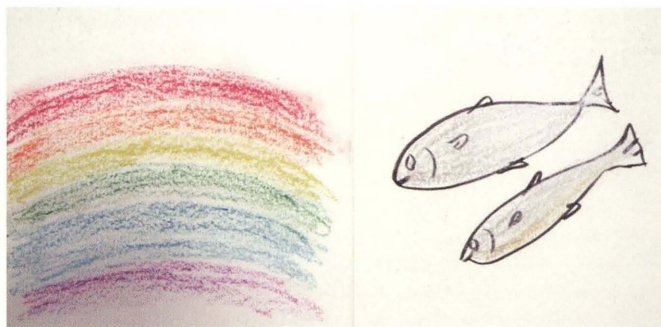
그리고 안 좋은 추억이라 하면 전봇대하고, CCTV를 섬세하게 그렸는데, 이게 뭐냐하면 제가 젊었을 때 사실 좋은 직업은 아니지만 제약 회사에 다니면서 나름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결혼해서 시어머니가 개봉동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하러 자꾸 나오라고 해서 신림동 살아서 개봉동, 버스 타기도 불편한데 새택이 거기 가서 장사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랬는데 여기 갔더니 그 추억이 확 살아 오르는 거예요. 전선은 과거와 나의 추억을 연결해 주는 선으로 제가 표현을 했고요. CCTV는 그런 일상 같은 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과거나 현재에서 눈처럼 똑똑히 되살아 오르는 것으로 보면 돼요. CCTV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날 시장 답사의 선생님께서 주신 미션을 저는 나름 충분히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단 저는요, 이거를 아까 펼쳤는데 번호를 우리 1, 2, 3, 4, 5, 6, 7 이렇게 쪽 나오잖아요. 그런데 뒤섞였어요. 너무 단편적이다. 그래서 자유롭고 또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1번이 어디가 있냐.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1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복합적인 게 있어요.

1번은 마음에 드는 색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 도깨비 시장에 도깨비들 벽화가 있는데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근데 저도 그 색을 좋아하거든요. 사람이 또 하늘, 바다, 호수, 또 희망 하면 그런 푸른색이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것은 무엇이나. 이것은 박단경입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와 닮은 색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보면은 평소에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강림을 하시면 갑자기 여러 가지가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한 4차원 반쯤에 거의 가있는 때가 많아요. 음료를 마셔도 4차원, 술을 마셔도 4차원, 또 얘기를 들어도 4차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스며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면은 꼭 따듯합니다. 그런데 간혹 제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 규칙이나 세상에서 약간 어긋난다, 저도 잘 어긋나지만 남이 그러는 걸 보면 아주 쌀쌀맞고 냉정하게 커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주의하시고, 아 3번을 내가 가서 시장에서 느낀 것은 생동감은 물론 있어요. 생선 같은 거 싸게 팔고 우리 동네보다 곱빼기는 싸요. 그래서 다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사실은 너무 분위기 자체가 위축돼 있고, 아 지금 힘들구나.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아주 생동감 있고 넘치는 색 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우울하고 칙칙한 색이 감싸져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거를 깨야 되는데 언제쯤 이게 깨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김정희 참여자 1번. 시장에서 마음이 드는 색이나 눈길을 끄는 색인데요. 그날 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약간 밝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파는 물건도 보고 간판도 보고 그랬는데 바닥에 뭔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방통행이라고 써 있어요. 하얀색 페인트로. 근데 그 옆에 뭔가 곡선으로 초록색도 보이고 그러더니 빨간 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노란 원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날 날씨가 전반적으로 좀 밝지는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란색 원이 유난히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원래 노란색이 눈에 띄긴 하지만 그날따라 더 띄어서 왜 바닥에 이게 뭘까. 의왕시를 표현한 건가. 달을 표현한 건가. 해를 표현한 건가. 잘 모르지만 그 노란색 원형이 유난히 눈에 띄어서 웬지 날씨와 대비적으로 그 노란색이 눈에 확 띄어서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가 나를 닮은 색을 찾으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그리다 보니까 앞에도 노란색 이고 이것도 노란색이예요. 그래서 그리다가 내가 왜 그날따라 노란색이 유난히 들어왔을까? 날씨 때문인가? 거의 이 노란색 찾은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닮고 싶은 색인 거예요. 따뜻한 노란색의 따뜻함을. 좀 많이 찾은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날씨도 비가 와서 따뜻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제 이름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따뜻한 노란색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을. 그래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런데 사실 언젠가 어느 분이 저한테 갑자기 '선생님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라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내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돼야겠다는 각오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은 도깨비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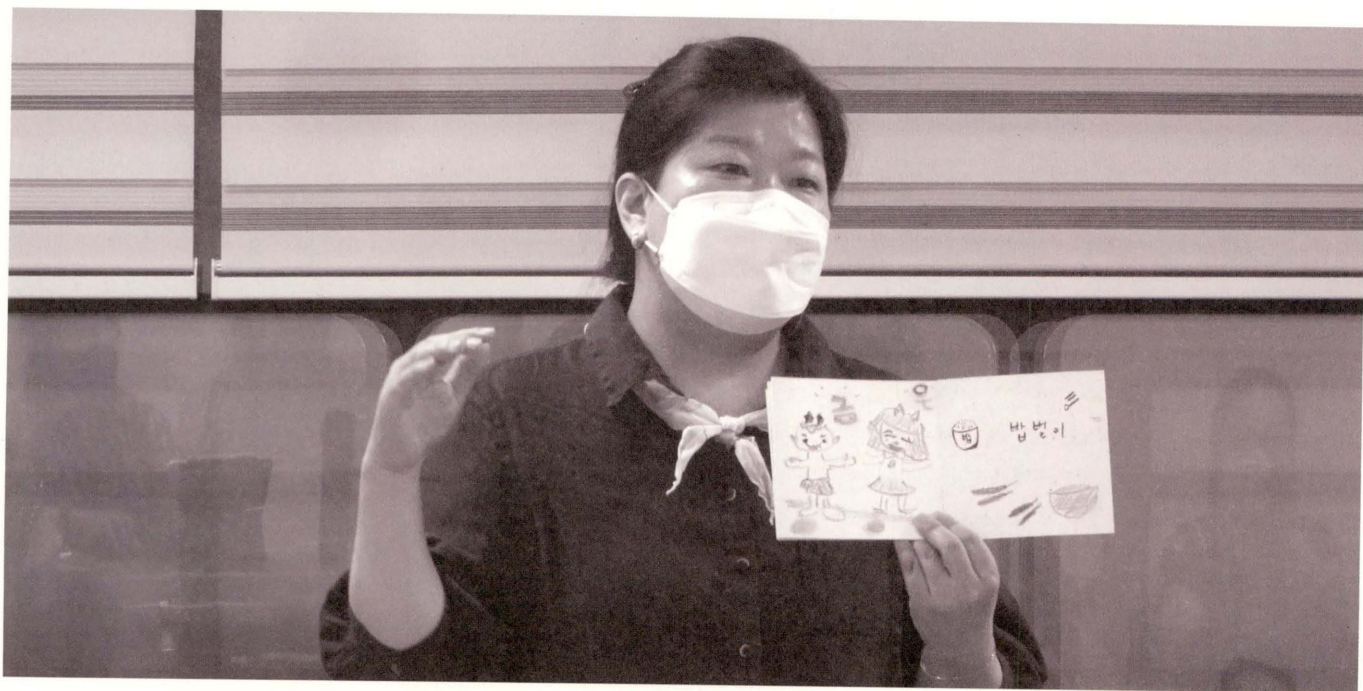
않은 색이나 냄새라고 했는데 쭉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는 무지개라고 표현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오일파스텔의 색깔에 한계를 느꼈다고 할까요. 제 마음은 더 정말 알록달록하고 간판도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근데 파는 물건에서도 빨강고, 노랑고 하얗고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깨비 시장은 저희가 의왕역 쪽에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쪽에 보면은 농기구 호수도 팔고 빗자루도 팔고 그러는데 빗자루 손잡이가 빨강게 표시되어있고, 파랑게 표시 되어있고, 농기구 손잡이도 또 다르게 색깔이 되게 표시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들이 눈에 들어와서 또 천장을 봤더니 그때 불은 안 들어왔지만 약간 황토색의 등이 있는데 거기는 미처 몰랐는데 나중에 사진을 찍고 확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도깨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어, 노란색도 보이네, 황토색도 있네. 그래서 나타나는 색이 내가 아는 색은 무지개가 여러 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무지개 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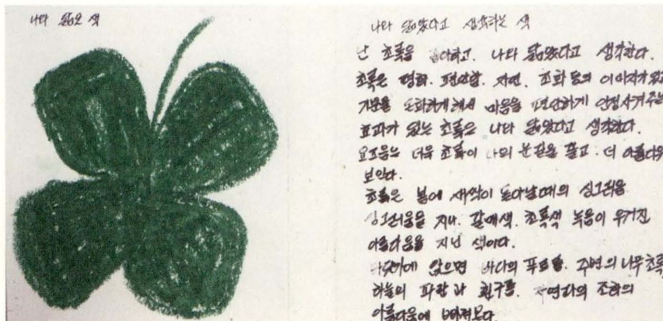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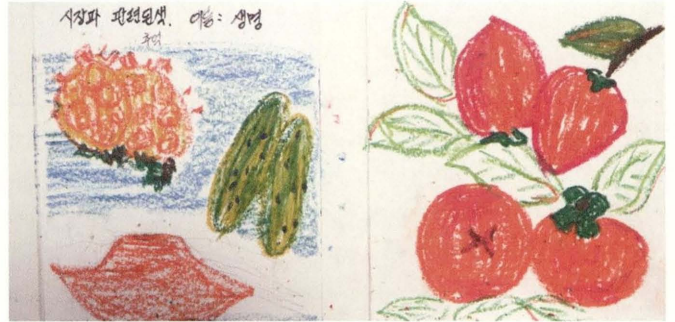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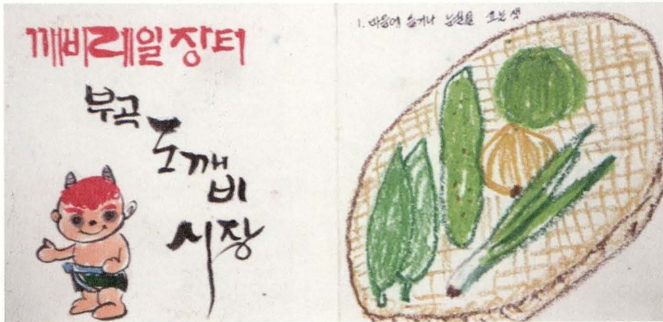
맛있는 색깔은 생선이지거든요. 그날 생선가게에 조명이 들어와서 굉장히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은빛 색깔이... 그래서 사실 제가 또 생선도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 저희 가족들이 생선 집에 시집가라고 할 정도로 생선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은빛 색깔이 너무 맛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생선도 그렸고요.

마지막에 도깨비를 그리려고 했어요. 근데 참 제 그림 솜씨가...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남자친구인 것 같고, 여자친구 같아요. 치마도 입고 반바지도 입어서... 그래서 남자 친구는 금이라고 이름 지었고요. 여자 친구는 은이라고 지었어요. 도깨비 시장의 마스코트이긴 한데 중간 중간에 있기는 해요. 제가 시장을 다 돌면서 느낀 점은 그래도 마스코트가 좀 더 더 있었으면. 중간 중간 포인트는 있지만 가게에서도 한 번씩 마스코트 그림이 아니더라도 팬던트나 인형 같은 게 걸려 있었으면 좀 더 여기가 도깨비 시장이라는 게 눈에 띄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휴게 장소의 앉을 수 있는 데나 아니면 군데군데, 입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도깨비 시장 안에 가게에도 중간 중간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에 아가 영경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한 20년 전에 제가 장사를 한 건 아닙니다. 시장에 관련된 추억. 저는 밥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하고 저희 시어머니가 한 20년 전에 그 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게 제 밥벌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밥벌이. 내 추억 속에는 밥벌이. 그래서 야채가 있으니까. 홍고추랑 풋고추 그리고 그 빨간 바구니를 그렸습니다.





강 저는 이걸 하면서 우리 영경 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나도 굴이 작가 팀에 가서 좀 신나게 놀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두 번째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 ppt를 만들면서 주제를 정하면서 고민했던 것 때문에. 막 뛰시는데 너무 너무 신나게 보여서... 아 나도 그림일기 그릴 줄 아는데... 그 다리 찢기 한다는 그 말에 제가 이 팀을 못 갔어요. 아, 나도 가서 좀 놀다올걸...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도개비 장터를 방문해서 거기에서부터 느낀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뛰나 하면은요, 마음에 들거나 눈길을 끄는 색이었어요. 저는 요즘 초록색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실수를 했던 게 있어요. 도개비 시장에 들어갔을 때 그 전에 내가 신호등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빨강하고, 초록하고, 노랑 쪽에만 자꾸 시선을 뒀어요. 거기에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결론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색깔이 맞춰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초록색을 쓴 이유는요, 우리 그려잖아요,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날 때 그 싱그러움을 가진 새싹 색깔 아시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여름이 되는 녹색이 우거져가지고 그 색깔. 그런데 여름부터 바닷가에 낚시를 가요. 가서 보면 그 바닷물 색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산, 그 초록색.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늘색 하고 그 흰 구름의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중에서 산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록이 너무 피곤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아니면 좀 쉬고 싶을 때 눈길을 끄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요즘 초록색을 마음에 드는 색으로 썼어요.

나와 닮았다고 생각하는 색깔. 아까 우리 쌤 그랬듯이 저도

마음에 드는 색과 내가 닮았다고 생각하는 색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클로버를 한번 그려봤어요. 이 초록색이 근데요, 평화, 편안함, 자연, 조화 등의 이야기 이미지가 있고 기분을 온화하게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색이래요. 그게 나하고 같아요. (웃음) 혼자 생각입니다.

그 다음 가장 맛있는 색깔. 그날 아침에 밥 한술 뜨고 갔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왜 그렇게 떡이 맛있어 보이고, 찔빵이 맛있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팔이 들어가는 걸 다 좋아해요. 단팥빵도 좋아하고 이렇게 찔빵도 좋아하고, 시루떡과 이 팔만 들어가면 맛있어요. 그런데 떡도 그리고 싶지만 그냥 찔빵 그걸 이렇게 그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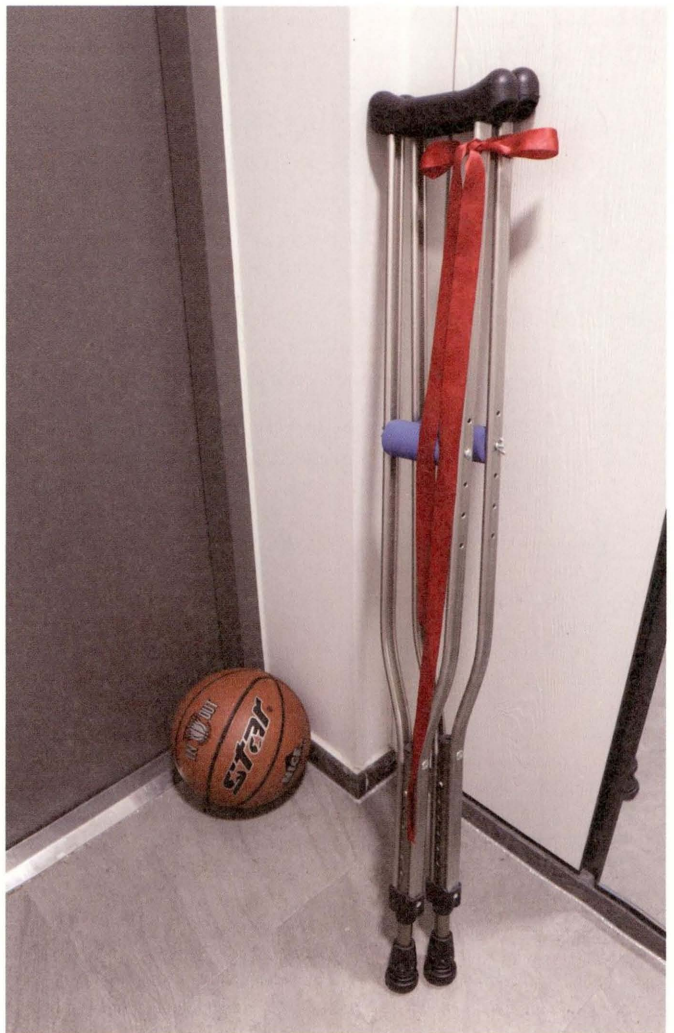
그다음에 도개비 시장에만 있는 색을 그렸어요. 청년 물을 그려봤어요. 우리 몇 년 전부터 이 청년물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휴게소에도 있고 어디 시장에도 있고 그랬는데 지난번 보니까 도개비 시장에 이 청년물이 있더라고요. 지금 청년 물 지원 사업이 임대료 지원 사업이 끝나니까 10개 중에 네 군데는 문을 닫았다 하더라고요. 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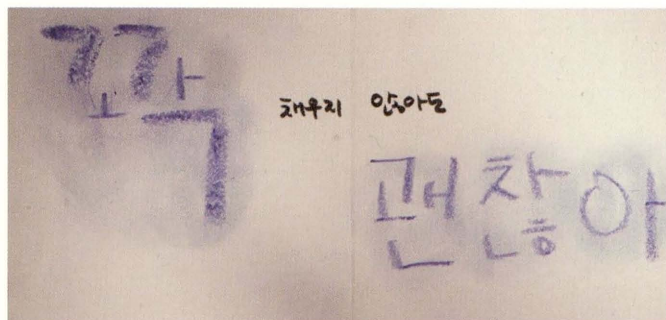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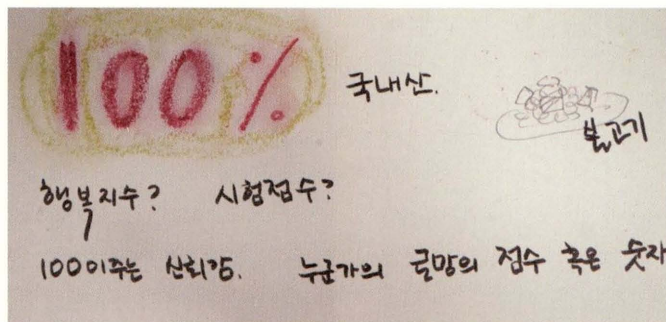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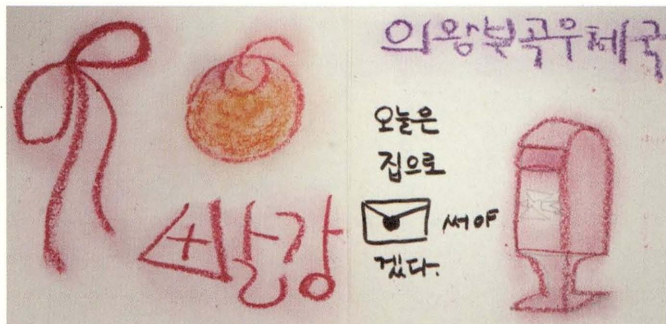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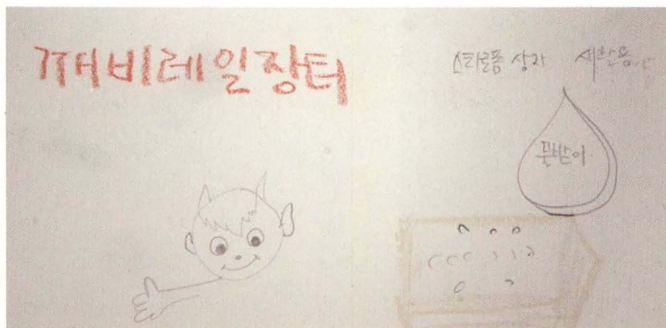
그다음에 마지막이죠. 시장과 관련된 색 그렸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이 멍게하고 해삼을 사다주면 정말 맛있었어요. 이 멍게가 봄에 말고 늦겨울이나 아님 초에 일찍이 먹을 때 그 상큼한 맛은 어디다 표현을 못해요. 순천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싱한 해산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멍게 그리고 해삼. 닮았죠? 그 다음에 우리엄마가 꽃게탕을 참 끓여줬어요. 그런데 꽃게 그리다가요. 아직 다리는 못 그렸어요. 저는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남겨놓고 이게 바다를 표현했고, 저는 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대봉이고 이건 단감이에요. 이거 같이 주문해가지고 보관하면서 단감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대봉은 베란다에 놔두면 아주 맛있는 홍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어렸을 때의 추억의 색깔을 갖다가 이렇게 주황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런데 주황이 에너지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름을 붙여주라 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먹고 살았던 나의 생명이 아닌가 그래서 생명이라고 지었습니다.

전 어려운 수학 문제를 주셨다면 한 문제라도 제대로 풀 수 있을까 싶은데... 난제예요. 제가 처음부터 잘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우리 팀하고 같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혼자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사실은 오늘 같은 날 제가 ppt를 썼어야 되는 건데 둘째 날 모임에 사진도 찍지 마라, 이제 프레젠테이션 안 한다 해서 정말 깜깜했어요. 근데 주어진 미션대로 그냥 가는데 제가 처음에는 편견 있는 생각과 시선으로 여행자 전태훈이었다 하면서 쪽 갔었어요. 쪽 갔고. 마지막은 여기까지가 결론이죠. 여행 갔더니 어느 하루 일과를 작품으로서 이런 분이 생활예술인이다가 결론이었고, 그 안에서 내가 여행하면서 어떤 걸 봤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내 고향집에 예전에 있던 그런 추억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갔어요. 여행을 하고 집에 왔는데 이 여행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했던 거는 안전 펜스부터 리본을 달기 시작했고 안전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가장 보호해주고 있었던 게 내 집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내 집을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현관 앞에 농구공 하나 하고 목발이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응급실에 혼자 갔다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목발이 집에 있습니까?”라고 묻더라고요. “그런 게 왜 집에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아, 없으신가 봐요. 그러면 구매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하고 쓸모가 없어요. 그날 가지고 와서 세워놓고 치우지 않았던 거. 그래서 생각을 다시 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한 번도 다친 적이 없구나. 나도 다친 적이 없었구나. 어쩌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목발에 리본을 달아줬고, 처음 나랑 같이 여행을 했던 그 리본은 제 목발을 이제 고정시키는 리본 띠가 되어서 신발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봤어요. 집에 그러면 안전한 게 뭐가 있을까 봤더니 하강 대피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하강 대피로 위에다가 물건을 쌓아놓지는 않았구나. 그리고 가스 안전 열림 단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또 좋은 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 집안에 나를 가장 보호해주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해주는 사람들은 사실은 곰탱이는 아니고요. 여우 겹 곰탱이 같은 우리 신랑도 있고, 토끼 새끼 같은 우리 자식들도 있고 거의 악마 같은 착한 엄마가 되고 싶긴 한데 귀신 같고 악마 같은 엄마가 하나 있고... 내 가족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결국에 나는 이들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게 내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 주제 때문에 한 번 여행하고 나서 보니까 내 삶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켜야 되나 그래서 처음부터 리본을 단 건 안전이었고, 그걸 이어가 보니까 이렇게 한 주 동안 혼자 생각을 하면서 지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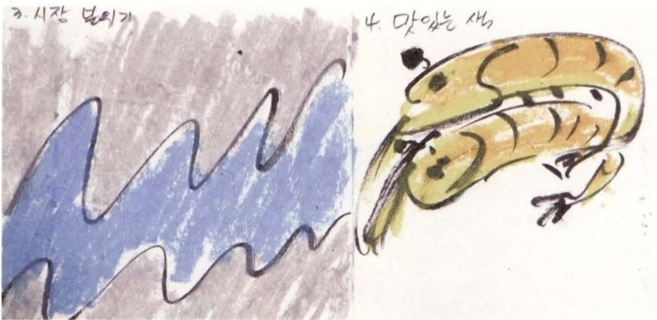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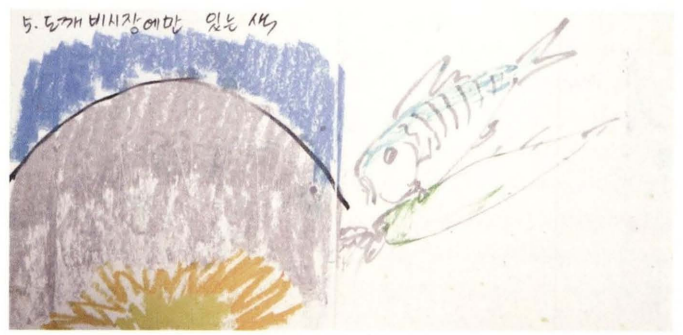
두 번째 날엔 다 모여서 한번 둘러보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둘러봤고요. 내가 그동안에 몰랐던 시장 안에 안전장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소화전이나 말하는 소화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브젝트도 있고. 그래서 오늘 시장을 다시 보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 같이 둘러보고 모였는데 미션이 주어지더라고요.

저는 마음에 들거나 눈길을 끄는 색을 선택한 게 제 리본 색깔 빨간색이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제 보게 됐는데 장터에 이날 비가 와가지고 스티로폼을 가지고 물받이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인들이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재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좀 봤고 이제 빨간색이 들어오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은 휴대폰 가게가 됐지만은 원래 있던 가게가 과일 가게였어요. 그 과일가게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고 없어지기 직전까지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 단골 가게가 되기 전까지는 제가 거래하고 이야기 나눴던 직원 아저씨가 퇴사한 이후에도 계속 다니다가 정들었던 아저씨가 없으니까 저는 다른 가게로 단골을 옮겼어요. 그 아저씨가 맨날 가면 애들한테 사과도 주고 계절마다 하나씩 텀을 줬어요. 그런 기억이 좀 있었고 또 빨간색을 보니까 우체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체통을 보면서 오늘은 내가 집에 평상시에 쓰지 않는 손 편지 같은 걸 하나 보내봐야 되겠다 어디 여행 갔을 때 사실 시아버지한테 편지는 써도 우리 엄마한테는 안 썼더라고요. 그게 조금 생각이 나면서 이날 그래서 편지를 하나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 우리 시장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먹거리 안전이겠조. 근데 어느 가게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노란색 바탕에 100%가 빨간색으로 강조가 돼 있어요. 국내산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누군가한테는 행복 지수고, 누군가한테는 첨가물의 안전도 시험 점수일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부곡 도깨비시장에서 단골집이 과일 가게 말고 정육점이 있었는데 정육점은 지금 없어지고 또 생선 가게로 바뀌었어요. 근데 정육점에서 굳이 또 사야 되는 품목이 하나가 저한테는 반드시 있었어요. 양념된 불고기였는데 요. 그 양념된 불고기는 그 도깨비시장 안에 있는 고기집 보다 맛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불고기가 그다음부터 저희 집 밥상에 잘 안 올라와요. 그 아저씨가 문을 닫은 이후에는 사실 새로운 단골집을 못 정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정육점은 헤매고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생각했었는데 한 가게만 단골을 너무 오랫동안 하면 이런 경우가 있구나.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거에도 적용될 수 있구나. “너 한 사람 한 친구한테만 정주지 마라. 그 친구하고 단절되면 너는 외톨이 된다. 여러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했는데 결국에 저는 몇 년씩 단골을 하다가 문을 닫으니까 갈 곳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주는 이 100%가 행복 지수, 누구한테서 바라는 시험 점수, 또 신뢰감 또 누군가에게겐 로망의 점수 혹은 숫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미션 자체가 나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썼어요. 꼭 채우지 않아도 괜찮다 라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기



그다음에 시장 분위기가 그날 하필 비가 와가지고 살아 있는 생동감 있는 그 시장 분위기는 있으되 하늘에서 비가 와. 땅에도 비가 콘크리트 바닥에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시장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로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두웠지만 그래도 그 속에 희망이 있었다고 느꼈고요.

맛있는 색을 찾으려고 하니까 저는 시장에만 가면 튀김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고구마튀김, 새우튀김, 오징어 다리 튀김 그런 튀김들이 저는 이게 그렇게 먹고 싶어요. 가게 앞에 지나가는 데 새우튀김 이런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다음 도깨비 시장에만 있는 색을 표현을 해봤는데요. 여기도 아까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하늘은 원래 파란색이었고. 그런데 저는 그 위에 쳐진 차광막이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시장 분위기 전체가 빛이 가려져가지고 어두워요. 그러나 그 아래는 뭔가 따뜻함이 있고 사람들의 온정이 깃들어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이 보였습니다.

그다음 시장하면은 추억 거리가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저는 고등어와 무가 가장 추억에 남는 물건이었습니다. 초등학교만 시골에서 다니고. 중학교부터 도시로 나가서 공부를 하면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자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도시락 싸서 가지고 다녔고, 학교 갔다 오면 제가 찌개 끓여서 먹고 국 없이는 못 먹는 식성 때문에 항상 국거리를 찾아서 해매야 했고 그때 제가 살던 자취방 그 옆에는 작은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에 제가 주로 사러 갔던 것이 배추 시래기, 시래기 한 쪽씩 이렇게 겹쳐서 나왔거든요. 그거 사다가 된장 끓여먹고, 고등어가 그때 가장 맛있었어요. 그러면 통통하게 살이 오른 고등어에다가 무 썰어서 넣고 간장으로 이렇게 양념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던 그 고등어가 지금도 입 안에 맴돌아요. 그래서 그날 고등어를 싸게 팔더라고요. 두 마리에 5천 원에 팔더라고요. 굉장히 싼 거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제 고등어는 시간에 쫓겨서 못 사고 그날 생선을 사왔어요. 장어를 한 박스에 1만 5천 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인한테 이거 아나고 맞죠? 그래서 봉장어인 줄 알고 사가지고 집에 가서 그것을

이용기 참여자(이하 이) 저는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좀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그래서 시장에서 느끼는 색을 표현하라고 그러는데 자연에 나갔을 때 색은 물론 내가 볼 때는 파란 하늘이랑 초록 산이랑 그런 게 보여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에서 색을 찾아야 되니까 조금 어려워져서 아주 난감해하고 있는데 어떤 미션 안내문을 이렇게 몇 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문을 받자마자 10분 동안 그냥 다해버렸어요, 10분 만에.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어찌면 나는 어떤 안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그만 힌트라도 있으면은 쉽게 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게 과일이었어요. 그 잘 이어가는 과일들이 아주 눈길을 끌더라고요. 그래서 빨간 홍시 되기 전에 되는 그 주황, 잘 익은 노란색 그런 색깔이 이렇게 눈에 띄어가지고 좀 주황색을 표현을 했고...

나를 닮은 색을 한번 찾아보았는데 무지개를 여러분이 그리셨는데 도루묵이 보이더라고요. 옛날에 선조가 피난 갈 때 하도 맛있어서 은어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맛이 없어서 도루묵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도루묵에서 빛나는 색깔들이 이렇게 무지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조금씩은 알아라, 한 가지 깊이 알아라. 그런 좌우명을 갖고 살아가는데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다양한 그런 색깔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닮은 색깔은 이런 무지개 색깔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장어구이를 해가지고 먹는데 속에 가시가 잔뜩 들어있는
갯장어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에서는 내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샅어야 했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또 꼬들배기를 또
사왔어요. 그래가 또 꼬들배기 김치도 맛있게 담아서 지금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젊은이는 꿈을 먹고 살고 늙은이는 추억을
먹고 산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시장에서 밥벌이라고
하셨습니다 점포 장사하신 분들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것이고,
옛날에 그 추억이 깃들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시장에 추억이
깃들어 있는 어찌면은 보물 같은 장소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
시장에서 꿈과 추억을 보았습니다.



임 잠깐 한 10분 정도 쉴 건데 쉬면서 화장실도 가시고 음료도 마시고 제가 동영상 하나 틀어드릴 거거든요. 오며가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쉬는 시간 이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화장실 가기 전에... 이웅기 선생님이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뭐냐하면 계속 전시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 우리가 말 속에서는 은연중에 계속 뭔가 주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탐구하는 ‘나’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의왕이라고 하는 것, 지역이라고 하는 것 또는 기존의 어떤 우리가 큐레이터라고 어떤 하는 이 사업명하고 내가 하는 이 활동이 어떻게 연결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함과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제가 차차 말씀드리긴 할 텐데 이웅기 선생님은 어떤 표현을 해 주셨냐면요, 제가 그대로 썼는데...

‘나는 아주 어려웠다. 좀 아주 어려웠다. 시장에서 느끼는 색이라는 게 대체 너무 난감했다. 나는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미션 안내문을 받자마자 10분 만에 또 나오니까.

‘아, 나는 안내가 없으면 뭐가 안 되는 사람인가. 근데 반대로 그 얘기는 그냥 조금의 힌트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이게 워크숍의 핵심이에요.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쪽 시장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예를 들면 본 거 느낀 거 어떤 기억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일종의 나를 자각하거나 각성하게 하는 어떤 실마리 같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야기가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고 하지만 그 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남기고 싶은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할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느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웅기 선생님이 이렇게 증언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남기는 것이 전시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콘텐츠’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 하는 것은 강박이에요. 의왕을 담아야 한다는 것도 강박이에요. 의왕은 대체 뭔가요? 지역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우리가 여기서 경계해야 될 지점이 있지요. 처음에 3년 전, 4년 전에 의왕 마을큐레이터 워크숍을 시작할 때 그 사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우리가 경계했었던 게 뭐냐면 의왕을,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의왕을 계속 연결하고 싶다. 이 사업과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 관성에 대해서 자각하는 거, 그런 자각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상한 행위로 계속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거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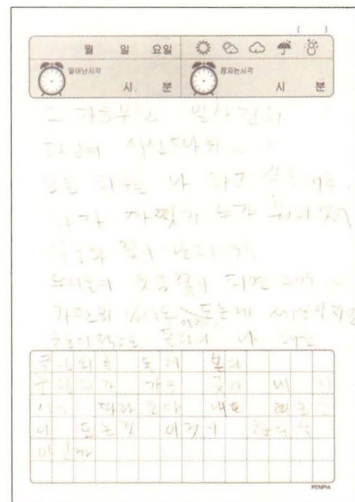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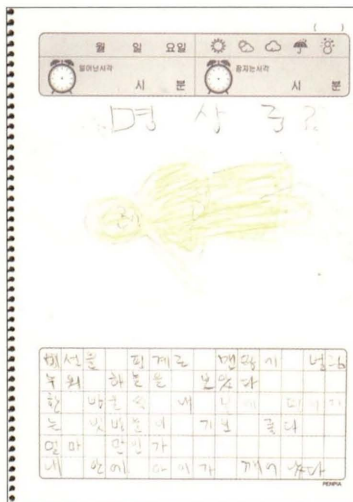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질문에 따라가기도 하고 또는 잘 따라가지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생각했던, 우리가 지금 말했던 불편함과 난감함이 사실 이번 미래유물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전달 될 메시지이자, 콘텐츠이자, 전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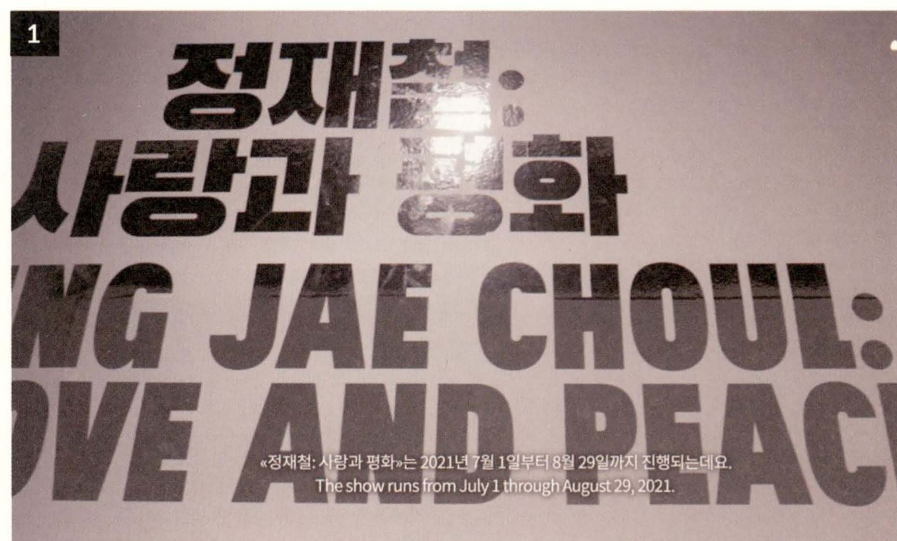
대상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워크숍에서도 그 중요한 말들이 이웅기 선생님이나 중간 중간 이렇게 흘러나왔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반가운 시간이었다. 이 얘기를 각자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분 쉬셨다가 55분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요.

박찬덕 참여자(이하 놀자) (놀자 님이 도착해서 써온 일기를 읽었다)

‘미션을 핑계로 맨땅에 벌렁 누워 하늘을 보았다. 한 방울씩 내 볼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기분 좋다. 얼마만인가. 내 안에 아이가 깨어났다.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 타인의 시선 따윈... 오늘 하루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까짓것 누가 뭐라고 하겠어. 무궁화 꽃은 안 피어도 우리들의 웃음꽃이 피면 그만이고 가만히 있어도 도는 게 어차피 세상인데 창의적으로 놀라니... 굴렁쇠를 굴려본다. 굴렁쇠가 가는 곳에 내 시선이 따라간다. 나도 따라 내 눈알이 도는 것. 이것이 세상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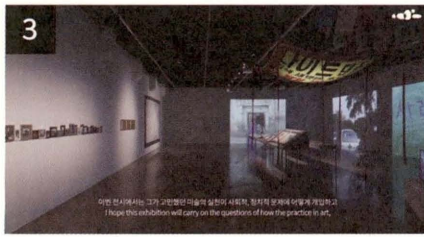


임 어쨌든 같은 어떤 미션들, 같은 시공간에 이렇게 두 그룹이 있었는데 저마다 느끼는 어떤 감정들이 다르다는 거는 되게 흥미로운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공유하는 거는 사실 저희(기획단)가 이 프로젝트하기 전에 함께 봤던 전시예요. 영상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려고요.



앞으로 전시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남아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혹시 전시를 내가 본 전시. 전시를 많이 보세요? 어떠세요? 많이 보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전시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제목만 말을 해주시겠어요?

하이드 저는 요새 과천현대미술관이랑 같이 일을 했거든요. 텃밭 디자인... 일상적인 쿠키호일 이런 게 다 예술이 되더라고요. 토란 이런 것들이 다 예술로 해서



<사랑과 평화> 캡처 사진1-4

2021 아르코미술관 기획초대전

《정재철: 사랑과 평화 Jeoung Jae Choul:

For Love and Peace》online Exhibition

(출처=ARKO Art Center 유튜브 캡처)

중앙에 해놓은 거 보고 우리가 일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다 조명이 되고 전시가 되고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소중하게 느껴지는구나... 왠지 뿌듯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시에 대해 각자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전체의 상이나 풍경이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시를 하게 되는 의왕도서관 다들 가보셔서 아마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 로비에 들어가면 복도 같은 로비에서 우리가 전시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전문적인 전시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영상과 같은 공간) 풍경이 아직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전시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느낌을 조금 연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전시가 어릴 때부터 학교나 이런 데서 이렇게 벽면에만 붙이는 방식의 전시도 있죠, 가장 가볍게는.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유물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어떤 전시의 풍경이랄까 하는 것은 그렇게 친절한 전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친절하다는 기준은 저마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늘 상 아웃풋이라고 말하는 결과물이나 성과물이라고, 익숙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 왔던 것들을 벽에다 평면으로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메시지가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전시의 핵심은 단순히 우리가 했던 과정들을 그냥 단순히 나열하는 것을 전시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전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작가나 여기에 전시를 만드는 어떤 사람들의 세계관 같은 것들이 투사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나. 특히 이 정재철 작가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작고하신 분이네요. 그런데 이 작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개인의 세계관이 이 작업 안에 일관되게 있기 때문에 이 전시가 되게 매끄럽거든요. 그런데 우리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겪었던 어떤 사건이나 시간에 대한 아카이브 전시, -이것도 아카이브 전시예요- 아카이브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말하자면 과정들을 기록한 전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개인의 어떤 세계관과 그 세계관에 의해서 일관되게 또는 변화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겪은 변화이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흐름들이 일목요연하거든요. 또 일목요연함을 보여주는 전시가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면 풍경은 비슷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시를 준비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그건 다른 말로하면 관점이에요. 어떤 관점이나. **마을큐레이터가 사실은 지역에 대한 연구나 탐색, 매핑 이런 것들을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을 하나의 개인으로, 시민으로, 주민으로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내 삶이 어땠으면 좋겠지? 라고 하는 어떤 사유와 각성. 그 사유와 각성들을 불러일으키는 실천하는 어떤 다양한 행위들. 이런 게 사실은 마을큐레이터 사업에서 중요한 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존의 흐름들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흘러왔는지를 보여주는 거. 이게 사실 전시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핑 같은 것들을 했지만 이 매핑 자체가 전시 오브제로 어떻게 쓰일지는 몰라요.

아까 말했듯이 그 관점과 세계관에 따라서 이 오브제들이 어떻게 쓰일지 이제 차차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각자 계속 궁금하실 거예요. 이 전시가 어떤 풍경이 될까?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쪽 나뉘던 이야기, 그다음에 보고서나 예전에 했던 활동 보고서나 매핑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사들이 계속 언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매핑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매핑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처음에 했던 것도 뭐죠? 매핑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내가 한번 해봤던 거. 어슬렁거리기. 어슬렁거렸던 이 행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어슬렁거림을 통해서 내가 나를 그냥 내려놓는 거. 나를 내려놓는다는 건 내 근대성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역이 또는 관이 보통 지역을 호명하는 어떤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은 다른 말로는 관점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을 어떤 식으로, 어떤 관점과 태도로 다루냐면 '대상'으로 다룬다는 거죠. 대상으로 다룬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없어요. 대상으로 다룬다는 것은 그 지역의 과거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현재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학습할 때 매우 경험적이지요. 우리 지역, 예들 들면 되게 복잡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는 이런 귀중한 것이 있어. 너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아요? 이런 방식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도 유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화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동시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또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것을 우리가 문화유산이라고 얘기하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유산이 아니에요. 유산이 되어가는 어떤 다양한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다루는 사람들, 문화를 기획하는 사람들, 문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감각해야 되는 어떤 학습 과정 또는 실천의 과정에서 쌓아야 하는 어떤 역량이 있다고 하면 바로 지금의 삶을 감각하는 어떤 연습이예요. 그래서 작가들이 계속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이상한 이야기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지, 요즘 내 머릿속을 때리는 게 뭔지 이런 부분들. 자기 지금 삶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 삶이 어때야 되지? 앞으로 내 삶이 어땠으면 좋겠다는 바람 속에서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정재철 작가의 저 작업은 사실 당시 그러니까 꽤 오래전부터 1980년대부터... 저 작가 전공이 뭘 거 같으세요? 지금 잠깐 이렇게 영상 저기 화면 나오잖아요. 그게 뭘 거 같으세요? 사실 앞부분에 나오긴 했는데 화장실 가시느라 못 보셨을 거예요.

참여자 사진? 다큐 영상?

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장르가 뭘까 전공이 뭘까.

참석자 실크 로드 에 대한...

임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작가의 이 전시에서 되게 중요한 예를 들면 아르코미술관은 우리나라의 예술이라고 하는 예술위원회, 국가 단위의 가장 큰 예술 지원을 하는, 예술 정책을 만든 어떤 기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이예요. 거기에서 전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름 되게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이 전시의 핵심이 뭘지 아세요?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 그중에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이 전시 초반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원래 조각을 전공했는데 조각 넘어 바깥의 세계를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예술의 세계관이 넓어지기 시작했다. 이게 사실 핵심이예요. 조각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거. 지역이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뭔가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내 세계관을 좁게 만들고, 나를 구태의연하게 만들고, 나를 관성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원래 예술이나 우리가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첫 질문들을 좀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잘 살려고 한 거잖아요. 좋은 삶에 대한 어떤 나름의 탐구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지역 설정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뭐냐는 거죠. 지역이 뭘지? 라고 하는 질문이 빠진 상태에서 지역은 그냥 의왕이예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보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마을큐레이터 사업의 핵심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매핑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과정 중에 많이 했었을 거예요. 매핑 해보니까 어땠죠? 내가 익숙한 동네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한번 다녀봅시다. 그랬을 때 내가 내려와지던가.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단번에 안 되거든요. 예술가들도 계속하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금세 바뀌나요?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까먹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부탁 내지는 과제를 하나 내드릴까 해요. 우리가 이제 다섯 번을 했잖아요. 아까 이웅기 선생님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그랬는데 질문거리는 아닌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한 페이지 정도의 약간 감상문이랄까? 이런 것도 한번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작가의 작업을 계속 이렇게 따라갔잖아요. 근데 되게 난감하고 내가 해보지 않은 것도 있고 해보지 않은 질문들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상한 주문에 나를 얼마나 맡겼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익숙하지 않은 제안에 나를 얼마나 맡겼나...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여기에 좋은 말을 써야 된다는 거 아니예요.

두 번째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어땠나? 같은 연결되는 질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매주, 그러니까 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자기 리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각자 생각하기에 사람들한테 뭘 공유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를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뭐였는지, 뭘 중심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셨잖아요. 뭘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많이 느끼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거나 남기기 위한 남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숙제니까. 근데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중에서 내가 돌이켜보니까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거 중심으로 내가 고민했던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질문을 제가 할 때마다 늘 얘기하지만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그 외에도 자기가 쓰고 싶은 거를 쓰셔도 되는데 최소 분량만 하나 일단 정리해드릴게요. 한 페이지. 그리고 사진 붙이지 마시고 그림 그리시면 안 돼요. 글자로만.

되게 생경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아까 했던 표현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제 생각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침은 아닙니다. 난감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으면 난감함을 그냥 쓰시고, 아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문 자체가 너무 생경해서 오는 불편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문을 따라가다 보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내 삶의 어떤 사건이나 기억을 마주해야 되는 것들이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그래서 내가 마주한 내 삶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근데 다 할 수는 없고,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이 얘기, 꼭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심으로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런 사람인가. 내가 이랬나. 나에 대해서 새롭게 혹시 발견한 내 모습이나 나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이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시 뭐 했고, 2차시 뭐 했고 우리가 어디 가서 홀라후프를 돌렸고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 생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다 겪고 나서 내 생각을 중심으로 작성해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좀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이나 어떤 일상이 흔들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어요. 흔들린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감각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이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해요. 근데 내가 흔들린다고 하는 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흔들리면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내가 뒤쳐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했던 난감함, 불편함, 난처함 이런 단어들은 사실 흔들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옹기님이 흔들림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건데 사실은 오히려 선생님들이 가장 흔들리지 않는 직업들이예요. 정말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고정관념도 많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정답이 있지 않아요. 기술하면 됩니다. 하지만 핵심은 자기가 느낀 거, 자기가 느꼈던 어떤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표현해 보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 뭘지?' 이런 거 좋아요. '이렇게 뭘 보지?' 이런 생각이 다들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숙제라고 하면 또 해내야 되는 거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야기를 조금 다른 상황에서 편안하게, 진솔하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 그거를 어떻게 쓸지는 이제 각자에게 맡기는 건데 소감이 아니라, 소감하면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쓰잖아요. 약간의 제언도 들어가고... 이런 거는 빼주면 어떨까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불편하다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자기는 늘 어떤 상황이었든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그냥 따라갔다. 따라가면서 내 기분이 어땠다 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좀 더 잘 들여다보시라는 주문인거죠. 네, 한번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모아놓은 자료 같은 거 있으시면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신 분 계세요? 오늘 그거를 좀 해볼 생각이었어요. 이런 자료들을 쭉 늘어놓고 이렇게 배열하는 활동 워크숍을 해볼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이전에 활동했던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전시를 준비하는 거는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늘 이렇게 매번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동안 했던 작업에 대한 리뷰라든가 또 오늘

제가 주문한 그런 자기 생각들을 조금 더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글쓰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글쓰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들을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한두 번 정도 가지고자 해요. 그걸 공유하면서 저 자료들을 좀 펼쳐놓고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다면 그것이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좀 자료와 사물, 자료가 없다고 하면 그냥 말로 배열해 보는 시간을 다음에 가져볼까 하는데 사실은 이번 워크숍에서는 오늘이 공식적으로는 마지막이고 또 다음 시간이 일단 한 번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전시를 준비하는 내밀한 작업 같은 것들은 문화원과 문화원연합회 그리고 저희 작가들 또 영상을 찍은 건호 씨와 계속 준비를 하게 될 텐데 그전에 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함께 여러분들의 생각을 수집하는 거죠. 경험을 수집하고, 각자가 품고 있는 어떤 질문을 수집 할 수 있는 전시 워크숍 같은 것들을 한번 할까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도 자료도 조금 다시 보고 그동안 제출해주셨던 자료와 각자의 경험에 대한 얘기를 내밀하게 논의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해서... 그러면 저희가 11월 3일 오전 10시에 만나서 각자 써 본 생각들을 한 데 모아서 펼쳐 나가는 작업을 해볼까 해요.

단 그러면 지금 남겨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럼 내가 유물이 되는 건가요?

임 물론 그것도 얘기가 필요해요. 저 혼자 정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빼고 지역을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런데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을 미래적 가치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무엇일까. 물론 존재 자체도 가치가 있겠죠.

단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사람을 안 놓고 찍잖아요. 그 풍경만 찍으면 흘러가 버리고 말거든요.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연기가 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거죠.

임 그래서 우리가 겪은 사건 자체가 전시의 중요한 오브제다. 11월 3일에 만날 때는 저희가 대략 정리를 해서 지금 이렇게 말로 제가 주섬주섬 했던 이야기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게요. 그래서 지역, 문화라고 하는 게 다양한 거거든요. 각자 겪은 거... 아까 동일한 워크숍들 시공간을 통해서 동일한 미션을 했지만 다 느끼는 거랑 얘기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거죠. 하이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굴렁쇠가지고 놀고 빙글빙글 하고 계속 했는데 윈터마을 얘기로 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윈터마을에 정서적 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경험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함께 보지만 그 경험으로 내가 무엇을 남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역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귀납적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여백

전시를 위한 워크숍

워크숍과 미래유물에 대한 단상 나누기

임재춘 퍼실리테이터(이하 임) 우리가 거의 한 달 만에 만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사라진 거죠, 한 달 사이에... 이번 미래유물전이 12월 6일이잖아요. 거기서 2017년, 2018년 우리가 작업했었던 거, 그다음에 2년을 거슬러서 올해 만났단 말이에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7, 18년도 두 번을 다 참석하신 분도 있고, 한 번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3개월을 우리가 계속 했었던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2년 만에 만났는데 다섯 번 정도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쉽게 휘발되죠. 그것들을 주섬주섬 끌어 모아가지고 전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지난 자료들을 챙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려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고 한 페이지 정도의 글을 이렇게 좀 써보자, 자기 정리에 관한 글이죠. 다 제출 해주셔서 읽어봤거든요. 너무 근사하더라고요. 그날 우리가 말로 들었던 내용도 있고 말로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전에 먼저, 원래 계획에 있었던 건 아닌데 이 질문을 좀 여러분들하고 해보고 시작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체 미래유물은 뭘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하고 여기 계신 참여했었던 작가 분들도 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그 얘기를 나눠보지 못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제출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각자 조금씩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시고 도대체 뭐야, 전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서 나는 뭘 하라는 거지? 하는 궁금함이 많으실 텐데 그 이야기들을 작가들과 저희가 몇 번의 논의를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어떠세요? 정리하면서 워크숍도 참여해 보고 또 전시는 일단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전시회 제목이 미래유물전이라고는 하지만 미래유물전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끝이곧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해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각자의 해석이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용기 선생님 글에서처럼 미래하고 유물이 되게 상반된 의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내가 생각하기에 또는 오래 전 일이긴 하지만 17년, 18년도에 마을큐레이터 사업, 이번에 다섯 번의 워크숍 이런 걸 통해서 미래라고 하는 게 뭘지 그리고 그 속에서 유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조금 여쭙고 싶어요. 어떠세요? 미래유물, 내 생각엔 좀 이런 것 같다 하는 무엇이든 생각하신 게 혹시 있으세요?

박찬덕 참여자(이하 놀자) 미래유물이라고 하면 미래의 유물이 될 것이니까 현재가 유물이 아닐까...

임 현재가 유물, 지금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렇게도 같이 질문할게요. 두 가지를 미래의 유물이라고 하는 거, 그 시점에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러면 유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가치 있는 뭔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무엇을 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자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아있는 삶 자체가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행위 자체도 구슬을 한다거나 기록을 남긴다 그러면 이게 다 유물이 될 거고, 저는 지난번에 농담처럼 살아 있는 게 예술이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서 미래유물이란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말 자체가 매력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임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이용기 참여자(이하 이) 유물 하면은 주로 우리는 여태까지 사고방식이 어떤 물건이나 유형의 형태의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거는 꼭 그것만이 어떤 유물이 아니라 무형의 어떤 정신이나 생각, 사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유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의 것을 그런 형태로 표현해 보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형 형태만의 것이 아니라 무형 형태가

남겨지는 과정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임 맞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때세요?

문희숙 참여자(이하 문)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공간이 꼭 훌륭하고 유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좀 많이 와 닿았어요. 하이드 농장에 갔을 때는 나의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자연에서 같이 벗 삼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에서 가장 소중하고 다시 그걸로 많이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중했는데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있어서 지금 기후 위기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맞닥뜨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오전동 가족 공원에 갔을 때 놀이터가 리모델링이 된 놀이터였어요. 놀이터도 시대의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봤던 그 놀이터는 원시시대 놀이터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원시 시대에 살았다면 이런 언덕에서 줄을 잡고 뭔가 사냥을 하고 뭔가 그런 놀이터로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 않나. 그러면 이것도 과거에 우리가 갖고 온 놀이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설은 가장 최근에 만든 놀이터였거든요. 옛날 놀이 방식을 그대로 갖고 보존이 되어 있고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 아이들이 발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놀이터를 또 채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했던 놀이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였어요.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우리의 전래 놀이, 놀이도 가치 있는 유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잊혀지는 거죠. 잊혀지면서 소중함을 몰랐다가 그 가치가 한 번 이렇게 드러나면서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닫고 또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다는 게 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행위들이 있었기에 지금 4차 산업혁명까지 올 때도 과거에 1차, 2차, 3차, 4차가 없었다면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은 분명히 1차, 2차, 3차, 4차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기반이 되는 것들을 보존할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임 근데 굳이 작가가 그런 놀이의 가치를 생각하고 이 미션을 준비했을까? 이걸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웃음)

문 그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느낀 거죠.

임 아니 그러니까, 이런 우연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작가는 사실 이것을 어떤 의도로 여러 가지 어떤 미션들을 설정할 수 있었을 텐데 작가가 그중에서 뭔가를 설정했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거는 아직. 저도 잘 못 모르겠어요.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누군가는 이것이 우리의 전이나 우리 작업에 관련된 되게 중요한 키워드,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호명되는 미래나 유물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유나 경험들이 연결이 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옛날 놀이가 왜 가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시대에 특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도 아이들이 막 놀잖아요. 근데 옛날 놀이가 왜 요즘에 특히 더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문 전문적인 용어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왜 유전적으로 몸이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사냥은 본능적으로 옛날 원시시대 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냥의 본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일 중요한 거가 영상 작가가 술래였거든요. 왜냐 그분도 찍어야 된다는 그 역할이 있지만 놀고 싶은,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나도 모르는 그 유전자가 아마 몸 속 깊은 곳에서 원시 시대의 유전자들이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이 원시의 피가 흐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쇼핑의 스타일이 다르대요. 남자는 그냥 한 마리 잡으면 끝인데 여자들은 수렵하면서 과일 따고

그래서 백화점 가서 둘이 같이 가면 피곤하대요. 남자는 하나만 사면 끝이야.

임 그런데 저희 남편하고 저는 되게 다르고 반대거든요.

이 저는 옛날 놀이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대 놀이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기계하고만 놀고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없는 그런 놀이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는 그거를 찾고자 하는 그런 게 행위본능이 있는 거. 그래서 옛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놀이들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참 딱 해요. 그래서 그것이 여건만 갖춰지면 사람들이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임 네, 관계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직접 만난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군요. 다른 분들은 어때요?

박단경 참여자(이하 단) 아까 박찬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에 대한 거... 요새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개인적인 애긴데 며느리가 6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애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수시로 입원을 하는데, 집에서 우리들 먹던 거 그냥 밥 끓여서 죽 되도록 해서 그거 먹여라, 어디서 사다 먹이지 말고... 사서 먹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좋다는 걸 다 사서 먹이는 애가 쌀가루도 안 좋고 다 안 좋는데 끓여서 푹푹 끓여서 먹여라... 이것이 유물이구나. 옛날부터 어른들이 씹어 먹이는 거 위생적으로 안 좋다 하지만 굉장히 그게 괜찮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래유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전해 내려오는 어떤 습관이나 방식이나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게 자꾸 맥이 끊기잖아요.

임 의미 있는 것들, 소통 가능한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전혀 이렇게 소통되지 않는 것 이런 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의 차이들이 분명하게 있는데...

놀자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크게 변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우리는 옛날에 부모님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다 같이 살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몸으로 체득이 됐죠. 배워서 알아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지금 현재로는 대부분 핵가족도 아니고 초미니 가족이라고 해야 되나. 애도 하나밖에 안 낳죠. 요즘에 또 애도 안 낳고 딩크족이 자꾸 늘어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 자체도 없어질 뿐더러 계승이 될 수도 없죠. 지금은 밥상머리 교육도 없어지고 보면서 배우는 그런 게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유물이라고 하는 애기가 저는 거창하게 생각이 안 들어요.

임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포럼이 있었어요. 미래 교육에 대한 주제였는데 조한혜정 쌤이 발제자였어요. 선생님이 미래가 어떻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는데 문제라기보다 아까 웅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제가 백번 동의하거든요. 지금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계속 과거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순간에도 이미 과거가 되고 있는데 지금을 우리가 어떤 감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하냐 내지는 문화적이냐 아니면 포용적이냐 또는 배려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돌봄으로서의 인간다운 어떤 가치들을 나는 생각하고 있느냐, 생각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천하고 있는... 이런 게 지금 막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나 나의 실천이나 삶, 내 주변에서 또는 내가 했던 행위와 생각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미래적 가치나 또는 유물로서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어떤 방향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미래유물하면 굉장히 거대한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유물들 있잖아요. 기와집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물이 아니라고 누가 부정하겠어요, 유물이죠. 그러나 아까 웅기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물은 그것만이 유물은 아니거든요. 사실 유물이 제 손바닥에 있는 게 전체 유물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유물은 이 손톱, 엄지손톱만큼만 해당돼요.

사물, 물건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만들어지고 우리가 각자 살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가치들로 채워질 것들은 많이 남아 있는데 그동안 문화나 유물이나 또는 이런 전시에서는 전통적인 것만 가지고 미래적 가치가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게 이번 미래유물전에 되게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출해 주셨던 것들을 보면서 그런저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가 워크숍 하면서 느낌이 어땠나, 해 보면서 내가 해오지 않은 것들을 따라가면서 이상한 경험들을 한 거잖아요. 그럴 때 내 감정이 어땠나, 느낌이 어땠나, 이런 질문들을 조금 했었어요. 그 이야기들을 문서로 작성을 해 주셨는데 너무 글들을 잘 쓰시더군요. 그런데 저는 봤지만 또 서로 잘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짧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보도록 할게요. (*참여자 작성한 원페이지 159p에 수록)

전태훈 참여자(이하 전) 지난번에 발표했던 것처럼 이 큐레이터 교육 과정에서 두 분 작가를 만났고 작가 분들의 시선과 생각을 공유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한 가지를 선택을 했는데 나는 개인적인 아이템을 장착하고 팬스레 신이 났어요. 그래서 의왕에 15년쯤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컨셉을 잡고 새로운 곳으로 또 우리가 익숙한 곳으로 우리 팀원들과 함께 나들이를 했는데 의왕은 여전히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고 그 안에서 나도 변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찍은 사진을 제외하고는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활동 조건을 공유 받고 나의 생각과 시선을 의도적으로 맞추고 산책하며 기록하고 생각하고 관찰하며 팀원들과 공유하면서 다양하게 창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선생님들이 다른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리송한 마을큐레이터 활동을 통해 스스로 느끼고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다. 활동을 마치면서 마을의 자료들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낯선 것 속에서 익숙함을 찾고 익숙함 속에서 추억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내적 안정감은 나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평안함을 바탕으로 마을로 나와 많은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쳤어요. 근데 저는 이 마을큐레이터하고 미래유물전이 이렇게 붙었잖아요. 유물이라고 하는 거는 한 100년 전쯤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가치가 있어’라고 인정하는 거 혹은 이것도 이제 와서는 ‘유물이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랬던 것만 생각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서 미래의 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나는 어떤 것을 유물로 내가 만들어야 될까,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또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좋을까 그 부분을 생각 하면서 따라다니기 사실 바빴던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이것도 될 수 있어’, ‘저것도 될 수 있어’ 하고 느끼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이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 네, 좋아요. 또 어느 분이 하실까요? 다 읽지 않으셔도 돼요.

이 유물전, 유물을 모아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이라고 국어사전에는 풀이되어 있다. 그럼 유물이란 선대의 인류가 후대에 남긴 물건이라고 되어 있다. 그럼 미래유물전이란 미래와 유물이라는 상반된 두 단어가 합쳐진 미래유물전. 시작부터 생소하면서 손에 잡힐 듯하니 잡히지 않는 개념이었다. 어렴풋이 현재도 이미 말하는 순간 과거가 되어 있고, 지금이 미래에 보면 과거라는 이야기이고 지금 것이 미래의 유물이라는 것 같다. 다만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을 기존의 틀을 깨고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다. 속도를 더한 관점, 처음 가보는 여행자의 관점, 색깔로 바라보는 관점, 생명을 찾아보는 관점.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없었다. 생명과 색의 관점에서 바라봤던 오매기 마을을 바라보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답답하기만 했고 미래를 디자인하기 위한 현재의 분석에 초보적인 나는 작가로서 소질이 없음을 한탄하기만 했다. 자연 속에서 난 틀을 깨지 못하고 있었다. 뱀아리는 알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도깨비 시장을 찾았다. 출타동시. 색을 찾는 몇 가지 작은 힌트가 주어졌다. 그때 도깨비라는 밝음이 보였다. 우중충함도 보였다. 추억도 있었다. 꿈도 있었다. 미래의 과거에는 현재를 대표하는 것들을 것들은 꼭 유형의 물건만은 아니다. 나와 나의 느낌과 사람들의 생각과 풍기는 분위기와 냄새와 색깔 등의 무형의 것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혹자는 파란색으로, 혹자는 빨간색으로 보일 것이고 또 표현되어질 것이다. 정답은 없다. 어떤 이에게는 힘들고 어려움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꿈과 희망일 테니... 뱀아리는 엄밀하게 쪼아주어야만 깨어난다고 한다. 어미뱀이 쪼아주지 않아도 깨어날 수 있어야 한다. 부화기 전에 그냥 깨어나더라고요. 현재를 보는 관점을 내가 만들어 보아야겠다. 내 스스로 알 속의 뱀아리면서 밖에서 쪼아주는 어미뱀이 되어보고 싶다. 제가 쓴 거고요. 그래서 이 숙제를 저는 저번에 못했었어요. 오매기 마을을 생명과 색으로 표현을 하려고 보니까는 도저히 막막해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를 하다가 두 페이지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오늘 아침에야 완성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완성을 하면서 제가 보았던 오매기에는 여러 가지 생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이 전기 고압탑이 나는 아주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오매기 마을을 전체를 뒤덮고 있는 이 시커멓고 우중충함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큐레이터 할 때 냈던 저것도 지금 보면 참 소중한 자료고 유물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오매기 마을의 내 느낌을 표현을 그대로 한번 남겨놓은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식탁에 앉아가시고 펜을 꺼내가지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저수지에서부터 생명이 흐르는 강줄기를 쭉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모락산 꼭대기의 국기봉, 이게 저기 뒤에 있는 수리산 그려놓고 앞으로 우리는 경관 망각 증상이 있어서 개발되고 나면 금방 잊어버려 옛날이 어떤지를 몰라요.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발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데 좀 있으면 이거 우리 여기가 논밭이 있었는지 다 잊어버릴 거라고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 청산별곡처럼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오매기에 살어리랏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해 봤습니다.

임 옹기님이 바라는, 꿈꾸는, 기억하고 싶은 오매기...

이 그리고 문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오래 전부터 생각한 거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가정이 합쳐져서 결혼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시댁의 문화와 자기가 가져온 친정 문화가 합쳐져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을 한다고 봐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은 대부분 이렇게 어떤 가족형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따로 살다 보니까 이 시댁의 문화가 합쳐지지 않은 인터넷 문화만 가지고 살아요. 아이 키우는 것도 인터넷으로 키우고 있고 다 인터넷으로 키우고 있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어 나가지 못하고 이게 끊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한 20여 년부터 이 문제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저는 문화 붕괴라고 저는 보거든요. 붕괴되고 있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미래유물전을 하면서 생각한 게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어떤 물론 제안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무형의 것만 많이 강조를 해서 지금 하시더라고요. 근데 유형의 것까지 합쳐진 것 까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는 옛날 것을 보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농장에다가 지푸라기로 이영을 엮어서 일부러 초가집 형태로 만들어 놓고 지게를 하나 이렇게 엮저게는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지게 이야기를 올려놔더니 다른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지게 있었는데 버렸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면 “요즘에는 알루미늄 지게가 가볍고 좋아요.” 하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야 벌써 불과 몇 십 년 안 지났는데 이렇게 세상이 변해버렸고 아까 인터넷 문화가 지배한다고 하듯이 그렇게 옛날 것이 아닌 새로운 알루미늄 지게가 지게를 대표하는 양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 유형의 형태 같은 것들도 같이 첨부된 유물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더라고요.

임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으로 그러면 이어가볼까요. 우리가 어쨌든 생각은 다 다룰 수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들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문화와 문화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만나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떤 다른 지점들이 있거든요. 늘 똑같은 것은 불가능해요. 문화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양식을 문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화와 문화가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갈등을 말해요. 이 갈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옹기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갈등이 일어날 여지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의미 있는 변이들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 사회나 내 삶이나 우리 가족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아갈 수 있는 것... 어떤 거는 서로 배우면서, 어떤 거는 지키면서, 어떤 건 또 새롭게 알아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의 균형감 같은 것도 생길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문제점 그래서 문화 붕괴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런 우려와 걱정들을 다양한 어떤 유물이나 사물들을 함께 해서 전시에 담아 뒀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 또는 제안도 해 주셨어요.

단 제가 짭짤하게 끓어서 읽을게요. 생의 길이 그러하듯 보이지 않던 길도 나타나면 걸어가게 되는 것처럼 안개 숲을 헤매다 막 비치기 시작하는 햇살아래 드러나는 형상들을 발견했을 때의 신비로움처럼 호기심과 막연한 기대감이 일렁였다. 답사 장소를 이동하여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면서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도통 감이 오지 않았지만 따라가다 보면 뭔가 보일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함께 일어났다. 그래서 그 색깔과 여행을 가지고 주제를 삼았기 때문에 여행을 떠났을 때에 이야기를 썼습니다. 계획표를 작성하지 않고 발길 닿는 그대로 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낯선 풍경과 사람들, 예기치 않은 일과 사건들 그리고 잔잔한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이 여행의 묘미다. 변신하는 자신의 모습과 낯선 것들과 동화되어 가는 즐거움 삶의 활력이 된다. 여행에서 얻게 되는 시야의 확대와 여러 가지 경험들, 나와는 다른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생활들이 흥미롭다. 그리고 제가 같이 참여하고 몇 시간 되지는 않았지만 그 와중에서 저를 반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인이 된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에 놀랐다. 요가 강사를 하면서 행했던 그 관습들이 몸에 배어 있었는지 은연중 주변 분들을 지도하는 것 같은 과거의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 했고 문득 미안했다. 그래서 이게 문화라는 것이나 유물이라는 것들도 지금 내가 이 배어 있는 것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이것이 과거부터 끌고 와서 여기 있잖아요. 이것들이 또 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임 그러면 요가 강사 십년 하면서 내가 버리고 싶은 어떤 날 습관은 유물일까요? 아닐까요?

단 그것조차 다 유물이겠죠. 그런데 유물과 쓰레기라는 차이가 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를 돈이 된다고 하고 그게 병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있고...

임 누군가는 버리는데

단 네. 그래서 그게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이나 없는가의 차이인 거 같아요.

임 근데 그 가치가 있다 없다가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단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가치 있는 유물이고 물건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또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다양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냥 요즘에는 유물이라는 것을 돈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물이라는 것도 옛날에 젊은 나이에 자살 한 시인이 있어요. 근데 그 시인의 유고 시집을 제가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거를 인터넷에 쳐보니까 그 시집 값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말하자면 이것도 유물인데 그 가치를 옛날 거라고 다 버려야 되는가 또 아니면 간직하고 있는가 그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보통 사람의 유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뛰어난 사람들의 가치가 유물이 될 것인가 또 이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임 그러면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을큐레이터 과정 그다음에 이번에 9월에 다섯 번 만남 과정에서 이게 참 가치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경험한 것 안에서 이런 게 있다고 하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뭐가 있어요?

단 먼저 번에 마을큐레이터 할 때 제가 비닐하우스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마을에서 그 비닐하우스도 지금 또 변할 거 아니예요?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미래에 애들이 보면 ‘어머 비닐하우스에서 저렇게 살았어?’ 왜냐면 우리 초가집에서 뭐 불이 있어요, 호롱불 키고 살았는데 ‘어머 그랬었어?’라는 것처럼 비닐하우스에서 사람이 살았어? 어떻게 살았을까? 라든가 그런 것도 가치가 있는 유물인 거 같습니다.

임 네, 미래는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특히나 더 예측한다고 하는 게 물론 지금 4차 산업혁명, 데이터 시대 이런 얘기 하면서 데이터 시대를 관통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측 가능하다고 하는 ‘확증’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확신할 수 없다고 하는 사유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게 기술주의자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상식인 것으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대하는 생각과 미래에 한 50년 후에 비닐하우스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몰랐던 이들이 그 비닐하우스가 그 당대에 어떤 의미였는지, 왜 거기에 그런 비닐을 씌워서 뭐를 했는지, 사람들은 심지어 거기서 왜 살았는지... 이야기들을 궁금해 하거나 묻거나 할 수 있고... 완전히 다른 삶의 풍경들, 도시의 풍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도 충분히 유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죠.

단 그래서 누가 어떤 글을 썼을 때 그 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배경과 문화까지 봐야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전쟁 중에 글을 썼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런 글을 썼을까. 그러면 이것만 봐가지고 이해가 안 되면 그 시대의 배경 또 문화까지 같이 들어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것도 지금 이 시점에 서는 상당히 중요한 골자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왜 코로나 시대에 저 마스크를 왜 썼을까 신기하네. 왜 썼을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스크를 얘기할 때는 벗지만 이거를 굳이 여기다 차고 사진을 찍기도 해요.

임 지금의 삶을 좀 그대로 보여주고 싶고, 남기고 싶다 이런 거네요.

단 그 시대에 우리가 풍경만 찍지 말고 자동차라든지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게 있으면 그 시대가 가늠이 돼요. 근데 풍경만 찍으면... 누군가는 거기에 곁들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임 삶의 구체성들이 묻어나 있는 어떤 사물이나 모습들이 함께 사진에 담겨지면 좋겠다는 바람인거죠.

단 지나가는 사람도 하나의 풍경이 되고 그것도 모습이 되니까 다양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임 좋아요. 다른 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혜숙 님 하실까요?

강혜숙 참여자 저는 이번에 미래유물전을 준비하면서 내 느낌을 썼는데요. 사실 3년째거든요. 2년 동안 마을큐레이터를 하고 이번에 하는데 나는 내가 게으르고 숙제를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오늘 아침까지 숙제했어요. 오늘 아침까지 이 그림을 물론 한쪽에다가 이렇게 비껴 놔둔 것도 있었지만 참 이게 정리가 잘 안 됐어요. 뭘 해야 하나 항상 그 고민만 하고 있다가 오늘 숙제는 제출해야 하니까 오늘 아침까지 그 밥상에 앉아가지고 이거 그리고 오느라고...

시간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이렇게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것인데 저도 오늘 와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나도 미래의 유물을 준비해 놔더라고요. 2017년인가 저희가 저 도서관 옆에 골우물 마을이 있죠.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그쪽에 이씨 가문의 모든 집들의 대추나무, 감나무 그런 나무 조사를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저기 아마 나도 유형이든 무형이든 어떤 문화유산이 있는데 그래도 나도 유형으로 저렇게 남겼구나 이 다음에 그 마을이 사라질지언정 옛날에 저쪽에 저런 감나무들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내 느낌을 위주로 썼어요.

미래유물전을 준비하며

의왕문화원 입구에 들어섰을 때 눈에 들어온 미래유물전.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그 단어를. 미래유물전이라는 단어가 참 생소하고 머릿속에서 상충된 두 단어가 정리가 되지 않고 맴돌기만 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텔레비전에서 방영했던 영화, '백 투 더 퓨처'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 영화명을 직역해보면 미래로 돌아가다가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다가 맞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봤지만은 영화를 보면 과거로 갔던 주인공이 다시 미래로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의왕시도 언젠가는 유물이 될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었다. 의왕시 곳곳을 작가와 돌아다녔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녹음 짚은 나무, 노랗게 입어가는 벼, 빨강계 물들어가는 단풍잎을 보면서 몇 년 안에 사라질 오매기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여러 관점들을 가지고 동네를 천천히 살폈다. 천천히 걷는 사람들과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 어디론가 향하는 등산객들 푸른 하늘의 저수지, 바쁘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저대고 있는 새들. 집에 돌아와가지고 생명과 색채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캠퍼스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앉았다. 자연의 움직이는 숨 쉬는 모습을 한 폭의 그림에 담기에는 자연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그 모습을 떠올렸다. 이 자연의 모습, 현재의 모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을 후손들에게 미래의 자식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 전시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며 혼자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난 항상 어렵다라고만 이번엔 이야기한 것 같았다. 미래유물전! 미래와 유물이라는 상반된 두 단어가 합쳐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창출되어야 하는 미래유물전. 현재의 마음 모습이 미래의 소중한 유물이 될 것이며 우리의 일상적인 삶 또한 미래의 소중한 모습이 될 미래유물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둘러보고 미래를 그려보기 위해 지금의 현재를 기록해 유물로서 후손들에게 남겨 주어야 하는 미래유물. 자연과 하나가 된 푸른 의왕의 자연환경의 모습. 면적의 80% 이상이 자연녹지로 되어있는 아름다운 경관의 모습을 가진 의왕의 현재의 모습을 유물로 남겨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여주고 싶다. 현재의 모습에 작가인 나의 예술과 기술을 합하여 이렇게 작품으로 이렇게 작품으로 남기도록 해보겠다. 백투더퓨처의 주인공이 현재를 바꾸기 위해 과거로 시간여행을 한다.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가고 싶은 과거가 되지 않기 위해 현재를 아름답게 만들고 보존한다면 좋은 미래유물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임 네 멋집니다. 시네요, 시.

문 두 선생님들의 말씀이 오늘 아침까지 고민했다는데 그게 오늘 아침에 마무리를 한 거죠. 계속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저도 이 페이지를 내는데 정말 이 A4 한 장 글쓰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게 유물을 남기려면 참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정말 늦게 내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런데 그만큼 고민은 많이 했는데 글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가 어려웠고 그래서 작가 분들이라고 하는구나... 표현을 잘하니까... 저는 표현을 잘 못하니까 이래서 아마추어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끼면서 우리 미래유물전하면서 ‘감각, 스위치 켜기’라는 현수막이 저한테 가장 크게 다가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적극적인 나를 찾으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서 유물을 갖고 올 수도 없고 현재에서 뭔가 지금 당장 유물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기는 좀 어려운데 작가 분들이 미션을 주면 그러면 거기서 100% 적극적인 나를 찾아서 표현을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었고 ‘해보니까 어땠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주변 시선보다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지 않았고 그다음에 우리 팀원들을 좀 잘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동기 부여가 되고 누구하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 힘들었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힘들다라는 거보다는 같이 하니까 할 수 있었고, 함께하니까 더 잘 해야겠다 라는 그런 시너지들을 좀 많이 받았던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누구나 맘만 먹으면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나를 발견하는 시선이 쉽지는 않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느꼈고 그러면서 또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고, 내가 이랬나? 새롭게 발견한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라고 내가 하면 어색할까 했던 행위 예술이 우선 저는 전공이나 이런 부분들로 좀 많이 신경이 쓰였어요.

아까 전에도 작가와 아마추어 사이를 좀 얘기했었는데 그게 요즘 사회에서 좀 괴리감을 느끼는 부분이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나도 충분히 작가인 것 같고 작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인정을 못 받을까? 그랬을 때 이게 전공(?)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와 놀이가 경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놀이는 생각 없이 놀자였고, 예술은 그래도 기획 의도가 있고 작가의 의도가 있고 주제와 목적이 있어서 이게 또 그만큼 인정을 받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그 경계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임 다르게 느껴진 거예요?

문 그렇죠. 그냥 유행이어서 할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작가의 기획 의도를 들여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작가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좋은

에너지 받으면서 주변 시선을 관찰하는 거를 했어요. 왜냐하면 감각 스위치 켜다 보니까 내가 해바라기를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그 사진도 좋아하고 나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오는 그날도 비가 왔는데 나팔꽃이 폈다졌다 하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니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는 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저희가 오전 시간이다 보니까 비가 와서 어떤 건 오므려서 거기에 곤충이 들어 있고 어떤 건 퍼져 있고 그래서 그런 주변의 꽃을 좀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하나의 놀이로 생각했던 것들이 마음 가는 대로 표현하면서 행위 예술과 퍼포먼스에 대한 느낌은 조금 더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진전을 한다고 하면 너무 뻘한데 요즘은 트렌드가 사진전 플러스 알파 행위 예술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오프닝을 할 때 보면 간단하게 우리 문화원에서도 행사를 할 때 보면 풍물놀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식전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식전 행사의 형태가 변한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퍼포먼스가 새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전 행사의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전통을 봤을 때는 음주 가무를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비가 오면 막걸리가 먹고 싶었고, 파전을 웬지 부쳐야 돼서 저희가 올 때마다 비가 왔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갔을 때도 나라에서도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서, 슬프면 슬퍼서 풍악을 울려서 거기에는 항상 슬픈 춤이 있었고 행복한 춤이 있었고 음악이 있었고 술이 있었고 그런 행위들이 항상 있었던 거죠. 그게 잔치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되면서 나름의 매뉴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백일 잔치할 때는 수수팔떡이 있어야 되고 뭇 백일떡이 있어야 되고 돌 때는 뭇가 몇 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려와 있고 우리는 생일 되면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전해져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주 가무의 표현이 예술을 만나면서 좀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저는 자연과 함께 하고, 내 내면과 함께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와 함께하는 예술을 보는 그 눈을 조금 다르게 했었고 나중에 문화 쪽을 더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저는 항상 20대 때 제가 그런 파티 문화를 좀 공부하고 하면서 음주 가무에 대한 것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줌마들하고 만났을 때는 와인을 공부할 때도 있었고 막걸리로 공부할 때도 있었고 젊은 친구들이 있을 때는 수입 맥주를 놓고 막 파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어느 순간, 아줌마가 되면서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시 막걸리를 만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음주가무가 어떻게 보면 패쇄적이고 좀 나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봤을 때는 이게 우리의 문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노래방이고 뭐고 되게 많이 닫혀 있는 상황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같듯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유물하고 같이 감각이 좀 켜지면서 뭐라고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감각 스위치라고 하는 어떤 개념들에 약간 갈증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워크숍 통해서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막 건드려진 거죠. 들쭉들쭉한 거죠. 정리가 안 되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게 일상천리로 정리가 되면 더 이상하죠. 정리가 안 되는 게 당연한데 사실은 정리를 꼭 해야만 하는 게 우리가 배워온 교육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 우리가 지난번에 선생님들이 했던 말들을 조금 기억해 보자라고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고백들이었잖아요. 어지럽고 나는 아직도 애매하고, 잘 모르겠다, 정리가 안 된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비로소 사람들이 모르니까 탐색을 하거든요. 모르니까 더 들여다보게 되고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확신, 아까 데이터 기반으로 내가 뭘 예측할 수 있다고 한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어떤 가치는 일일이 다 있죠. 자기의 어떤 직업에 있어서도 있고 다양한 관심사도 있고 다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그런 알아차림의 감각들을 얼마나 열어서 개방적으로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학습하는 것이지 않을까 저는 혼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잘 표현해 주신 분도 있지만 여전히 그런 표현조차도 약간 생경한 또는 잘 정리가 안 되는, 안 되는 대로 그렇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오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놀자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미래유물하고 대입시켜서 글도 다 작성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때 그 시간에 감정에 충실했고요. 미래유물전을 준비한다기 보다 그때 내가 그 상황을 어떤 생각으로 임했고 그걸 하면서 어떤 생각들이 들었는지 그런 거를 적었어요. 이것을 하나하나 다 말할 수 없고요. 그냥 그때 이 글을 쓰는 걸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카톡에 올라온 걸 보고 당일에 못 쓸까 봐 양해 말씀을 먼저 ‘오늘 제가 못 쓸 수 있어서 내일까지 보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쪽 쓰다 보니까 금방 써지더라고요.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카톡 공지를 보고 불이 나게 컴퓨터 앞에 앉았다. 앉기는 앉았는데 뭘 써야 할지 막막하다. 그때 생각이 그랬어요. 우리가 수업을 했고 뭐 활동도 했지만 뭘 해야 할지... 지금 선생님들은 굉장히 사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전 좀 즉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래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난 항상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막막하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하겠어. 뭘 쓰라고 하나 꼼꼼히 살펴봤더니 뭐가 불편했고 어떤 걸 했는지 쓰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숙제니까 또 열심히 하자 그래서 막 썼어요. 그리고 긴 내용 중간하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은 읽어드릴게요. 돌아보면 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왔던 것 같다. 거의 매일같이 일정이 있고, 달별로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도 있고, 매일 해야 하는 일도 있고, 맘먹고 시간을 내서 몇 날씩 여행을 가기도 하고, 중간 중간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어느 날 일정이 비는 날은 심지어 영화라도 보러간다. 전업주부인데도 스케줄표를 뽁뽁이 채우고 있는 해야 할 것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 일들을 처리해내느라 시간을 쪼개가며 생활한다. 때로는 이런 일상이 벅차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정해진 일들을 하나씩 완수해가면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한다. 어쩌면 난 빈칸 없는 삶을 살아야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살면 내게 마을큐레이터 미션은 신선함이고, 힘을 주는 시간이고,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중에 소나기같이 시원한 시간이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일까? 아무 생각 없이 해야 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해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 어쩌면 앞으로 오늘 같은 날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제가 그동안 살아왔었던 게 그날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하면서 뭐가 불편하냐,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불편하지 않았어요.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주어진 일이라면 반드시 그 일을 해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평생을 6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작가 두 분이 너무 다른 성향을 가졌는데 만약에 그걸 내가 수행해내지 못할 거라면 굳이 작가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고 내가 선택한 거니까...

임 나를 계산을 하신 거군요.

놀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무리하게 욕심내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패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내가 뭔가를 하면 그걸 반드시 이루고 성과가 좋아야 기분이 좋잖아요. 성과 지향적인 그런 사람이라 내가 못하는 걸 가서 잘 해내지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싫어요.

임 나를 잘 아는구나, 놀자 님은. 자기 자신을...

놀자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데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사람들 속에서 뭔가를 해내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거든요.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거리를 계속 만들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뭘 계속 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때 선생님들 얘기를 듣고 오늘 생각한 건데 그 놀이가 왜 옛날 놀이가 다시 돌아오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그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의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하고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는 거를 거의 단절하고 살잖아요.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그러다 옛날 과거의 놀이들은 혼자 할 수 있는 놀이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만 해도 혼자 절대 못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데 잘 못한 친구가 잡혀 있는데 나만 생각하면 내가 개를 이렇게 묶어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나만 살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 그 친구를 구하려고 그 술래의 눈을 반짝반짝 지켜가면서 풀어주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계속 바쁘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현대사회 속에서 성과 지향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인간성을 좀 회복해야 되니까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각하지 않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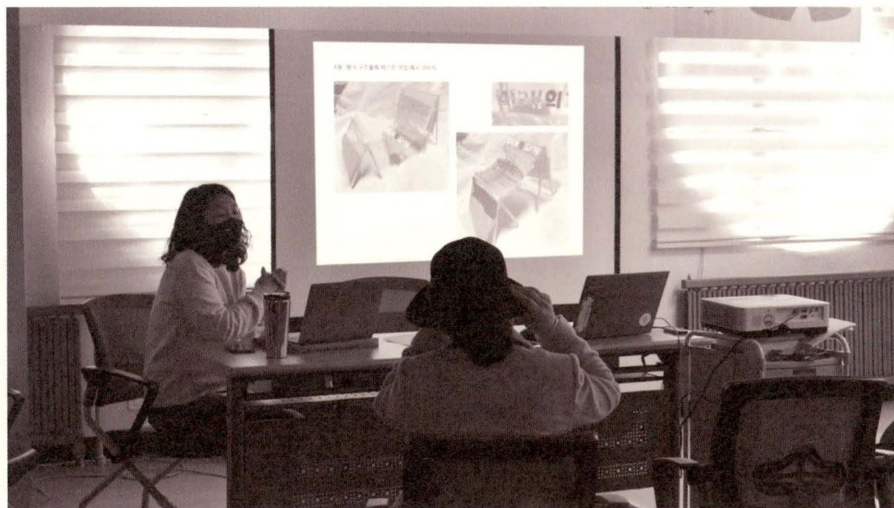
임 그런 것 같아요? 놀자, 스스로?

놀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재된 내 마음에 우리가 인간이 사람이고 고등적인
동물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동물이잖아요. 고등 동물이어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알게 모르게 네... 위기의식을 느껴서 자각하면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래서 요즘 마을이라든지 공동체에 대해서 쓰는 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문화도 좋아질 거고 그리고 저는 옛날에
우리 애들이 어릴 때 내가 학교 단체 엄마를 했는데 인사를 하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애들한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은 미래가 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생각할 때 생각을 해봤어요. ‘미래가 언제일까? 도대체...’
근데 미래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이 쌓여서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과거는 지나간 거고
오늘이 쌓이다 보면 미래가 되는 거니까 아까 제 얘기가 다 통하는 게 저는 미래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만 믿어요. 오늘 내가 잘 살아야 미래가 좋을 거고, 미래는 오늘의
오늘 내가 살아온 거기에 결과가 미래가 될 거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가 그때 선생님이 “어머니 되게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애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라고 했는데 미래유물이라고 할 때 그 미래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임 네, 그때 순간이 떠오르는데... 맞아요, 누구나 어떤 단어들을 마주했을 때
떠오르는 장면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지금 이 에너지를 가지고 말했던 것, 느꼈던 것,
열린 것들이 되게 많아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전시 때 구체적으로 각자의
역할들이 물론 있는데 우리는 같이 무엇을 할까, 저희가 조금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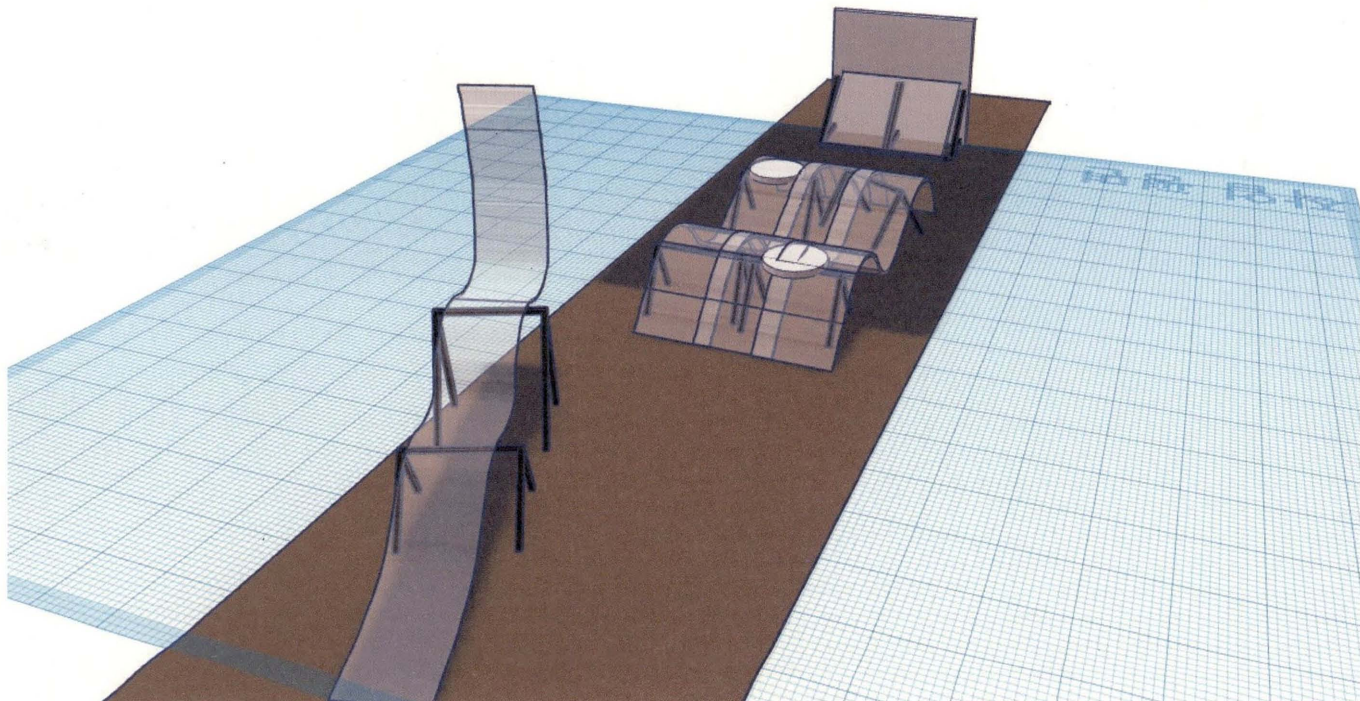
그래서 작가들이 준비를 했고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리고 가능하면
함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같이 논의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방영경 작가(이하 영경작가) 어떤 전시를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의왕에서 발견한 게 선생님들의 시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개개인의 이야기를 발견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들께는 익숙한 의왕이지만 이 공간을 좀 다르게 보기 위해서 프레임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공간이나 장소가 선물이었다는 의미의 리본을 달아주기도 했어요. 결국 이런 다르게 보는 관점을 발견하고 더 들어가서 선생님들의 경험을 담아내는 작업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웅기 선생님께서 써주셨던 ‘미래의 과거인 현재를 대표하는 게 꼭 유형의 물건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어서 이런 텍스트들을 남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들을 비닐이나 바느질이나 아니면 시트지를 인쇄해서 남겨보면 어떨까 싶었고요.



박단경 선생님께서 재봉틀을 잘 다루시고 전태훈 선생님께서는 남은 자투리 천을 많이 활용하고 계셔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의 삶의 키워드나 경험하신 이야기의 키워드를 한 곳에 모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A형 구조물에 설치해서 이야기가 계속 흐르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흘러서 이어가는 것처럼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저런 구조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 형태는 아직 고민하고 있고, 샘플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대로 할 거는 아닌데요. 가로의 폭을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1m 50이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간단하게 하려고 글씨 작업을 시트지로 붙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천이나 아니면 이웅기 선생님의 필체로 인쇄를 해서 시트지를 붙일 수도 있고, 저는 지금 비닐로 작업을 했는데 단경 선생님의 천이나 그런 톤에 맞춰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혹시 이 작업이 가능하시면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신 건지 한번 여쭙보고 싶었고. 어려우시면 여기 글 쓰신 것에서도 좋고, 아니면 3년 동안의 활동에서 남기고 싶은 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추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굴이 작가(이하 굴이작가) 전시장 로비통로가 길쭉하거든요. 그래서 이 행거를 한 네, 다섯 개 정도로 해서 구성했어요. 그래서 이 하얀 부분이 영경 쌤이 방금 보여주셨던 이 비닐 작업이 없혀 질 거고요. 저희가 일기장도 만들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아코디언 모양의 책도 만드셨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전시를 할 건데

문 동선이 도서관 이용 대상자들을 배려하지 않으신 거 같아요.

놀자 아니, 가운데 하고 양쪽에는 빈 거 아니예요? 복도를 3분의 1만 쓴다는 거죠?

굴이작가 네, 복도 폭이 6m 정도 돼요.

놀자 그럼 통행을 어떻게 해요?

임 저 사이사이를 그냥 다닐 수가 있어요.

놀자 다닐 수는 있지만 이용객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원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임 원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단 설치 전시인 거예요?

임 네, 전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벽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서 보통 전시가 이루어지거든요.

문 여기 전시 도서관 문들이 있잖아요. 고려하신 거죠?

임 그럼요.



민병은 기획자(이하 민) 사전에 평면도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현장 실사를 계속 갈 겁니다.

이 3m 여유가 있으니까 다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임 굉장히 생각보다 넓어요.

놀자 로비가 넓기는 한데 거기는 도서관 이용객들이 항상 있어요. 보면 한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있고 왼쪽도 있고 중앙에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피해서 다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우리가 전시 기간이 얼마큼이죠?

임 일주일 정도요.

전 나는 오히려 출입할 때 좀 불편하긴 해도 애들이 오면 놀이터 같을 것 같은데

놀자 거기는 애들이 오는 것 보다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어른들이 더 많아요.

전 그렇긴 하지만 어른도 마찬가지로.

이 거기 뒤쪽 왼쪽에 있는 것이 엘리베이터 타는 문하고 화장실 들어가는 문이 있거든요. 그것만 조금 안쪽으로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어쨌든 일단 저기가 전시 장소로 결정이 됐고, 전시 장소로 쓰인다는 의미는 저렇게 공간을 입체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합의가 돼서 진행이 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자리에 설치가 되냐 라는 거는 그런 부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거는 확정된 게 아니라 전시하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맥락 안에서 어떻게 우리 메시지들을 전달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지금 논의에서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오늘 얘기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동선에 대한 우려 말씀 그런 것도 좋거든요. 그러면 거치대를 만들거나 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는 거죠.

굴이작가 메인으로 들어갈 거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닐 작업이고 그리고 일기장이나 그림들도 같이 전시를 할 건데요. 또 이 뒷면에 있는 행거를 게시판처럼 활용할 생각이에요. 철조망에 집게로 그림을 걸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 아트라는 장르라고 하는 전시 형태가 있어요. 전시를 다 완성을 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전시 기간 중에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자료나 뭐가 더 가지고 오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전시 공간에 오셔서 더 달아주시면 되거든요.

또 비닐 위에 의왕시 지도를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갔던 지역들을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이거는 예시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저희가 활동했던 사진이나 아니면 메모 기록들을 옷핀으로 걸어두거나 이걸 선생님들의 마음에 따라서 참여하시도록 안내드려요. 그래서 꼭 다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기본으로 준비를 하고 계속해서 전시 기간 동안 만들어져 나가는 모습으로 구성을 했고 그리고 공간을 두 가지로 또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는 전시 이 통로 끝부분에 가벽을 세워서 이 가벽에다가 텍스트를 할 수도 있고, 영상을 쓸 수도 있고 가벽을 세우면 이 공간이 이렇게 방처럼 만들어지거든요. 가벽 뒷면에다가 영상을 게시를 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가벽을 치우고 이 전시 뒷면에 플라스틱 빠레트가 있어요. 빠레트를 쌓아 올려서 이 위에다가 전시 설치물이나 그림 같은 것들을 전시하는 계획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끝부분을 굉장히 무겁게 임팩트 있게 보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올려둘 설치물은 제가 만드는 건데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움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움짤이 미디어로 보여지는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미지인데 그렇게 하려면 디지털 매체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꼭 디지털 매체를 가져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공간에 어린이 관객도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체험할 수 있는 뭔가를 생각해보고 싶어서 조이트로프라는 교구가 있어요. 이게 초기 단계의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움직이거나 돌려서보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짧은 동작을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크기의 설치물을 같이 놓을 생각입니다.



이 이렇게 큰 게 있어요?

굴이작가 크지는 않고요. 어린이용 교구라서 작아요.

임 그런 것들이 대략 지금 예상하기로는 좀 몇 개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굴이작가 지금 많지는 않게 네 개 정도 다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를 생각 중이에요.

임 아이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돌려볼 수 있다는 거죠?

굴이작가 네,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도 있고 또 저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냥 TV에 게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활동적이고 또 이 자체가 체험할 수 있는 뭔가가 되지 않을까 해서 구상했습니다.

아까 제가 프로세스 아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모습을 좀 상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림이나 평면적인 게 아니라 입체나 사물이나 주위는 돌멩이, 저희가 원터마을 가서 돌 앞에서 뭔가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가져온 돌멩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워크숍 했던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가져올 수도 있고 개인에게 의미가 있는 사물이라면 전시장으로 가져와서 또 다른 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영경작가 키워드 부분에서는 선생님들께서 키워드를 뽑아서 주시면 여기다가 메시지 카드 같은 거를 적어놓는 거예요. 전시 공간이 도서관이니까 책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그 키워드를 책에서 발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발췌하고 적어서 같이 전시를 해주게끔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몇 페이지에서 좋은 구절들은 적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함께 해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굴이작가 저희가 소설 읽을 때 소개문을 보면 텍스트를 짧게 발췌한 걸 보잖아요. 그걸 보고 전체적인 줄 내용도 가늠해보고 이 소설이 어떤 소설이다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처럼 저희가 했던 내용의 핵심을 쏙 뽑아내서 텍스트를 건다 이런 느낌으로 상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 아까 제가 공간에 대해 말씀드렸던 거는 저기 휠체어, 유모차, 끌차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다녀요. 그래서 그걸 좀 고려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어요.

임 네, 어쨌든 저 공간을 쓴다는 건 전시 이전에 기능, 통로로만 사용되는 공간들이 문화적 행위가 벌어지는 문화적 장소로 된다는 건 좀 다른 의미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도서관에서 전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거기 봤을 때 저희 되게 당황했거든요. 물론 전시장이어야지만 조금 더 자유롭게 전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거치하고 걸고 이런 문제나 못 하나 박는 문제라든가 저희가 영상 작업 같은 것들도 들어가는데 영상을 쓰기 위해서는 거리도 필요하고, 뭘 달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서관은 특히 보수적인 곳이고, 도서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있다 보니까 뭔가 유연하게 다른 행위들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장소 중에 하나예요. 이걸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 우리가 했던 내용과 관련된 문화적 의미도 있지만 도서관에서 통로로 사용되는 기능적 공간을 문화적 장소로 시도해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작업에는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에도 불구하고 통로로 사용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입구라든가 배리어 프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동들이 불가능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화를 나눠보진 않았지만 의왕문화원이나 경기도문화원연합회나 전시라고 하면 규모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규모의 문제와 동선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전시를 그렇게 뽁뽁하게 세울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의 절충점을 어떤 식으로 할까가 지금 전시의 기술적인 문제로 내포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진행하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 좀 가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선순위는 당연히 규모를 만들기보다는 동선이 배려가 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최대한 어떻게 전달할까 이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 예를 들면 의왕문화원이나 관에서 생각하기에 '거창한 걸 할 줄 알았는데 그림이 안 나오네' 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감수하고 가는 거라서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보면서 생각나는 거 같습니다. 아까 키워드 쓰는 거 어떤 도서관이니까 책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저는 의왕의 도로명들 있잖아요. 고유 명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명을 다 써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맨 처음에 미래유물전이라는 그것을 폐현수막에서 그 글자들을 찾아서 오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임 선생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 그게 지금 모아 놓 것이 있거든요. 분류 작업을 해야 돼요.

단 그것도 좋은데 선생님 글씨가 오히려 유물로 남잖아요. 글씨를 써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재봉틀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그것보다는 현수막에서 글자를 오려내는 게 참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입니다.

문 양면 작업한 것들이 있는데 한 면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아코디언북도 앞뒷면에 분명히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앞뒤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임 네 맞아요. 그래서 입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벽에다 붙이는 방식으로는 한계들이 있어서 저런 입체 구조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여기서 더 고민이나 아이디어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 또 하나 제가 숙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던 게 있잖아요. 2분 정도 정지된 영상, 정지 영상 촬영인데 움직이지 말고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이 작가랑 작품을 해보려고 그래요. 도시 숲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하나만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촬영을 해 주시면 작가가 작품을 만들게 되요. 그러면 협업 작품이 돼서 한쪽 벽면에 들어갈 예정이고, 견호씨 영상작품도 하나 더 생길 겁니다.

그래서 숙제가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고 선생님들 마음에 들어 하는 곳, 어느 분이 사람 얘기를 하셨죠. 어젠가 저도 워크숍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마을 도시 그러면 공간만 생각하느냐 다니는 사람이 사실은 핵심인데,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이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려고 한번 해봤느냐 라는 질문을 한번 받았었어요. 정말 그렇네, 도시의 풍광이나 자연이나 건물이나 문화 공간을 생각했지 이것의 핵심인 사람 생각을 안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단경 쌤이 그 말씀을 해 주셔서 꼭 풍경만이 아니어도 좋아요. 가셨던 시장도 좋고 사람들의 얼굴도 좋고...

문 초상권 문제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게재되는 거는 반드시 초상권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 그렇죠.

단 1분짜리로 제가 해봤어요.

민 좋아요, 올려주세요. 1-2분이면 괜찮습니다.

임 해보시고 사실 이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여러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좋고 우리 윈터마을 갔을 때 비명 얘기도 했잖아요. 비 오는 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사실 세, 네 가지 정도의 제안이 있는데 지금 아마 정리 안 되실 거예요. 저희가 문서로 정리하는 회의를 하고, 오늘 새롭게 제안 해 주신 것도 있어서 수정 변경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이런 것도 생겼어요.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몇 가지는 전시 설치 할 때 날짜를 하루 정해서 거는 날을 하루 잡을까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영경 작가가 제안한 것처럼 글씨라든가 바느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감이 안 오지만 꽤 규모가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정에서 참여해 주실 수가 있는지...

단 그래서 김장을 미리 했어요.

임 저희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서 만약에 안 되면 저희도 대안을 마련해야 하니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계획을 짜보고

놀자 저는 불가능한 게 여행을 가요. 4일, 5일만 가능해요.

문 저는 좀 아이러니 했던 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도서관에 가면 항상 전시실이라고 보고 전시의 문턱이 좀 낮다고 생각했거든요. 상시 전시를 하고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생각보다 이 정도 전시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전시관이었거든요. 그래도 시민들이 작가는 아니지만 10년, 20년 이상 한 분들의 작품이 전시되는 곳이라서 일부러 그 갤러리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전시를 한다고 하면 제 친구들이 와서 책을 읽지 않아도 오고, 또 꾸준히 보러 오시는 분들이 오늘은 이게 전시가 되고, 기타에서 그림을 그렸어, 접시에 그림을 그렸어 할 수 있는 이런 전시실이 의왕시에선 현재 거기보다 좋은 곳은 없거든요. 그걸 좀 감안해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보는 드라마에서 미술관에서 일어나는 컨셉을 가지고 작품의 문턱부터 시작해서 가치까지 함께 얘기해 주는 그런 드라마를 좀 관심 있게 보는데 거기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전시 장소로써는 어느 갤러리 못지않게 좋지 않나...

임 장소가 좋다, 나쁘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걸 컨디션 문제예요. 컨디션이 전시하기에 적절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전 입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태와 기능을 전제로 해서 한다고 하면 벽에 붙이는 평면 전시 밖에 못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미래유물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평면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던 관점하고 또 맞지 않는 거예요. 전시 문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문법들이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하고, 뭔가 거치대를 만들고, 입체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단순히 기능이 아니거든요. 그 구조를 어딘가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여기에서 가능하지 않으면 굳이 그런 전시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그냥 전시관에서 하는 게 제일 편하고 많은 공간적 서포팅도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제일 좋은데 도서관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메시지들을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적절하냐 아니냐, 여기에 이런 행위를 하기에 적절하냐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하신 것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이야기들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조금 만들어갈 계획이고 뭐를 해야 되는지는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빠른 시일 안에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선 또 안을 받아보시고 다시 의견을 서로 주거나 받거나 카톡을 통해서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혹시 지금 모인 김에 조금 더 정리해야 되거나 의논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놀자 다른 거보다 입체물로 하면 구조물이 1.5m라고 하면 그걸 중간에 설치할 하면 양쪽에 75cm 밖에 안 나와요.

임 복도가 6m.

놀자 아, 감각이 3m라고 생각해서...

임 근데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저 정도면 되겠다 하고 설치를 했는데 막상 설치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치일 수가 있어요. 특히 휠체어 같은 것들이 다니기에 치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 저희도 설치를 하면서 좀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물건을 거기다 놓아보지 않고선 알 수 없는 거죠. 계산상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막상 놓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자리를 많이 차지하네 이러면 배치나 배열을 또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같이 감안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전시가 대략 이런 그림을 갖고 있구나 라고 가늠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어떠세요? 아직도 긴가 민가 하시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각자가 어떻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제안을 각자에게 하거나 아니면 어느 날 모여서 이 작업은 같이 좀 해보자고 하는 것들 정리해서 같이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페이퍼
원페이퍼
원페이퍼
원페이퍼
원페이퍼

워크숍 후 떠올린 '나'의 감정과 생각 글쓰기

1

의왕문화원 입구에 들어섰을 때 눈에 들어온 ‘미래유물전’ ‘미래유물전’이란 단어가 생소하고 머릿속에서 상충된 두 단어가 정리가 되지 않고 맴돌 기만 했다. 마치 수십 년 전 텔레비전에서 방영했던 영화 ‘백투더퓨처(Back to the Future)’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영화명을 직역해보면 미래로 돌아가다가 된다. 과거로 돌아가다가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해봤지만 영화를 보면 과거로 갔던 주인공이 다시 미래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의왕시도 언젠가는 유물이 될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었다. 의왕시 곳곳을 작가와 돌아다녔다. 사진을 찍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위해 녹음 길은 나무, 노랑게 익어가는 벼, 빨강게 물들어 가는 단풍잎을 보며 몇 년 안에 사라질 오매기의 모습을 담기 위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여러 관점들을 가지고 동네를 천천히 살폈다. 천천히 걷는 사람들과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 어디론가 향하는 등산객들, 푸른 하늘과 저수지, 바쁘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지저대는 새들.

집에 돌아와 생명과 색채에 대해 정리하기 위해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 앉았다. 자연의 움직이는, 숨 쉬는 모습을 한 폭의 그림에 담기에는 자연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그 모습을 떠올렸다, 이 자연의 모습, 현재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후손들에게 미래의 자식들에게 남기기 위해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 전시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며 혼자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미래유물전! 미래와 유물이라는 상반된 두 단어가 합해져 새로운 모습으로 창출되어야하는 미래유물전. 현재의 마을 모습이 미래의 소중한 유물이 될 것이며 우리의 일상적인 삶 또한 미래의 소중한 모습이 될 미래유물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둘러보고 미래를 그려보기 위해 지금의 현재를 기록해 유물로서 후손들에게 남겨 주어야하는 미래유물.

자연과 하나가 된 푸른 의왕의 자연환경의 모습. 면적의 80% 이상이 자연녹지로 되어있는 아름다운 경관의 모습을 가진 의왕의 현재의 모습을 유물로 남겨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여주고 싶다. 현재의 모습에 작가인 나의 예술과 기술을 합하여 작품으로 남기도록 해보겠다.

백투더퓨처의 주인공이 현재를 바꾸기 위해 과거로 시간여행을 한다.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가고 싶은 과거가 되지 않기 위해 현재를 아름답게 만들고 보존한다면 좋은 미래유물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2

이미 마을큐레이터의 경험으로 새롭게 보여지는 것에 들여다보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이번엔 무얼 할지 궁금해졌다. 방영경 작가의 소개를 들으면서 여러 미션을 보면서 재미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흥미로웠다. 그 곳의 색을 찾아본다는 것에 신선함과 호기심이 생겼다. 어떤 색이 나에게 올까 아니면 나는 어떤 색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떤 장소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작가의 어떤 세계를 내가 들려다 보고 나에게서 어떤 것을 이끌어 낼까... 낯설게 다가가기, 어슬렁거리다 보면 어느새 내 곁에 내 눈에 들어올 것 같았다.

고장에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속속히 알 수 없기에 낯선 곳을 여행하는 여행자 같은 느낌도 들었다. 프레임 속으로 들여다보면 내 눈에 들어오려나, 프레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프레임으로 인해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았다. 내가 폭 빠져 있었다. 신기하기도 하고 새로움에 눈이 뜨인 것처럼 흥분도 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다 보니 내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과 차이난다.

왜 그러지? 사진을 찍을 때 뭔가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점점 사진을 찍을 때마다 무언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게 맞는 것일까? 맞게 하는 것일까?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뭐지? 작가의

주문이 이건가? 난감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런 활동의 결과물은 뭘까? 난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작가를 믿지만 내 활동은 무엇으로 나올지 궁금해진다. 분명 색을 찾고, 색을 찾는 것은 나이고, 나의 생각, 느낌, 추억으로 나올 나만의 색, 정답이 아닌 내가 느끼는 나만의 색, 온전한지는 조금은 의문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열심히 찾으려고 한 것이니 그 나름대로 만족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지도 궁금하다. 내가 느끼고 찾아온 색이다. 그 색은 누군가에게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엉터리로 느낄 수 있지만 그 곳 그 시간 그 날씨가 나를 데려가 바라본 것이다. 늘 익숙한 곳이라도 물건이라도 때론 낯설게 다가오니 온 마음과 온 감정을 통해 한번 해 보시기를... 새롭게 보려고 하다 보니 새롭게 보여지는 것도 있고 잊고 지냈던 과거와도 마주하기도 하니 또 신기한 경험이다. 또 그걸 누군가에게 이야기 하는구나 싶었다. 아쉬움, 신기함, 어설피름, 낯섦, 나름 만족까지 여러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다.

3

유물전? ‘유물을 모아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 이라고 국어사전에는 풀이되어있다. 그럼 유물이란? ‘선대의 인류가 후대에 남긴 물건’ 이라고 한다. 그럼 미래 유물전이란? 미래와 유물이라는 상반된 두 단어가 합쳐진 미래 유물전? 시작부터 생소함이었고,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개념이었다. 어렴풋이 ‘현재도 이미 말하는 순간 과거가 되어있고, 지금이 미래에 보면 과거라는 이야기고, 지금의 것이 미래에는 유물이라는 것’ 같다.

다만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을 기존의 틀을 깨고 바라보아야한다는 것이다. 속도를 더한 관점, 처음 가보는 여행자의 관점, 색깔로 바라보는 관점, 생명을 찾아보는 관점. 어느 것 하나 쉬운 건 없었다. 생명과 색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오매기 마을의 바라봄에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답답하기만 했고, 미래를 디자인하기 위한 현재의 분석에 초보적인 나는 작가로서의 소질이 없음을 한탄하기만 했다. 자연 속에서 난 틀을 깨지 못하고 있었다. 병아리는 알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부곡의 도깨비 시장을 찾았다. ‘줄탁동시(倅啄同機)’ 색을 찾는 몇 가지 작은 힌트가 주어졌다. 도깨비 시장의 밝음이 보였다. 우중충함도 보였다. 추억도 있었다. 꿈도 있었다.

미래의 과거인 현재를 대표하는 것들은 꼭 유형의 물건만은 아니다. 나의 느낌과 사람들의 생각과 풍기는 분위기와 냄새와 색깔 등의 무형의 것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흑자는 파란색으로 흑자는 빨간색으로 보일 것이고 또 표현되어질 것이다. 정답은 없다. 어떤 이에게는 힘들고 어려움 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꿈과 희망일테니.....병아리는 어미닭이 쪼아주어야만 깨어난다고 한다. 어미 닭이 쪼아주지 않아도 깨어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를 보는 관점을 내가 만들어 보아야겠다. 내 스스로 알 속의 병아리이면서 밖에서 쪼아주는 어미닭이 되어보고 싶다.

5

우리는 떠났다. 과제를 가지고 떠난 길. 작가님께서 “이렇게 해 보세요 이것을 활용해 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도를 해 주셨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했다. 윤곽은 잡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앵글의 초점을 맞추고 많은 사물들을 정지시켜 카메라 안에 집어넣었다. 생의 길이 그러하듯 보이지 않던 길도 나타나면 걸어가게 되는 것처럼 안개 숲을 헤매다 막 비치기 시작하는 햇살아래 드러나는 형상들을 발견했을 때의 신비로움처럼 호기심과 막연한 기대감이 일렁였다.

답사 장소를 이동하여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면서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도통 감이 오지 않았지만 ‘따라가다 보면 뭔가 보일 것이다’는 생각도 함께 일어났다. 열심히 애쓰는 모습의 작가님께서 “이런 것도 좋아요. 네 잘 했어요.” 라고 하시는데 ‘아직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경조차 보이지 않는 어려운 과제다.’ 라는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지배했다. 여행과 색깔의 주제를 가지고 과제를 수행

여행을 떠날 때 계획표를 작성하지 않고 발길 닿는 대로 가다보면 만나게 되는 낯선 풍경과 사람들 예기치 않는 일과 사건들 그리고 잔잔한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이 여행의 묘미다. 변신하는 자신의 모습과 낯선 것들과 동화 되어가는 즐거움이

삶의 활력이 된다. 여행에서 얻게 되는 시야의 확대와 여러 가지 경험들 나와는 다른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생활들이 흥미롭다.

나의 모습에서 느끼는 진면목 일반인이 된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에 놀랐다. 요가 강사를 하면서 행했던 그 관습들이 몸에 배어 있었는지 은연중 주변 분들을 지도하는 것 같은 과거의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 했고 문득 미안했다.

6

작사들의 난감하고 해보지 않은 주문에 나를 얼마나 맡겼나요?
평소 하지 않는 것들을 주문하다보니 귀찮았지만 신선한 접근법이
어서 나름 창의적 생각을 더하려 노력해보았는데 역시 상대방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작가님 주문에 온전히 맡겼다고 생각하며 활동하다가
나중에서야 서로 다른 해석이라는 것에 전달법과 해석법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게 되었어요.

해보니까 어땠나요? 작가님이 나이가 많았다면 따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기에 한 번
해줘 보자가 더 많았고 세대차이가 여기에서 나는구나 싶었어요.
색다른 접근법 있고 있었던 추억을 소환해보는 활동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뭘 공유하려 했고 뭘 남겨야겠다고 많이
생각했는지요?** 평소의 나는 어땠었나를 생각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늘 우리가 하던 행동이었고 문화였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문화를 잊고 뭔가 바쁘게 앞으로만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을 벗어나 다른 곳을 살펴보며 다른 영역을
둘러보는 것이 좋았네요. 국민체조 그리고 몸으로 움직이니
개운했었던 시간이었고, 사람들에게 놀이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함께 놀아보는 시간도 필요 하더라고요. (은희의 일상에서의 탈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서 움직여
보았어요. 마을을 둘러보고 마을을 알아가다 보니 평소에 보이지
않던 과거의 추억을 소환하게 되었고 누군가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는 나를 찾았었죠. 그러다 보니
내 마을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차 큐레이터 활동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다른
시점에서의 마을활동이었어요. 뭔가를 조사하고 공부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숙제처럼 마음과 어깨를 짓누르는 것들을
감안하며 시작한 첫 날. 어~~ 뭐지? 공교롭게도 그날 중요한
교육이 있어서 수원을 가야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작가님들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아 선뜻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고 결국은 택시를
타야 했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아무 작가님이나 같이 활동할 수
있다고 했는데 두 분 다 기대 되는 가운데 만난 굴이작가님. 하필
활동일마다 비가 와서 나설 때는 귀찮음 짜증 불편함으로 집을
나섰었죠.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다보니 처음에는 뻘뻘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살짝 살짝 꼬여있었습니다.

뜬금없는 국민체조. 열심히 하는 다른 분들을 보게 되니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수다로 마음을 릴렉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역할에 더 몰입이 되며 부담감들을 아래로 내려놓았어요.
재미있다~~ 신선했다. 역시 끈대였구나 라는 생각들이 복잡하게
밀려왔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시간을 보내고 온다는 것들이
좋았던 시간입니다. 옆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놀았던
시간이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필요한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전래놀이도 숙제처럼 여기며 배웠는데 막상
성인들도 좋아하는 모습에 쉽게 결론내고 단정 짓는 내 태도가
부끄럽기도 했지만 타인의 이야기에 집중하겠다는 도전도
있었어요. ‘나라면 어떻게 풀어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했었어요.
잠간의 시간이지만 활동에서 다시 나를 찾아보고 내안의 무언가를
느껴본다는 것 그리고 표현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즐겁고
아름답다는 것. 다음에 이런 접근법들을 지인에게 혹은 아이들과
함께 해보고 싶었어요.

8

작가들의 난감하고 해보지 않은 주문에 나를 얼마나 맡겼나요?
적극적인 나를 찾으려고 100%

해보니까 어땠나요? 주변의 시선보다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었다.

사람들에게 뭘 공유하려 했고 뭘 남겨야겠다고 많이
생각했는지요? 누구나 맘만 먹으면 세상의 시선에 어 벗어나 나를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이랬나? 낯선 나에 대해 새롭게 발견한 나의 모습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써주세요. 내가 하면 어색할까 특히 행위예술도
전공이 필요할까? 예술과 놀이의 경계가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작가들 따라가면서 내 기분이 이랬다 좋은 에너지를 받고 주변의
사람의 시선 보다는 주변의 꽃을 관찰하는 시간이 생겼다. 나를
찾아서 주제와 함께 내면으로 들어갔다. 주변의 시선 보다는
하나의 놀이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마음가는대로 표현하는
시간이었다. 그동안 행위예술, 퍼포먼스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해결된 느낌이다.

그냥 즉흥적으로 하면 놀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표현하면 예술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주변의 시선보다는 주제를

생각하고 참여하려고 노력했고, 망설였던 도전도 가능할 듯한
용기가 생기는 시간이었다. 작가님과 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좋았고, 나 또한 많이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다. 하이드 농장에서
만남 환경은 어린시절 나 그리고 하늘, 구름, 바람을 타고 멀리
계시는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었고, 농장에서 나를
받겨주는 해바라기가 좋았고, 비와 함께 둘째 시간에는 나팔꽃과
친구가 되는 시간도 가졌다.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몸도 마음도
같은 기억을 하는 것이 신기하다.

9

나에게 이번 의왕문화원 수업은 낯설음 수업이었다. 시간이 흐른 후 그 낯설음의 포장지를 열어보니 그 시간 속에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내모습도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어찌면 주어진 미션에 맞추어 순순히 순응하였다. 이번만큼은 준비와 계획이 아닌 수동적으로 미션이 왔을 때 그래서 당황할 때 어찌면 가장 내안의 낯선 나를 발견하는 것 같았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망가진 내 모습을 내가 화면을 통해서 부끄럽게 봐야했고 그리고 문화원에서 발표할 때의 떨림과 준비하지 못한 발표의 후회... 마치 어떤 것이 미션으로 나올까... 미리 학습하고 공부하지 않는... 즉흥적으로 해야 하는 미션처럼 발표도 즉흥적으로 했는데... 역시나 내 기준으로는 대참사였다.

그러나 그 참사와 부끄럼마저도 나는 수업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었다. 이것 또한 나의 지독한 나만의 기준이기에...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내가 다시 세상의 눈치를 보는구나... 문득 깨달음이 왔다. 그렇다. 이번 의왕문화원 수업만큼은 어찌면 동심으로 돌아가 부끄럼과 세상의 눈치를 안보니 한없이 자유로움을 느꼈다. 물론 수업 전 공원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떡하지 잠시 망설였지만... 뭐 어때? 하면서 그래 그냥 해보자. 그래서 순간 몰입을 한 것 같았다. 어찌면 세상의 삶은 주어진 틀에 맞추어 살았는데 나이와 틀을 깨고 땡깡 부리기 그리고 애교떨기 이것을 공원에서 마흔이 넘은 내가 함으로써 의외로 참 당황스러웠고, 우스꽝스러울수도 있으나 눈치 안보고 그냥 했다. 세상의 눈치를 안본 순간들이었다. 운동기구에서 앞사람이 더 왼쪽 오른쪽 더 높게 운동해도 경쟁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맞추어 그냥하고, 선생님들은 장애물 통과가 되어도 나는 안될 때 그냥

건너뛰기도 했다. 미션을 통하여 좀 더 편안한 나를 만날 수 있었다. 미션을 할 때마다 어떤 미션이 주어질까 궁금하기도 하고, 수업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시간이 짧다고 느껴졌다.

이번 의왕문화원 수업과정에서 느낀 점은 낯선 나를 통하여 자유로움과 즐거움 그리고 함께하고 망가진 내 모습을 통하여 의외로 편안함을 느꼈다. 우리는 세상의 시각에 맞추어 사는 세상이 바라보는 타이트한 옷을 입고 가끔씩 세상의 높은 구두를 신고 다니는 건 아닐까? 길을 잃었을 때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것처럼... 때로는 자유롭게 때로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끔은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왜냐면 잠시나마 수업을 통하여 즐거움과 자유로움 그리고 그 후에 마음의 편안함을 느꼈으니깐... 이번 문화원 수업은 나에게 있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수업이었다. 끝이썬 감사해요. 땡큐^_____^ 역시 본능에 충실해야 하는 것에 1표.

미래유물전

1

의왕,
두터운 현재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2

마을과

삶에 대한 감각,
스위치 켜기

• 미래유물전 기획단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의왕문화원



9 791189 046200 03090
ISBN 979-11-89046-20-0